

2012. 6.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Contents



Section 1

콘텐츠 시장통계

01 출판	11
02 만화	17
03 음악	25
04 공연	30
05 게임	34
06 영화	42
07 애니메이션	48
08 캐릭터	55
09 방송	57
10 광고	63
11 지식정보	66

Section 2

콘텐츠 통계 브리핑

국내편	
01 국내 콘텐츠산업 라이선싱 매출 2조 6천억원 시장으로 급성장	76
02 국내 콘텐츠산업 상장사의 경영실적 진단	79
해외편	
01 PWC, 2011년 글로벌 E&M시장 1조 6천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는 10위	82
02 IFPI,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167억 달러 규모로 하락, 우리나라 11위 기록	86

01

콘텐츠 시장통계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6월호〉 총괄 요약

🔍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소비 확대와 사업자간 희비 교차

● **출판**(베스트셀러로 인생 지침서 인기), **만화**(웹툰의 영향력 확대), **음악**(인디음악의 대중화), **공연**(뮤지컬과 코미디연극의 흥행), **게임**(디아블로3 출시와 온라인게임 변화), **영화**(한국영화의 선전), **애니메이션**(일본과 미국의 애니메이션 강세), **캐릭터**(국산 캐릭터 완구의 인기), **방송**(종합편성 시청률 저조), **광고**(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인터넷광고 과점화), **지식정보**(LTE와 IPTV 가입자의 상승) 등 콘텐츠 시장에서 산업 내, 산업간 긍정과 부정으로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 문화콘텐츠의 성장가능성이 돋보인 5월이었다.

분야	5월의 콘텐츠 시장동향 헤드라인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 철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에세이 분야 인기 » 멈추면 보이는..(1위), 달팽이가 느려도..(4위), 아프니까 청춘이다(8위), 나의 상처는..(10위)
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툰의 인기가 단행본 만화시장을 이끌다 » 월평균 순방문자 천만 명 이상 : 네이버 만화(710만명), 다음 만화속 세상(299만명)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 그룹의 강세와 대중음악에서 자리잡은 인디음악 » 소녀시대(태티서), 씨스타 등 종합순위 상위, 페퍼톤스, 데이브레이크 등 인디음반 순위 상위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뮤지컬과 코미디 연극의 흥행, 그리고 발레의 인기 » 공연종합순위 20에서 1위(뮤지컬 위키드), 2위(연극 옥탑방 고양이).. 친정엄마 등 창작 뮤지컬 5편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아블로3 출시와 온라인 게임업계의 지각변동 » 온라인게임 1위(디아블로3)로 RPG장르 급상승(10.22%P)에 따라 점유율 1위 차지(44.95%)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누적 할리우드영화에 맞서 한국영화의 선전 » 관객 점유율 한국영화 53.5%(59편 개봉), 외국영화 46.7%(132편 개봉)
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채널은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은 미국 3D애니메이션이 선전 »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TOP35에서 일본이 31개 포함. 장화신은 고양이는 200만명 관객 동원
캐릭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 요인(기념일/이벤트)으로 국산 캐릭터 완구판매 인기 » 토이저러스 판매순위 : 남아(또봇시리즈), 여아(미미시리즈), 유아(보로로, 로보카폴리) 완구가 상위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률 지상파 17.4%, 유료채널 11.5%, 종합편성 1.4%로 희비교차 » 프로그램 시청률 TOP20 : 드라마 12편(60%), 예능오락 및 시사교양이 3편씩(15%), 보도 2편(10%)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노출형 광고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75.2% 점유 » 인터넷 노출광고에서 3개 매체가 5월 유치한 광고료 460억 원
지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정체, 스마트폰(LTE)와 IPTV는 상승 » 5월 기준 가입자 현황 : 이동전화(5천3백만, 0.16% 증가), 초고속인터넷(1,798만명, 0.15% 증가), LTE(600만명, 2.5% 증가), IPTV(556만명, 32.7% 증가)



출판시장 : 인생의 철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에세이 분야가 인기

- 5월 도서시장은 에세이 분야 서적의 강세('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1위,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4위, '아프니까 청춘이다' 8위,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10위)가 이어졌으며,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은교'가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종합 2위, 교보 e-book 1위, 리더북스 7위, 올레e북 1위)에 올랐다.
- 5월 종이책 발행종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했고, 연간 누적 기준으로도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e북을 제외한 출판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는 스마트미디어의 이용증가에 따른 독서시간 감소, 경기침체 및 온라인서점의 과도한 할인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의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 5월 정기간행물 현황은 13,687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월간지가 4,305종, 인터넷신문이 3,521종, 주간지가 2,833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만화시장 : 웹툰의 인기가 단행본 만화시장을 이끌다

- 5월 한국만화 Top10에서 심승현 작가의 '파페포포 시리즈'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기 있는 웹툰을 단행본으로 출시한 작품들이 상위권(1, 2, 4, 6, 8, 9위)를 차지했다. 웹툰 서비스 이용통계에 따르면, <네이버 만화>는 5월 한 달간 약 710만 명의 순방문자수와 월평균 92.19분의 체류시간을, <다음 만화속 세상>은 약 299만 명의 순방문자수와 57.12분간의 월평균체류시간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형 포털 웹툰의 월 순방문자가 천만 명을 넘음에 따라 웹툰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네이버 만화> 인기순위는 2011년 5월 5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패션왕'이 4월에 이어 조회수 1위에 올랐다. 이는 동기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패션왕'의 영향이 크다. 2008년부터 연재를 이어오며 누적 조회수 6억 회를 기록한 '노블레스'는 2위를 기록했다. <다음 만화속 세상>에서는 영화 '이끼'의 원작자 윤태호가 연재중인 '미생'이 별점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고, 최근 만화 단행본이 출간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터'가 3위에 올랐다.
- 2012년 1~5월의 만화 출간종수는 1,493종으로 2002년 3,434종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장르별로는 성인·성애 소설이 350종으로 가장 많았고, 드라마·순정·판타지가 200종 이상 출간되었으며, 에세이툰, 코믹, SF, 스포츠, 학원, 액션 등의 장르는 100종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종수가 출간되었다. 또한 국적별로는 1,493종의 만화 중 한국작가의 작품이 486종으로 32.6%를, 일본작가의 작품이 980종으로 65.6%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한국작가 출간종수인 531종에 비해 45종 하락한 수치이며, 한국작가의 출간 비중에서도 2.5%p 하락한 것이다.
- 2012년 1~5월의 10종 이상 출간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만화 출간종수는 3대 만화출판사인 대원씨아이가 374종, (주)학산문화사가 367종, 서울문화사가 139종을 출간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이들이 출간한 만화는 전체 출간종수의 69.8%를 차지했는데, 2009년 73.9%, 2010년 75.2%, 2011년 75.2%과 비교하여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악시장 : 아이돌 그룹의 강세와 대중음악에서 자리잡은 인디음악

- ◎ 5월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에서는 소녀시대(태티서)의 미니앨범 수록곡 'Twinkle'이 1위에 올랐다. 아이유의 '스무살의 봄'에 수록된 '하루 끝'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했고, '복숭아'도 5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그 외에 <슈퍼스타K 3>에서 1위를 했던 울랄라세션의 '아름다운 밤'이 4위를, 4월 종합음악차트 1위를 차지했던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은 13위를 기록했다. 한편 서비스별 음원차트에서도 아이유와 소녀시대(태티서)의 신곡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운로드, BGM, 벨소리 음원에서 아이유의 '하루 끝'이 1위를, 스트리밍 음원에서는 태티서의 'Twinkle'이 1위에 올랐다.
- ◎ 5월 오프라인 앨범 차트에서는 태티서의 미니앨범 'Twinkle'과 JYJ의 XIA(준수)의 첫 솔로앨범 '시아-타란탈 레그라'(XIA-TARANTALLEGRA)가 발매되자마자 각각 1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다. 음반유통의 경우, 로엔엔터테인먼트가 5월 기준 판매량 177,210장을 기록하는 등 상위 15위에 6개 앨범이 포함되었고, KMP홀딩스(SM, YG, JYP, 미디어라인, 스타제국, 유니온캔, 뮤직팩토리로 구성)와 CJ E&M도 3개 앨범이 상위권에 올랐다.
- ◎ 5월 인디음반 판매차트에서는 페퍼톤스의 새 앨범 'Beginner's Luck'이 4월부터 1위를 지키고 있다. 'Top밴드 시즌 2'에 출연한 데이브레이크의 3집 앨범 'SPACEenSUM'은 2위로 두 계단 상승했으며, 장미여관의 '너그러다 장가 못간다'도 6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또한 옥상달빛의 '서로'가 5위, '28초'가 10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최근 인디음악은 과거의 개성과 자유분방함, 그리고 독특한 소재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매체 노출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형태로 아이돌 음악과 차별화하며 온/오프라인 음악시장은 물론 드라마와 영화의 OST에도 등장하는 등 대중음악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 5월 노래연습장 차트에서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4월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빅뱅의 'FANTASTIC BABY'는 2위를 기록했으며, 4월 발매된 씨스타의 '나혼자(Alone)'는 62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임재범의 '너를 위해', 에일리의 'Heaven', 10cm의 '애상', 이은미의 '에인...있어요',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과 같은 곡들도 애창곡으로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 공연시장 : 창작 뮤지컬과 코미디 연극의 흥행, 그리고 발레가 인기

- ◎ 5월 공연시장에서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들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뮤지컬 '위키드'의 오리지널 내한공연(판매점유율 5.0%)이 공연 종합순위에서 1위에 올랐고, 연극 '옥탑방 고양이'가 2위를 기록했다. 공연시장 종합 20위권 안에 든 작품 가운데 뮤지컬이 13편(창작 뮤지컬 5편), 연극이 7편을 기록한 반면, 콘서트·클래식·오페라·무용 등의 공연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는 콘서트 등이 1회 또는 수회 공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뮤지컬·연극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장기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 5월 콘서트 티켓판매 순위는 상반기 대중음악계 이슈 중 하나인 3인조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단독콘서트 '청춘버스'의 앵콜콘서트가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힙합듀오 리쌍의 공연 '리쌍극장 시즌2'가 2위, 'SENSATION'이 3위에 올랐다. 클래식·오페라 분야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획한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인 오르가니스트 듀오 페레티 & 로방의 'Bon Voyage' 콘서트가 1위를 차지했다.

- 5월 무용·전통공연 분야에서는 42회째를 맞이한 동아무용콩쿠르의 본선경연 '2012 동아무용페스티벌'이 1위에 올랐고, 10년 만에 내한공연을 하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까멜리아 레이디'가 2위를 차지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은 강수진이 프리마돈나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국내 양대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지방순회 공연(대전, 광주, 이천)이 높은 티켓판매율을 보이며 순위권에 들었고, 세계 3대 발레단으로 꼽히는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지젤' 내한공연이 10위에 오르는 등 무용장르에서 발레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의 현상을 반영했다.

■ 게임시장 : 디아블로 3의 출시와 온라인 게임업계의 지각변동

- 5월 게임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남녀 비율이 63 대 37으로 나타났다. 월간 이용일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3.3일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시간도 800분 이상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는 13~18세의 순이용자수 및 도달률, 평균게임이용개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용시간에서는 35~39세가 2,438분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순이용자수 및 도달률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이용시간에서는 무직/기타(2,624분)와 생산직(2,317분)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업주부의 이용량은 942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득별 행태에서는 300만원~500만원이 순이용자수, 도달률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월 온라인게임 순위는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디아블로3'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1위를 차지하였다. 이로 인해 1위였던 '리그 오브 레전드'는 2위, 아이온은 4위로 하락하는 등 상위권 게임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블리자드의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5단계 하락하며 15위를 차지하였다. 온라인게임 TOP20에서 국내 게임개발사의 게임이 14개나 포함되는 등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 5월 온라인게임 장르별 현황은 '디아블로3' 출시로 인해 RPG장르의 점유율이 급상승(10.22%p)했고, 타 장르 점유율이 동반 하락했다. 5월 한 달간 RPG의 일간평균접속자수는 385만 명, 일간최대접속자수는 751만 명에 달했고, 평균체류시간은 119분을 기록하며 타 장르를 압도했다. 장르별 점유율 추이는 RPG가 44.95%로 1위를 차지했고, RTS(실시간전략게임)이 24.59%로 4월 대비 3.77%p 하락하며 2위, FPS가 3.16%p 하락한 12%로 3위를 기록했다. 8.34%(0.75%p 하락)의 점유율을 차지한 스포츠가 4위를 기록했고, 아케이드·포커·보드·레이싱·고스톱 등의 장르는 모두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며 3% 미만에 머물렀다.
- 5월 온라인 게임사별 점유율에서는 엔씨소프트와 넥슨이 각각 16.8%, 16.25%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했다. 최근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14.7%) 인수로 최대주주로 등극하며 두 회사의 점유율이 33.05%로 전체 온라인 게임 시장의 1/3을 차지하게 되어 향후 게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점유율 3위인 블리자드는 자사의 5개 게임 중 '디아블로3'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들이 하락하면서 11.5%를 기록했고, 네오위즈게임즈와 CJ E&M이 11.4%와 9.67%의 점유율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5월 모바일게임 순위는 '팔라독'과 '템플런'이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유·무료 애플리케이션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 5월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은 285건이었다. 이중 140건이 전체 이용가이고, 120건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신청했다.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는 각각 17건, 8건에 그쳤다. 지난 1년간의 등급신청 추이에 따르면, 전체 이용가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청소년이용불가는 꾸준히 신청건수가 유지되어 조만간 그 수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게임 섯다운제의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는 게임섯다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준에 맞춰 게임을 제작하는 방법을 통해 섯다운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 영화시장 : 전년 동기 대비 한국영화의 점유율 상승

- 5월 박스오피스 순위는 4월 26일 개봉한 ‘어벤져스’가 매출액 416억 원, 관객수 503만 명(누적관객수 690만 명)을 동원하며 1위를 차지했다. 로맨틱코메디 ‘내 아내의 모든 것’이 23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위를 기록했고, ‘맨 인 블랙 3’와 ‘코리아’, ‘돈의 맛’이 그 뒤를 이었다. 박범신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은교’는 김고은이라는 신인배우를 발굴하며 누적관객수 134만 명을 기록했고, 3~4월 366만 명을 동원하며 예상 밖의 흥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건축학개론’은 44만 명을 추가하여 누적 400만 명을 돌파했다.
- 5월까지의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000억 원 가량 증가한 5,30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관객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약 1,300만 명이 증가한 6,860만 명을 기록했다. 개봉편수에서는 한국영화 개봉이 작년 동기 대비 2편 증가한 59편을, 외국영화는 14편 증가한 132편을 기록했다. 관객 점유율에서는 한국영화가 53.5%를 기록하며 외국영화 점유율(46.7%)을 앞섰는데, 이는 작년 1~5월 외국영화의 점유율(68.4%)이 한국영화(31.6%)를 두 배 이상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4월과 5월로 한정해서 보면 외국영화의 점유율은 약 58%에 달하여 한국영화 점유율(42%)을 앞섰다. 이는 ‘배틀쉽’, ‘어벤져스’, ‘맨 인 블랙 3’와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개봉하여 많은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이며, 특히 5월까지 690만 명을 동원한 ‘어벤져스’의 흥행효과가 컸다.
- 5월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배급사는 CJ E&M으로, 관객 1,494만 명을 동원하며 22.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주)는 상영편수는 9편에 불과했지만, ‘어벤져스’와 ‘맨 인 블랙 3’ 같은 할리우드 대작을 선보이며 관객수 1,077만 명(점유율 16.0%)로 2위를 차지했다. ‘건축학개론’, ‘은교’, ‘돈의 맛’ 등을 배급한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는 점유율 15.3%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1~5월까지 상영유형별 관객점유율은 2D영화(디지털)가 79.2%, 아날로그 필름이 11.9%, 3D가 7.2%를 기록했고, IMAX와 4D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 지난 5개월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진행한 영상물은 373개였고, 이중 국내물이 76개, 국외물이 297개로 집계되어 국외물이 국내물보다 4배가량 많았다. 등급별로는 국내외 모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158개로 가장 많았고, ‘15세이상관람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되었다.





■ 애니메이션시장 : 전문채널은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은 미국 3D애니메이션이 선전

- 전문채널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장 큰 인기를 보인 반면, 극장애니메이션에서는 미국 3D 애니메이션이 크게 선전했다. 한편, 총 19개 전문채널 가운데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들은 0.1% 이하의 낮은 시청률을 보여 채널 선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5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방영 프로그램 중에서는 <명탐정 코난 시리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명탐정 코난 극장판 침묵의 15분'이 평균시청률 0.845%로 1위를, '명탐정 코난 시즌 10'이 평균시청률 0.737%로 2위에 올랐다. 상위 35개 프로그램 중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은 '막이래쇼3(9위, 0.575%)', '안녕자두야 스페셜(15위, 0.464%)', '와라편의집스페셜(33위, 0.351%)', '안녕자두야(34위, 0.350%)' 이상 4개에 그친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31개로 순위권의 대부분을 점유하며 국산 애니메이션의 열세를 반영했다.
- 5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 <명탐정 코난 시리즈>, <아파맘마> 등을 방영하는 'Tooniverse'가 0.248%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디지몬>, <도라에몽>, <포켓몬스터> 등을 방영하는 'Champ(0.1124%)'가 차지했고,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을 방영하는 '카툰네트워크'는 3위를 기록했다.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은 모두 도달률이 10%에 못 미치고 점유율 1% 미만으로 나타났고, 시청시간은 0~3분에 그쳤다.
- 5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별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에서는 <투니버스>에서 '개구리중사케로로 극장판 드래곤 워리어'가 1위를, <카툰네트워크>에서는 '닥터슬럼프 TV스페셜'이 1위를 기록했다.
- 1~6월 초까지 23편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했고, 이중 1월에 개봉한 '장화신은 고양이'가 약 2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했다. 또한 EBS에서 제작한 국산 3D 애니메이션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 3D'가 약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선전했다. 6월 6일 개봉한 '마다가스카3:이번엔 서커스다'는 6월 27일 기준 130만 관객을 동원했다. 제작국가별 구분에 따르면,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작품이 개봉되고 있다. 특히 할리우드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미국의 3D 애니메이션은 화려한 그래픽과 탄탄한 스토리를 통해 전 연령대에 걸쳐 인기를 얻고 있다.
- 애니메이션 VOD 다운로드 순위에서는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 <Hoppin> 세 곳에서 '돼지의 왕'이 1위를 차지했다. '돼지의 왕'은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으로, 1억 5천만원이라는 저예산으로 제작되었지만 심도 있는 주제와 개성적인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한편 프랑스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이 <T-store>를 제외한 마켓에서 순위권 안에 들었고, 다음 영화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 2위에 올랐다.



☐ 캐릭터시장 : 계절요인(기념일/이벤트)으로 국산 캐릭터 완구판매 인기

- ◎ 5월은 어린이날이 있어 캐릭터 상품에 대한 구매수요가 큰 편인데 올해에는 예년보다 다양해진 국산 캐릭터 완구의 인기가 높았다. 특히 '로보카 폴리' 관련 완구의 인기가 급상승해 '뽀로로'의 인기를 넘보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캐릭터 일색이던 로봇완구 시장에서 국산캐릭터인 '또봇' 관련 상품이 인기를 얻었다. '뽀로로 시리즈'는 모든 완구분야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 ◎ 완구전문점 <토이저러스>에서 발표한 5월 캐릭터 상품 순위에서는 남아완구에서 '또봇 시리즈', 여아완구로는 '미미 시리즈'가 상위권에 올랐고, 유아완구는 '뽀로로', '타요', '로보카폴리' 등이 상위권에 올라왔다. 교육완구로는 '레고 시리즈'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야외완구 중에서는 '2012년형 뉴 스포츠 쿠페2'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 보드게임에서는 '덤블링 몽키'가 1위를 차지했다.

☐ 방송시장 : 시청률 지상파 17.4%, 유료채널 11.5%, 종합편성 1.4%로 희비교차

- ◎ 5월 지상파방송 채널의 시청률은 17.4%를 기록한 가운데, MBC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3.36%의 낮은 시청률을 보여 지상파 방송 채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상파방송 채널과 유료방송채널 모두 <드라마> 장르가 강세를 보였으며, 오락예능 분야에서는 '개그콘서트'가, 보도 분야에서는 'KBS 9시 뉴스'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 ◎ 5월 채널의 플랫폼별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지상파 채널이 17.4%(점유율 54.8%), 유료채널이 11.5%(점유율 36.23%), 종합편성 채널은 1.49%(점유율 4.69%)를 기록했다. 전체 채널의 시청률 합계는 31.75%, 도달률은 94.6%를 기록했다. 채널별 가구시청률에서는 'KBS1'이 5.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KBS2', 'SBS', 'MBC'의 순으로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EBS를 비롯한 나머지 채널들은 시청률 1% 이하를 기록했으며, 작년 12월 개국한 4개의 종합편성채널(JTBC, MBN, 채널A, TV조선) 중에서는 JTBC가 0.44%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TV조선이 0.28%로 가장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 ◎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에서는 상위 20개가 모두 지상파채널 프로그램이었다. 시청률 31.1%를 기록한 주말 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1위를 차지했고, MBC드라마 '빛과 그림자'가 21.51%로 2위에 올랐다. 인기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10위권 내에서 '개그콘서트', 'KBS 9시뉴스', '일요일이 좋다'를 제외한 7개의 프로그램이 드라마였고, 상위 20개 프로그램 중에서도 드라마가 12편으로 60%를 점유했다. 예능오락과 시사교양은 각각 3편으로 15%를, 보도 프로그램이 2편으로 10%를 기록했다.
- ◎ 5월 유료채널 프로그램 중에서는 JTBC의 주말드라마 '인수대비'가 시청률 2.12%로 1위에 올랐다. 이어 Mnet의 '더 보이즈 오브 코리아파이널'이 2.06%로 2위를 기록했고, 프로야구의 인기와 함께 KBSN스포츠의 '2012프로야구 <생>'이 1.38%로 3위에 올랐다. 유료채널 시청률 상위 20개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구분하면, 드라마가 8편으로 40%의 점유율을 보였고, 보도 프로그램이 4편(20%), 시사교양과 스포츠가 3편(15%), 그리고 예능오락이 2편(10%)을 기록했다.





- ◎ 5월 장르별 프로그램 시청률에서는 KBS2의 '넙쿨째 굴러온 당신'이 드라마 부문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보도 부문에서는 시청률 18.85%를 기록한 'KBS 9시뉴스'가 1위를 기록했다. 오락 부문에선 '개그콘서트'가 19.97%로 떨어지지 않는 높은 인기를 확인했고, 시사교양 부문에서는 SBS의 장수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가 12.96%로 1위를 차지했다.
- ◎ 성별/연령별 시청률 순위에서는 남녀 모두 '넙쿨째 굴러온 당신'이 1위를, '개그콘서트'가 2위를 차지했다. 13~18세 순위에서는 '개그콘서트', '일요일이 좋다'와 같은 개그·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게 나왔고, 19세 이상은 '넙쿨째 굴러온 당신'이 1위를, 60세 이상은 일일연속극 '당신뿐이야'가 1위를 차지했다. 인기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별로는 개인 60세 이상이 높게 나왔다.
- ◎ 케이블TV 가입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4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케이블TV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아날로그 케이블TV의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7만 명, 경기도가 287만 명을 기록했고, 제주도가 18만 명으로 가장 적은 가입자수를 기록했다. MSO별 가입자 기준으로는 디지털 가입자 수에서 '씨앤엠(142만)'이, 아날로그 가입자 수는 '티브로드(233만)'가 가장 많았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수치로는 'CJ헬로비전'이 34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광고시장 : 인터넷 노출형 광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75.2% 점유

- ◎ 5월 인터넷 노출형 광고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3개 매체가 75.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3월의 72.5%, 4월의 73.6%에 비해 조금 상승한 수치이다. 이들 3개 매체가 5월에 유치한 광고료는 4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상위 6개 매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1%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 30개 업체가 차지하는 매출규모는 93.8%로 4월의 92.9%에 비해 0.9%p 상승했다.
- ◎ 5월 광고주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에서는 '삼성'이 약 21억 원을 집행하며 점유율 3.4%로 1위에 올랐다. 현대캐피탈과 이베이코리아, 에이블씨엔씨가 2%대의 점유율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옥션과 G마켓을 소유한 이베이코리아는 광고수와 캠페인 수에서 다른 광고주들을 압도하며 공격적인 인터넷 광고전략을 유지했다. 한편 상위 30대 광고주의 전체광고 점유율은 40.3%, 집행금액은 약 247억 원으로 나타나 4월의 38.4%, 243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 ◎ 5월 검색광고 시장에서 광고주 수는 14만 2,500개로 전월대비 3.0% 감소했다. 매체별 점유율에서는 네이버가 3.4% 증가한 반면, 오버추어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오버추어-네이버 공동집행이 11.8%로 2위를 기록했고, 다음-네이버 공동집행은 6.8%로 5위를 기록했다. 최근 6개월간 네이버의 점유율은 5.0% 높아지며 광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했고, 네이트의 점유율은 소폭 감소했다. 오버추어는 다른 매체에 비해 월별 변동이 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식정보시장 :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정체, LTE와 IPTV는 급상승

- ◎ 5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보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3대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LTE가 6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추세는 정체된 상태이다. 반면 IPTV는 5월 기준 556만 명으로 올 초 5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가입자수를 늘려가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가입자 역시 각각 전월대비 3.6%, 5.2%의 무난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5월 기준 2천750만 명을 넘어 이미 보편화되었다. 태블릿PC 가입자는 2011년 기준 52만 명을 돌파한 이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마트폰 가입자 4명 중 1명이 태블릿도 구매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것처럼, 스마트기기 이용의 확장과 더불어 태블릿PC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5월 웹사이트별 순위는 네이버(naver)가 순방문자수 3천 1백만 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상위 3개 서비스(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용율은 검색의 95.95%, 커뮤니티의 96.9%, 이메일의 85.1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웹사이트 순위는 <뉴스·미디어>와 <쇼핑·경매> 사이트들이 40% 이상의 도달률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방문자수를 기록했다. <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가 전체 인터넷이용자 중 27.2%의 도달률을 기록하여 다른 서비스들을 앞섰고, <게임>은 넥슨에 이어 위게임즈가 373만 명의 접속자수로 2위를 기록했다.
- ◎ 5월은 월간 일수 증가와 휴일이 많아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이 전월 대비 3.6% 증가(13~18세 학생층의 평균 이용시간이 12.8%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평균 방문 사이트 개수도 4.0% 증가했다. 특히 25~29세가 평균 2,567분(하루 평균 1시간 40분)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6월 7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에는 65만 여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7.6%의 앱이 무료이며, 유료인 경우도 3달러 미만이 3달러 이상인 경우보다 3배 이상 많다. 애플리케이션의 평균 가격은 1.87달러였고, 5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139개의 게임과 805개의 비게임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고 있다. 카테고리별로는 게임(17.5%), 교육(9.9%), 엔터테인먼트(9.8%), 도서(9.8%), 라이프스타일(8.4%), 유틸리티(6.0%), 여행 관련 앱(5.0%)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01

출판

5월 도서시장은 전반적으로 인생의 철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도서들이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교보문고 월간 순위에서는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4월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정목 스님의 에세이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도 출간 직후 빠른 상승세로 4위를 기록하는 등 종교 에세이가 강세를 보였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과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가 각각 3위, 5위를 기록했고,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은 출간 직후 18위에 올랐다.

문학에서는 박범신의 '은교'가 영화의 개봉(4.25)에 힘입어 2위를 기록했고, 해외문학 전문출판사인 열린책들에서 출간한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가 7위에 올랐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다양한 매체 노출과 이윤기 작가의 번역, 세련된 책 디자인으로 입소문을 타며 순위가 급상승했다. 알랭 드 보통과 정이현의 공동기획소설 '사랑의 기초'는 두 권 모두 출간 직후 관심을 모으며 각각 12위, 15위에 올랐다.

▶▶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TOP 20 (5월)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5월	4월	3월				
1	1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스님	쌤앤파커스	시/에세이
2	3	46	은교	박범신	문학동네	소설
3	32	-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인문
4	18	-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스님	공감	시/에세이
5	4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0	자기계발
6	2	9	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할극	주진우	푸른숲	정치/사회
7	31	200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열린책들	소설
8	9	3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시/에세이
9	5	4	남자의 물건	김정운	21세기북스	자기계발
10	36	-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류시화	문학의숲	시/에세이
11	8	10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센추리원	자기계발
12	-	-	사랑의 기초: 한 남자	알랭 드 보통	틀	소설
13	6	127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코너 우드먼	갤리온	경제/경영
14	16	-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곤도 마리에	더난출판사	자기계발
15	-	-	사랑의 기초: 연인들	정이현	틀	소설
16	51	30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영사	인문
17	12	-	하루 15분 정리의 힘	윤선현	위즈덤하우스	자기계발
18	-	-	3차 산업혁명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정치/사회
19	-	-	십자군 이야기. 3	시오노 나나미	문학동네	역사/문화
20	-	-	한국의 슈퍼리치	신동일	리더스북	경제/경영



5월 교보문고 e북 순위에서는 박범신의 소설 '은교'가 1위를 차지했다. 정리컨설턴트 윤선현의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 2위에 올랐고,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가 5위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가 7위를 기록했다. 이들 책은 종이책 판매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는데, 최근 e북은 종이책 출간과 동시 또는 1~2주 간격을 두고 출간되어 동시에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10위권 내에 '누구나 한번쯤 화끈한 연애를 꿈꾼다', '절반의 연애', '대박! 검사마누라', '대마왕과 잠자는 공주 2', '악마와의 거래' 등 장르소설 5권이 순위에 올라, e북 시장에서 장르소설의 강세를 이어갔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주로 구매하는 e북은 판타지, 무협, 로맨스 등 장르소설이 57%를 차지한 반면, 태블릿PC에서는 장르소설이 22%, 자기계발서 16%, 소설 15%, 경제/경영서가 10%를 차지한다.

▶▶ 교보문고 e-Book 베스트셀러 TOP 10 (5월)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가격	분야
1	은교	박범신	문학동네	7,200원	소설
2	하루 15분 정리의 힘	윤선현	위즈덤하우스	9,660원	자기계발
3	누구나 한번쯤 화끈한 연애를 꿈꾼다	이예선	디키스토리	3,150원	장르소설
4	절반의 연애	신해영	디키스토리	3,150원	장르소설
5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코너 우드먼	갤리온	9,800원	경제경영
6	대박! 검사마누라	여해름	가하	3,500원	장르소설
7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센추리원	8,000원	자기계발
8	절대지식 세계고전	사사키 다케시외 83명	이다미디어	9,000원	인문
9	대마왕과 잠자는 공주. 2	이연추	라떼북	2,000원	장르소설
10	악마와의 거래	서미선	가하	3,150원	장르소설

▶▶ 교도서분야 유료 앱(APP) TOP 10 (5월)

순위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1	Korea Comics 1300+	who?시리즈-세계인물학습만화 50권전집	홀리바이블 (한영 오디오, 사전 성경, 새찬송가, NIV)
2	갓피플성경	디렉스성경찬송	DioDict 3 ENG-KOR Dictionary
3	홀리바이블	만화과학SCIENCE:삼성출판사	Moon-Reader Pro
4	황제소녀경+	홀리바이블	Lifove 개역개정
5	로맨스소설클럽 -에피루스 로맨스 소설 앱서점	주기자: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에셀한영성경 -Essel Bible(NIV)
6	주기자: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마법천자문 HD	디오딕 3 한자 사전
7	Read Any	Korea Comics 1300+	Prime English-Korean Dict.
8	디렉스성경찬송	Marvel Comics	디렉스성경찬송
9	판타지무협클럽 - 에피루스 판타지무협소설 앱서점	Cloud Bread Storybook	DioDict 3 JPN-KOR Dictionary
10	만화 삼국지 전 40권	DC Comics	에셀성경-Essel Bible

* 아이폰/아이패드는 매출 기준, 안드로이드는 판매량 기준
* 출처: App Annie (www.appannie.com), 5월 31일 기준





5월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내에 든 책들을 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e북 시장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났다. 종이책 순위에서는 지난 3개월간 자기계발, 소설, 시/에세이가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e북 시장에서는 장르소설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e북 시장에서는 그 뒤를 자기계발(17권)과 소설(7권)이 차지하여 상위 3개 분야의 책들이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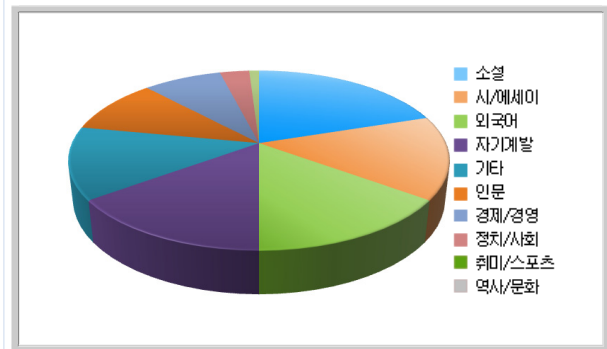
반면 시/에세이, 경제경영, 인문, 외국어 등 종이책 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들은 10권 안팎에 불과했다. 이 같은 특성은 장르소설의 가격대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장르소설들은 대부분 5천원 미만이고, 2천원~3천원대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e북 판매는 초기 시장으로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로 인한 변동과마켓별 특성이 큰 편이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e북의 평균가격은 스마트폰에서 3,819원, 태블릿PC에서 4,520원으로 조사되었다.

▶▶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분야별 분포 (2012. 3. ~ 2012. 5.)

순위	분야	2012.3	2012.4	2012.5
1	자기계발	15	19	20
2	소설	21	20	20
3	시/에세이	15	16	19
4	경제/경영	8	13	10
5	인문	10	11	7
6	외국어	15	7	5
7	정치/사회	3	3	4
8	가정/생활	3	3	4
9	만화	4	2	4
10	어린이	2	2	3
-	기타	4	4	4

* 기타(2012.5): 역사/문화(2), 종교(1), 과학(1)

●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 100위 (2012. 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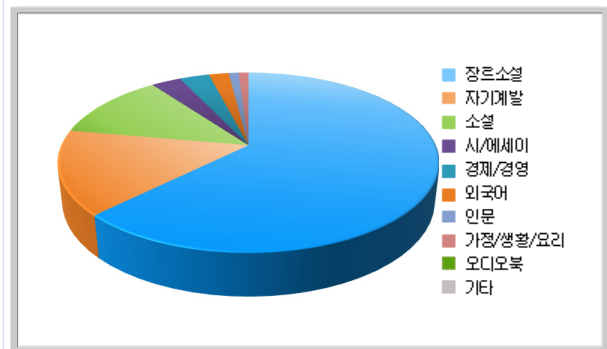
* 출처: 교보문고, 콘텐츠진흥원 재구성

▶▶ 교보문고 e-book 베스트셀러 100위 분야별 분포 (2012. 3. ~ 2012. 5.)

순위	분야	2012.3	2012.4	2012.5
1	장르소설	62	67	65
2	자기계발	15	16	17
3	소설	12	9	7
4	경제경영	3	3	5
5	인문	1	2	3
-	기타	7	3	3

* 기타(2012.5): 예술/대중문화(1), 사회/정치/법(1), 종교(1)

● 교보문고 e-book 베스트100위 (2012. 5. 기준)



* 출처: 교보문고, 콘텐츠진흥원 재구성



5월 서비스업체별 e북 판매 순위에서는 마켓별로 순위권에 드는 책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T스토어에서는 10위 내 모든 책이 장르소설이었고, 리디북스와 올레e북 순위에서는 자기계발, 경제/경영, 인문/사회/역사,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분포되었다. 이는 마켓별로 주력해서 노출시키는 책이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마켓의 경우, 메인페이지 노출 및 배치, 할인이벤트에 따른 판매량의 변동이 큰 편이기 때문에 마켓별 특성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서비스업체별 e-Book 판매 TOP 10 (5월)

1. 리디북스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로버트 기요사키	흐름출판	자기계발	12,000
2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자기계발	9,800
3	3차 산업혁명	제레미 리프킨	민음사	인문/사회/역사	14,000
4	하루 15분 정리의 힘	윤선현	위즈덤하우스	자기계발	9,660
5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	민음사	CEO/리더십	18,000
6	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할극	주진우	푸른숲	인문/사회/역사	9,500
7	은교	박범신	문학동네	소설	7,200
8	헝거게임 세트 (전 3권)	수잔 콜린스	북폴리오	소설	21,000
9	스노우맨	요 네스뵈	비채	소설	9,800
10	결혼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자 2	서홍익	스카이북	소설	3,600

* 출처: 리디북스(www.ridibooks.com), 2012. 6. 11 기준

2. T스토어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포스터 속의 남자	쇼콜라	가하	장르소설	3,500
2	궁녀(전2권/완결)	이예경	로맨스스토리	장르소설	6,300
3	메디컬센터(전2권/완결)	이화현	로맨스스토리	장르소설	6,300
4	남편의 유혹	백선로드	로맨스스토리	장르소설	3,500
5	바보	알리시아	가하	장르소설	3,500
6	허밍	김혜연	피우리	장르소설	3,500
7	프로피티아 시티(전9권/완결)	케이츠	영상노트	장르소설	25,920
8	사랑은 아프다	최현자	로맨스스토리	장르소설	5,400
9	무당신선(전12권/완결)	북미혼	영상노트	장르소설	34,500
10	꽃무릇(전2권/완결)	이새인	로맨스스토리	장르소설	6,300

* 출처: T스토어(www.tstore.co.kr), 2012. 6. 11. 주간 누적 기준

3. 올레e북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은교	박범신	문학동네	소설	4,000
2	FBI 행동의 심리학	조 내버로, 미빈 칼린스	(주)웅진씽크빅	자기계발	6,300
3	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할극	주진우	푸른숲	정치/사회	9,500
4	스티브 잡스	워터 아이작슨	민음사	자기계발	14,400
5	하루 15분 정리의 힘	윤선현	위즈덤하우스	자기계발	9,660
6	방향해도 괜찮아	법륜	지식채널	문학	7,700
7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박경철	(주)웅진씽크빅	자기계발	8,000
8	문제는 경제다	선대인	웅진지식하우스	경제/경영	7,500
9	셜록홈즈 BEST 20	아서 코난 도일	태동출판사	장르소설	1,000
10	한국의 슈퍼리치	신동일	리더스북	경제/경영	8,880

* 출처: 올레e북(www.ebook.olleh.com), 2012. 6. 11. 기준 최근 1개월





5월 신간도서 발행 종수(출판유통진흥원 집계)는 2009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편이긴 하지만, 3월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발행 종수가 12.4% 줄어들며 종이책 시장의 위축세를 반영했다. ‘도서유통 판매 채널별 현황 실태조사’(한국출판인회)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세는 인터넷 서점들의 할인경쟁으로 구간 판매가 신간 판매를 압도하면서 출판사들의 신간 발간 의욕 저하로 이어져 출판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5월에 발행된 신간도서(종이책)는 문학, 아동, 사회과학, 만화, 기술과학 순으로 발행 종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신간도서 발행 현황

1. 신간도서(종이책) 발행 종수 (2009.1 ~ 2012.5)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1월	7,044	1월	6,566	1월	5,789	1월	5,639	△ 2.6%
2월	5,879	2월	5,361	2월	4,683	2월	4,696	0.3%
3월	5,827	3월	5,810	3월	5,217	3월	4,569	△ 12.4%
4월	4,779	4월	4,749	4월	4,004	4월	4,050	1.1%
5월	4,130	5월	4,804	5월	4,016	5월	3,999	△ 0.4%
6월	4,681	6월	4,971	6월	4,025	-	-	-
7월	4,838	7월	4,659	7월	4,059	-	-	-
8월	5,162	8월	4,764	8월	4,829	-	-	-
9월	5,139	9월	3,861	9월	3,917	-	-	-
10월	4,248	10월	4,050	10월	4,195	-	-	-
11월	4,872	11월	4,728	11월	4,688	-	-	-
12월	5,893	12월	5,572	12월	5,024	-	-	-
연간	62,492	연간	59,895	연간	54,446	-	-	-

* 출처: 출판유통진흥원 (주요 도매상 및 중소형서점 입고도서 발행일 기준)

2. 신간도서(종이책) 분야별 발행 종수 (2011.5 ~ 2012.5)

분야	2011.5	2011.6	2011.7	2011.8	2011.9	2011.10	2011.11	2011.12	2012.1	2012.2	2012.3	2012.4	2012.5
총류	50	42	53	67	71	58	48	55	65	70	57	35	30
철학	78	96	107	105	121	99	82	110	94	109	119	98	71
종교	179	187	142	170	164	172	135	166	162	173	162	126	78
사회과학	429	439	475	630	482	385	355	451	662	762	712	342	280
순수과학	48	46	39	45	68	41	29	42	51	79	93	21	19
기술과학	275	214	234	333	330	228	162	179	458	507	441	166	144
예술	122	119	104	122	136	108	98	128	109	156	130	110	72
언어	105	108	111	126	109	92	58	108	152	139	91	75	37
문학	763	765	784	712	719	738	712	809	685	668	683	608	431
역사	100	87	117	96	77	95	84	110	99	103	82	73	48
학습참고	273	199	178	121	103	186	81	166	296	164	107	40	27
아동	806	942	734	771	707	742	467	653	601	486	592	583	335
만화	563	523	561	649	586	623	457	623	563	519	480	429	176
총계	3,791	3,767	3,639	3,947	3,673	3,567	2,768	3,600	3,997	3,935	3,749	2,706	1,748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납본 기준 수치이므로 최근 발간 서적은 향후 집계량이 늘어날 수 있음)



5월 전자출판물 인증건수(한국전자출판협회 집계)는 시기별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인증건수가 13만 건에 달한 것에 비해, 4월과 5월에는 2천 건 내외에 그쳤다. 이는 전자출판물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학술논문의 대량 등록(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및 신규 서비스 런칭 시 발생하는 인증건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월 정기간행물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집계)은 13,687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월간지가 4,305종, 인터넷 신문이 3,521종, 주간지가 2,833종으로 집계되었다. 정기간행물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체 등록 건수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전자출판물 / 정기간행물 현황

1. 전자출판물 분야별 인증건수 (2011.5 ~ 2012.5)

분야	2011.5	2011.6	2011.7	2011.8	2011.9	2011.10	2011.11	2011.12	2012.1	2012.2	2012.3	2012.4	2012.5
총류	277	558	540	3	284	259	292	573	1,853	317	1,643	303	324
철학	2	4	3	18	3	0	18	3	977	7	1,383	3	15
종교	0	2	3	10	3	1	11	0	1,983	94	2,083	15	26
사회과학	7	32	7	163	5	0	57	19	12,612	21	12,704	13	68
순수과학	1	0	11	1	0	0	18	5	1,867	0	1,948	0	7
기술과학	2	305	18	119	10	119	86	5	25,035	5	20,795	1	402
예술	419	1,184	115	49	78	401	1,210	947	10,649	19,265	3,806	47	23
언어	1	269	219	325	143	1	20	22	1,758	226	2,630	43	72
문학	13	1,784	166	19	7	0	71	7,589	926	1,135	2,606	1475	1259
역사	1	16	13	3	22	0	48	7	1,702	1	2,501	1	11
총계	723	4,154	1,095	710	555	781	1,831	9,170	59,362	21,071	52,099	1,901	2,207

* 출처: 한국전자출판협회

2.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2007 ~ 2012.5)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3	2012.4	2012.5
일간신문	281	275	237	673	615	611	608	612
통신	3	3	4	5	12	12	16	16
기타일간	360	331	419	4	73	79	81	82
주간	2,887	2,788	2,653	2,868	2,891	2784	2814	2833
월간	3,257	3,243	5,257	3,936	4,209	4197	4253	4305
격월간	453	435	670	542	584	598	595	603
계간	986	973	1,514	1,161	1,266	1278	1290	1297
연2회	325	322	509	408	425	412	413	418
인터넷 신문	927	1,282	1,698	2,484	3,193	3,385	3,450	3,521
합계	9,479	9,652	12,961	12,081	13,268	13,356	13,520	13,68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5. 31. 기준)





02

만화

5월 한국만화 베스트셀러 순위는 심승현 작가의 '파페포포 시리즈'가 1위를 차지했다. 파페포포 시리즈는 웹툰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책으로 처음 출간된 2002년 이후, 신간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연재되며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다이어터'가 2위, 4월에 제57권이 발간되며 장기간 연재되고 있는 '열혈강호'가 3위를 차지했다.

외국만화 순위에서는 '심야식당'과 '원피스'가 여전한 인기를 확인했고, 올 2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6권까지 나온 '세인트☆영맨' 시리즈가 3위를 차지했다. '세인트☆영맨'은 2011년 일본만화 베스트셀러 100위 안에 들었던 작품으로 한국에서도 단기간에 인기시리즈로 자리잡고 있다.

출판만화 베스트셀러 TOP 10

1. 한국만화 베스트셀러 (5월)

순위		도서명	작가	출판사	장르	출간연월
5월	4월					
1	4	파페포포 시리즈	심승현	홍익출판사	드라마	2012. 4
2	1	다이어터	네온비 글, 캐러멜 그림	중앙북스	인터넷&카툰/영상만화	2011. 8
3	3	열혈강호	전국진 글, 양재현 그림	대원씨아이	무협	2012. 4
4	-	창백한 말	추혜연	중앙위즈	인터넷 연재만화	2012. 5
5	-	닥터 프로스트	이종범	애니북스	탐정/추리	2012. 5
6	2	마음의 소리	조석	중앙books	인터넷 연재만화	2007. 6
7	5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허영만	월드김영사	역사	2012. 3
8	-	온밀하게 위대하게	최중훈	발해	인터넷 연재만화	2011. 4
9	7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김상복 글, 장차연실 그림	21세기북스	인터넷 연재만화	2012. 3
10	9	고우영 삼국지 세트	고우영	애니북스	대하/서사만화	2007. 2

* 집계방식: 주요 6개 서점의 순위에 각각 가중치 적용 후 합하여 순위산정 (교보문고:8, YES4:6, 인터파크:3, 리브로:2, 알라딘:3, 반디앤루니스: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2. 외국만화 베스트셀러 (5월)

순위		도서명	작가	출판사	장르	출간연월
5월	4월					
1	8	심야식당	아베 야로	미우(대원)	드라마	2012. 4
2	1	원피스	오다 에이이치로	대원	판타지	2012. 3
3	2	세인트☆영맨	나카무라 히카루	시리얼	코믹/풍자	2012. 4
4	-	너에게 닿기를	시이나 카루호	대원씨아이	코믹	2012. 5
5	-	시빌 워 [미]	마크 밀러	시공사	그래픽노블	2009. 11
6	-	바쿠만	타케시 오바타	대원씨아이	직업만화	2012. 5
7	3	요츠바랑	아즈마 키요히코	대원씨아이	드라마	2012. 1
8	-	액셀 월드	카와하라 레키 저/HIMA 그림	서울문화사	라이트노벨	2012. 4
9	-	어벤져스 오리진 세트 [미]	-	시공사	그래픽 노블	2012. 4
10	-	블리치	Tite Kubo	서울문화사	SF./판타지	2012. 3

* 집계방식: 주요 6개 서점의 순위에 각각 가중치 적용 후 합하여 순위산정 (교보문고:8, YES4:6, 인터파크:3, 리브로:2, 알라딘:3, 반디앤루니스: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5월 만화소설(라이트노벨) 베스트셀러 순위는 일본 작가들의 작품이 상위권을 점유한 가운데, 한국 작가의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나와 호랑이님'이 2위에 올랐다. '나와 호랑이님'은 2010년 12월에 1권이 발간된 이래 6권이 나왔고, 최근에는 드라마CD 한정판 발매 등으로 마케팅을 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만화소설은 주로 중고생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독자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판매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만화소설 베스트셀러 (5월)

순위		도서명	작가	출판사	장르	출간연월
5월	4월					
1	1	아빠 말 좀 들어라	마츠 토모히로 저 나카지마 유카 그림	학산문화사	라이트노벨	2012. 4
2	-	나와 호랑이님	카넬 저,영인 그림	시드노벨	라이트노벨	2012. 5
3	7	비탄의 아리아	아카마츠 쉼가쿠 저 코부이치 그림	서울문화사	라이트노벨	2012. 4
4	8	마탄의 왕과 바나디스	카와구치 츠카사 저 요시☆오 그림	학산문화사	라이트노벨	2012. 4
5	-	마오유우 마왕 용사	토노 마마레 저 toi8 그림	대원씨아이 (대원키즈)	라이트노벨	2012. 4
6	-	내 여자친구와 소꿉친구가 완전 수라장	유우지 유우지 저 루로오 그림	영상노트	라이트노벨	2012. 4
7	2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스즈키 다이스케 저 우루우 겐카 그림	학산문화사	라이트노벨	2012. 4
8	-	정령사의 검무 블레이드 댄스	시미즈 유우 저 사쿠라 한편 그림	서울문화사	라이트노벨	2012. 4
9	3	슈타인즈 게이트	5pb inc, 니트로 플러스	대원씨아이	라이트노벨	2012. 5
10	-	로큐브	아오야마 사구	학산문화사	라이트노벨	2012. 5

* 집계방식: 주요 6개 서점의 순위에 각각 가중치 적용 후 합하여 순위산정 (교보문고:8, YES4:6, 인터파크:3, 리브로:2, 알라딘:3, 반디앤루니스: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만화 출간 종수는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완화되어 최근 6년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에는 1~5월 출간된 만화가 3,434종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12년 1~5월에는 1,493종의 만화가 출간되어 큰 폭의 하락세를 반영했다.

올해 5월까지 출간된 만화를 장르별로 구분하면, 성인/성애 소설이 350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드라마·순정·판타지가 200종 이상 출간되며 그 뒤를 이었다. 에세이툰, 코믹, SF, 스포츠, 학원, 액션 등의 장르는 100종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종수가 출간되었다.

▶ 만화 출간 현황

1. 만화 출간종수 추이 (1~5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02	689	622	696	729	698	3,434
2003	612	569	566	566	578	2,891
2004	522	531	520	462	466	2,501
2005	366	396	428	399	385	1,974
2006	393	382	351	329	351	1,806
2007	330	308	322	300	295	1,555
2008	308	294	330	319	334	1,585
2009	263	308	345	296	300	1,512
2010	305	282	317	337	345	1,586
2011	317	272	318	326	291	1,524
2012	285	316	301	311	280	1,493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2. 장르별 만화 출간 현황 (1~5월)

구분	2009 (1~5월)	2010 (1~5월)	2011 (1~5월)	2012 (1~5월)	합계
성인/성애	361	301	285	350	1,297
드라마	261	323	273	263	1,120
순정	342	306	255	206	1,109
판타지	152	172	225	201	750
에세이툰	46	40	66	73	225
코믹	60	68	60	92	280
SF	34	55	46	58	193
스포츠	45	51	51	35	182
학원	44	42	48	49	183
액션	44	40	38	28	150
기타	123	188	177	138	626
합계	1,512	1,586	1,524	1,493	-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국적별 만화 출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5월 출간된 1,493종의 만화 중 한국작가의 작품이 486종으로 32.6%를, 일본작가의 작품이 980종으로 65.6%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9년 한국작가 출간종수인 531종에 비해 45종 하락한 수치이며, 한국작가의 출간 비중에서도 2.5%p 하락한 것이다.

출판사별 만화 출간종수에서는 3대 만화출판사인 대원씨아이가 374종, (주)학산문화사가 367종, 서울문화사가 139종을 출간하며 전체의 69.8%를 차지해 100종 미만을 기록한 다른 출판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종수의 만화를 출간했다. 하지만 출간종수의 비중은 2009년 73.9%, 2010년 75.2%, 2011년 75.2%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책의 평균정가는 2009년 5,051원이었으나, 가파르게 상승하여 올해는 6,581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동기 대비 30.3% 인상된 수치이지만, 6,796원을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것이다.

3. 국적별 만화 출간 현황 (1~5월)

구분	2009 (1~5월)		2010 (1~5월)		2011 (1~5월)		2012 (1~5월)		합계
한국작가	531	35.1%	510	32.2%	475	31.2%	486	32.6%	2,002
일본작가	967	64.0%	1,047	66.0%	1,007	66.1%	980	65.6%	4,001
기타	14	0.9%	29	1.8%	42	2.8%	27	1.8%	112
합계	1,512	100.0%	1,586	100.0%	1,524	100.0%	1,493	100.0%	-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4. 출판사별 만화 출간종수 (1~5월)

구분	2009 (1~5월)	2010 (1~5월)	2011 (1~5월)	2012 (1~5월)	합계
대원씨아이(주)	369	420	381	374	1,544
(주)학산문화사	345	367	346	367	1,425
(주)서울문화사	196	187	202	139	724
현대지능개발사	88	59	82	83	312
도서출판 우신	50	50	47	68	215
(주)삼양출판사	85	112	62	63	322
도서출판 자유구역	42	28	39	48	157
도서출판 우보	19	20	10	30	79
(주)시공사	2	8	18	18	46
에이케이코믹스	10	0	9	16	35
(주)조은세상	18	11	7	16	52
참글미디어	0	26	18	18	62
애니북스	6	5	9	11	31
(주)북이십일 아울북	1	2	5	10	18

* 1~5월 10종 이상 출간 출판사 대상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5. 만화책 평균정가 (1~5월)

구분	2009 (1~5월)	2010 (1~5월)	2011 (1~5월)	2012 (1~5월)
평균정가 (원)	5,051	5,775	6,796	6,58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일일만화는 꾸준한 출간량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5월 일일만화의 출간종수는 1,853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건 많은 종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출간종수가 급감했던 2010년(1,386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 일일만화 출간 현황 (1~5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02	347	344	391	398	357	1,837
2003	447	353	443	392	404	2,039
2004	439	428	435	394	409	2,105
2005	431	361	478	454	463	2,187
2006	426	385	403	392	422	2,028
2007	410	350	453	398	455	2,066
2008	354	334	429	405	375	1,897
2009	423	386	399	384	366	1,958
2010	299	296	350	283	158	1,386
2011	352	348	443	335	258	1,736
2012	271	388	415	392	387	1,853
합계	4,199	3,973	4,639	4,227	4,054	-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2012년 만화소설 및 장르소설은 매월 300~400여종이 출간되며 5월까지 1,820종이 출간되었다. 이는 전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완만한 상승추세를 꺾는 정도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다른 출판 분야와는 달리 만화소설 및 장르소설의 출간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르별 출간 현황에서는 판타지의 출간종수가 1,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협, 로맨스가 각각 360종, 228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판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판타지, 무협소설이 지속적인 출간종수를 유지하는 것은 주소비층인 10~30대 독자들이 영화와 게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판타지와 무협을 빈번하게 접해 온 세대이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들이 꾸준히 재생산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만화소설 / 장르소설 현황

1. 만화소설 / 장르소설 출간종수 (1~5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02	70	62	71	54	76	333
2003	109	132	122	125	121	609
2004	304	309	318	275	280	1,486
2005	338	302	325	317	285	1,567
2006	294	312	316	331	313	1,566
2007	324	316	355	350	371	1,716
2008	363	312	354	343	334	1,706
2009	373	352	373	380	386	1,864
2010	389	331	398	387	391	1,896
2011	391	338	412	412	371	1,924
2012	333	355	421	348	363	1,820
합계	3,288	3,121	3,465	3,322	3,291	-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2. 만화소설 / 장르소설 장르별 출간 현황 (1~5월)

구분	2009 (1~5월)	2010 (1~5월)	2011 (1~5월)	2012 (1~5월)	합계
판타지	993	1,096	1,170	1,191	4,450
무협	455	440	505	360	1,760
로맨스	312	268	197	228	1,005
일반	50	56	29	28	163
추리	3	6	11	8	28
N세대	13	14	5	2	34
공포	2	1	1	2	6
성인	30	2	0	0	32
역사	5	13	6	1	25
합계	1,863	1,896	1,924	1,820	-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2012년 1~5월 만화소설 및 장르소설의 국적별 출간종수는 한국이 1,506종으로 82.7%를, 일본이 266종으로 14.6%를 점유했다. 이는 일본작가의 비율이 66%에 달했던 만화에 비해 한국작가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긴 하지만, 연간 추이로 보았을 때 87%를 기록했던 2009년에 비하면 4.3%p 감소한 수치이다.

출판사별 출간 현황에서는 지난 5개월간 100종 이상을 출간한 출판사가 8개나 되고 나머지 출판사들도 대부분 수십 종의 책을 출간하여, 3개 출판사(대원씨아이, 학산문화사, 서울문화사)의 과점구조인 만화시장과 비교하여 차이를 드러냈다.

3. 만화소설 / 장르소설 국적별 출간 현황 (1~5월)

구분	2009 (1~5월)		2010 (1~5월)		2011 (1~5월)		2012 (1~5월)		합계
한국작가	1,621	87.0%	1,605	84.7%	1,614	83.9%	1,506	82.7%	6,346
일본작가	187	10.0%	223	11.8%	258	13.4%	266	14.6%	934
기타 국가	56	3.0%	68	3.6%	52	2.7%	48	2.6%	224
총합계	1,864	100.0%	1,896	100.0%	1,924	100.0%	1,820	100.0%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4. 만화소설 / 장르소설 출판사별 출간 현황 (1~5월)

구분	2009 (1~5월)	2010 (1~5월)	2011 (1~5월)	2012 (1~5월)	합계
디앤씨미디어	206	204	225	238	873
(주)로크미디어	171	184	205	196	756
도서출판 영상노트	120	117	171	192	600
도서출판 뽀미디어	119	135	232	180	666
(주)루트미디어	0	4	74	140	218
(주)마루·마야출판사	153	158	135	133	579
도서출판 청어람	158	132	108	127	525
어울림 출판사	34	87	126	100	347
(주)삼양출판사	70	82	76	64	292
대원씨아이(주)	88	103	86	63	340
(주)서울문화사	51	47	57	60	215
(주)신영미디어	72	65	62	66	265
(주)조은세상	51	34	33	35	153
(주)학산문화사	51	56	62	41	210
도서출판 동아	110	88	57	39	294
(주)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1	6	2	17	26
도서출판 우신	7	10	9	11	37

* 1~5월 10종 이상 출간 출판사 대상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KOCCA 재구성



〈네이버 만화〉 인기순위에서는 2011년 5월 5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패션왕’이 4월에 이어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패션왕’의 영향이 크다. 2008년부터 연재를 이어오며 누적 조회수 6억 회를 기록한 ‘노블레스’는 2위를 차지했다. 〈다음 만화속 세상〉에서는 영화 ‘이끼’의 원작자 윤태호 작가가 연재 중인 ‘미생’이 1위를 차지했고, 최근 만화단행본이 출간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아터’가 3위를 차지했다.

웹툰 서비스 이용통계에 따르면, 〈네이버 만화〉는 5월 한 달간 약 710만 명의 순방문자수와 월평균 92.19분의 체류시간을, 〈다음 만화속 세상〉은 약 299만 명의 순방문자수와 57.12분간의 월평균체류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두 개의 서비스 모두 약간 하락한 수치이지만, 해당 통계는 PC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합쳤을 때에는 전체적인 이용률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웹툰 서비스별 인기순위

1. 네이버 만화 TOP 10

순위	작품	작가명	연재기간	별점
1	패션왕	기안84	2011.05.05. ~ 현재	7.8
2	노블레스	손재호, 이광수	2007.12.30. ~ 현재	9.8
3	마음의 소리	조석	2006.09.08. ~ 현재	9.6
4	갯 오브 하이스쿨	박용제	2011.04.08. ~ 현재	9.7
5	신의 탑	SIU	2010.06.30. ~ 현재	9.9
6	역전! 야매요리	정다정	2011.12.05. ~ 현재	9.9
7	고삼이 집나갔다	미티	2011.11.06. ~ 현재	9.9
8	격투기특성화 사립고교 극지교	허일	2011.10.15. ~ 현재	9.8
9	신과 함께	주호민	2010.01.08. ~ 현재	9.9
10	농지마 정신줄	스튜디오 농정	2009.08.27. ~ 현재	9.9

* 출처: 네이버 만화 (6월 5일 조회수 기준)

2. 다음 만화속 세상 TOP 7

순위	작품	작가명	연재기간	별점
1	미생	윤태호	2012.01.20. ~ 현재	9.8
2	PEAK	홍성수, 임강혁	2011.04.20. ~ 현재	9.7
3	다이아터	네온비, 캐러멜	2011.02.23. ~ 현재	9.7
4	창백한 말	추혜연	2011.09.15. ~ 현재	9.7
5	은밀하게 위대하게	Hun	2010.06.30. ~ 2011.05.04	9.7
6	흰등이	윤필	2010.11.13. ~ 현재	9.7
7	블랙 베히모스	케이지콘	2011.10.05. ~ 현재	9.7

* 출처: 다음 만화속 세상 (6.5 별점 기준)

▶ 웹툰 서비스 이용통계 (5월)

서비스명	순방문자 ¹⁾	도달률(% ²⁾	월평균체류시간(분) ³⁾	월평균재방문일수(일) ⁴⁾	평균페이지뷰(월) ⁵⁾
네이버 만화	7,108,458	22.10	92.19	5.18	127.62
다음 만화속 세상	2,994,975	9.31	57.12	3.94	59.37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님스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 1) 순방문자: 해당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적어도 1번 이상 방문한 이용자
- 2) 도달률: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 대비 순방문자수의 비율
- 3) 평균체류시간: 측정기간 중 순방문자 1인당 발생시킨 체류시간의 평균을 의미
- 4) 평균재방문일수: 측정기간 중 해당사이트에 방문한 순방문자 1인당 평균 재방문한 일의 수
- 5) 평균페이지뷰: 측정기간 중 해당사이트에 방문한 순방문자 1인당 조회한 평균 페이지 조회수





03

음악

5월 디지털 음악의 종합차트에서는 소녀시대(태티서)의 미니앨범 수록곡 'Twinkle'이 1위를 차지했다. 한편 5월에 발매된 아이유의 새 싱글 '스무살의 봄'에 수록된 '하루 끝'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했고, 동시에 '복숭아'가 5위를 차지하는 등 계속해서 인기를 이어 가고 있다. 그 외에 <슈퍼스타K 3>에서 1위를 했던 울랄라세션의 첫 번째 앨범의 수록곡 '아름다운 밤'이 4위를 차지했고, 4월의 종합음악차트 1위를 차지했던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은 13위를 기록했다.

▶▶ 디지털 음악 종합 TOP 20 (5월)

순위	변동	곡명	앨범명	아티스트	제작사	가온지수
1	△27	Twinkle	'Twinkle'Mini album	소녀시대-태티서	SM Entertainment	119,415,981
2	new	하루 끝	스무 살의 봄	아이유(IU)	로엔엔터테인먼트	119,319,645
3	new	목소리(Feat. 개리 of 리쌍)	목소리	백지영	더블유에스엔터테인먼트	113,599,391
4	new	아름다운 밤	ULALA SENSATION PART 1	울랄라세션	CJ E&M	89,122,602
5	△59	복숭아	스무 살의 봄	아이유(IU)	로엔엔터테인먼트	78,047,400
6	▽4	나혼자(Alone)	ALONE	씨스타(Sistar)	스타쉽엔터테인먼트	77,419,706
7	△50	너뿐이야(You're The One)	Spring 새로운 사랑에게 보내는 다섯곡의 노래	박진영	JYP Entertainment	74,372,598
8	new	I 돈 Care(Feat. 서수민PD)	용감한 녀석들	용감한 녀석들	워닝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72,341,717
9	new	나쁜놈(Feat. 소야)	나쁜놈	마이티마우스	레브 커뮤니케이션	71,841,802
10	new	Good Boy (Feat. 용준형 of 비스트)	GOOD BOY	백지영	더블유에스엔터테인먼트	67,923,036
11	△85	She's Gone	She's Gone	디셈버(December)	씨에스해피엔터테인먼트	61,480,771
12	new	HUSH	UNE ANNEE	에이핑크(Apink)	에이큐브 엔터테인먼트	57,907,830
13	▽12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1집	버스커 버스커	CJ E&M	56,152,971
14	new	추격자	INFINITIZE	인피니트(Infinite)	올림 엔터테인먼트	54,884,506
15	new	겸손은 힘들어	Unplugged	리쌍	정글엔터테인먼트	53,108,959
16	new	2HOT	BLOOM(EP)	G.NA	큐브엔터테인먼트	49,982,697
17	▽11	Volume Up	Volume Up	4minute(포미닛)	큐브엔터테인먼트	46,764,842
18	new	너에게 배운다(My Love)	Unplugged	리쌍	정글엔터테인먼트	46,308,795
19	new	그 애 참 싫다	스무 살의 봄	아이유(IU)	로엔엔터테인먼트	43,309,144
20	△3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Someone else) Duet with 가인	Spring 새로운 사랑에게 보내는 다섯곡의 노래	박진영	JYP Entertainment	42,484,046

* 순위 집계 : 스트리밍 + 다운로드 + BGM 판매량 + 모바일 판매량

* 출처: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서비스별 음원차트에서는 아이유와 소녀시대(태티서)의 신곡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운로드, BGM, 벨소리 음원에서 아이유의 '하루 끝'이 1위를, 스트리밍 음원에서는 태티서의 'Twinkle'이 1위에 올랐다. 그 외에 백지영의 '목소리'와 씨스타의 '나혼자'가 인기를 얻으며 상위권에 올랐고, 울랄라세션의 '아름다운 밤'과 마이티마우스의 '나쁜놈'이 순위권에 진입했다.

▶▶ 서비스별 음원 차트

1. 다운로드 음원 TOP 10 (5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new	하루 끝	아이유(IU)
2	new	목소리(Feat. 개리 of 리쌍)	백지영
3	△19	Twinkle	소녀시대-태티서
4	new	아름다운 밤	울랄라세션
5	△51	복숭아	아이유(IU)
6	new	나쁜놈(Feat. 소야)	마이티마우스
7	new	I don't Care (Feat. 서수민PD)	용감한녀석들
8	new	Good Boy(Feat. 용준형 of 비스트)	백지영
9	△42	너뿐이야(You're The One)	박진영
10	▽8	나혼자(Alone)	씨스타

2. 스트리밍 음원 TOP 10 (5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54	Twinkle	소녀시대-태티서
2	△1	나혼자(Alone)	씨스타
3	new	목소리(Feat. 개리 of 리쌍)	백지영
4	new	하루 끝	아이유(IU)
5	▽4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6	△85	너뿐이야(You're The One)	박진영
7	new	아름다운 밤	울랄라세션
8	hot	복숭아	아이유(IU)
9	△1	Volume Up	4minute
10	hot	She's Gone	디셈버

3. BGM 음원 TOP 10 (5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new	하루 끝	아이유(IU)
2	△25	복숭아	아이유(IU)
3	new	추격자	인피니트
4	△1	넌 내꺼 넌 내 남자(Feat. 티파니)	마키아또
5	△74	She's Gone	디셈버
6	new	목소리(Feat. 개리 of 리쌍)	백지영
7	new	그 애 참 싫다	아이유(IU)
8	new	나쁜놈(Feat. 소야)	마이티마우스
9	new	아름다운 밤	울랄라세션
10	▽9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4. 벨소리 음원 TOP 10 (5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new	하루 끝	아이유(IU)
2	△42	Twinkle	소녀시대-태티서
3	▽1	나혼자(Alone)	씨스타
4	▽1	잊었니	이승철
5	△6	한참 지나서	백지영
6	Hot	이 노랠 빌려서(Feat. 이로울 & 아이린)	디셈버
7	Hot	She's Gone	디셈버
8	▽7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9	new	목소리(Feat. 개리 of 리쌍)	백지영
10	▽5	FANTASIC BABY	빅뱅

* 출처: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5월 오프라인 앨범 차트에서는 태티서의 미니앨범 ‘Twinkle’과 JYJ의 XIA(준수)의 첫 솔로앨범 ‘시아-타란탈레그라’(XIA-TARANTALLEGRA)가 발매되자마자 각각 1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다. 4월에 10만장 이상 판매된 앨범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태티서와 XIA(준수)의 뒤를 이어 인피니트와 버스커버스커의 앨범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고,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아이유의 싱글은 약 3만 장 판매를 기록하며 5위를 기록했다. 음반유통의 경우, 로엔엔터테인먼트가 5월 기준 판매량 177,210장을 기록하는 등 상위 15위에 6개 앨범이 포함되었다. 또한 SM, YG, JYP, 미디어라인, 스타제국, 유니온켄, 뮤직팩토리로 구성된 KMP홀딩스도 3개 앨범이 상위에 포함되었다. 이 밖에 CJ E&M도 3개 앨범이 포함되었다.

▶▶ 오프라인 앨범 판매 TOP 15 (5월)

순위	변동	앨범명	아티스트	유통사	판매량	누적판매량
1	new	‘Twinkle’ Mini Album	소녀시대-태티서	KMP 홀딩스	139,388	139,388
2	new	Tarantallegra	XIA(준수)	에이앤지모즈	122,000	122,000
3	new	미니 3집 앨범 Infnitize	인피니트(Infinite)	로엔엔터테인먼트	88,284	88,284
4	▽1	버스커버스커 정규 1집	버스커버스커	CJ E&M	32,838	104,180
5	new	스무 살의 봄 (Single)	아이유(IU)	로엔엔터테인먼트	30,975	30,975
6	new	THE B1A4 I (IGNITION)	비원에이포(B1A4)	포니캐년코리아	28,053	28,053
7	new	미니앨범 Ulala Sensation	올랄라세션	CJ E&M	24,497	24,497
8	▽7	‘MAMA’ EXO-K The 1st Mini Album	EXO-K	KMP 홀딩스	23,429	84,762
9	new	베스트앨범 2PM Member's Selection	2PM	로엔엔터테인먼트	20,000	20,000
10	new	정규 1집 Une Annee	에이핑크(Apink)	CJ E&M	16,816	16,816
11	new	미니 2집 Solo	허영생	로엔엔터테인먼트	16,701	16,701
12	▽6	‘MAMA’ EXO-M The 1st Mini Album	EXO-K	KMP 홀딩스	15,747	47,769
13	▽9	Volume Up	4minute(포미닛)	Universal Music	11,964	54,024
14	Hot	‘Welcome to the BLOCK’ Repackage	블락비(Block B)	로엔엔터테인먼트	11,850	12,250
15	new	8집 Unplugged	리쌍	로엔엔터테인먼트	9,400	9,400

* 앨범 순위집계 : 제작사 출고단위 도매 수량
 * 출처: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최근 인디음악은 과거의 개성과 자유분방함, 독특한 소재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매체 노출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으로 아이돌 음악과 차별화하면서 온/오프라인 음악시장은 물론 드라마와 영화의 OST에도 등장하는 등 대중음악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위상을 확대하고 있다.

인디음반 판매 차트에서는 페퍼톤스의 새 앨범 'Beginner's Luck'이 4월부터 1위를 지키고 있다. KBS2에서 방영하는 'Top밴드 시즌 2'에 출연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던 데이브레이크의 3집 앨범 'SPACEenSUM'은 2위로 두 계단 상승했으며, 장미여관의 '너 그러다 장가 못간다'도 6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작년 'Top밴드 시즌 1' 출연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브로큰 발렌타인(Shade)과 게이트플라워즈(Times)도 10위권 안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또한 옥상달빛(김윤주·박세진)의 '서로'가 5위, '28초'가 10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 인디음반 판매 TOP 15 (5. 11. ~ 5. 25.)

순위	변동	아티스트	앨범명	제작사	유통사
1	-	페퍼톤스	Beginner's Luck	안테나뮤직	CJ E&M
2	△2	데이브레이크	SPACEenSUM	해피로봇레코드	해피로봇레코드
3	-	제이레빗	Looking Around	Friendz.net	미러볼뮤직
4	New	브로큰 발렌타인	Shade	(주)롤링컬처원	YDCT
5	▽3	옥상달빛	서로(EACH OTHER)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미러볼뮤직
6	△6	이한철	작은 방	튜브앰프뮤직	미러볼뮤직
7	New	게이트 플라워즈	Times	에코브리드	포니캐년코리아
8	△2	장미여관	너 그러다 장가 못간다	doob sound	미러볼뮤직
9	▽4	어반자카파	Beautiful Days	플렉서스뮤직	미러볼뮤직
10	▽2	옥상달빛	28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미러볼뮤직
11	△21	어반자카파	01	플렉서스뮤직	미러볼뮤직
12	▽6	김창완밴드	문홍 굴착기	이파리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13	▽4	하비누아주	하비누아主義(주의)	Team Kabeto	미러볼뮤직
14	△15	스탠딩 에그	LIKE	본엔터테인먼트	CJ E&M
15	▽7	소란	Natural	해피로봇레코드	해피로봇레코드

* 2012년 5월 11일 ~ 5월 25일 기준

* 출처: 인디.고 차트 50 (www.music.daum.net/musicbar)





5월 노래연습장 차트에서는 지난 3월 29일 발매된 버스커 버스커의 1집 앨범 수록곡 '벚꽃 엔딩'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4월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빅뱅의 'FANTASTIC BABY'는 지난달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4월 12일 발매된 씨스타의 미니앨범 <ALONE>의 타이틀곡 '나혼자(Alone)'는 62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임재범의 '너를 위해', 에일리의 'Heaven', 10cm의 '애상', 이은미의 '애인...있어요',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과 같은 곡들도 애창곡으로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 노래연습장 TOP 15 (5월)

순위	변동	곡명	앨범명	아티스트	발매일
1	-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2012.03.29
2	-	FANTASTIC BABY	ALIVE	빅뱅	2012.02.29
3	△62	나혼자(Alone)	ALONE	씨스타(Sistar)	2012.04.12
4	-	너를 위해	Story Of Two Years	임재범	2000.05.16
5	▽2	Heaven	Heaven	에일리(Ailee)	2012.02.09
6	▽1	애상	윤일상 작곡가 21주년 기념 앨범 I'm 21	10cm	2012.01.05
7	△2	애인... 있어요	Ma Non Tanto	이은미	2005.10.24
8	△3	곰인형(Feat.해금)	LoveFiction	린(Lyn)	2012.03.16
9	New	Twinkle	Twinkle	소녀시대-태티서	2012.04.30
10	△47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LACRIMOSO	허각	2012.04.03
11	△27	여수 밤바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2012.03.29
12	△2	체념	Like The Bible	빅마마(Big Mama)	2003.02.06
13	△6	그대 한 사람	해를 품은 달 OST Part 6	김수현	2012.03.13
14	▽6	너랑 나	Last Fantasy	아이유(IU)	2011.11.29
15	▽3	천년의 사랑	천년지애	박완규	1999.09.08

* 출처: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04

공연

5월 공연시장 종합 순위에서는 뮤지컬 '위키드'의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판매 점유율 5%로 1위를 차지했다. '위키드'는 9년간의 브로드웨이 공연을 통해 흥행성이 검증된 뮤지컬로, 오리지널 무대의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덕분에 유료좌석 점유율 90%가 넘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0년 이래 장기간 관객들을 모으고 있는 대학로 연극 '옥탑방고양이'가 4.1%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고, 6월과 7월에 공연을 시작하는 뮤지컬 기대작 '모차르트!'와 '시카고'도 각각 3, 4위에 올랐다.

공연시장 종합 20위권 안에 든 작품 가운데 뮤지컬이 13편(창작 뮤지컬 5편), 연극이 7편을 기록한 반면, 콘서트·클래식·오페라·무용 등의 공연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는 콘서트·무용 등의 공연이 1회 또는 수회 공연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뮤지컬·연극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가능한 한 장기간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공연시장 종합 TOP 20 (5월)

순위	공연	공연장	판매점유율	장르	공연기간
1	뮤지컬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공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5.0%	뮤지컬	2012.05.29 ~ 2012.07.31
2	옥탑방고양이 - 대학로	대학로 틴틴홀	4.1%	연극	2010.04.06 ~ 2012.12.31
3	뮤지컬 <모차르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8%	뮤지컬	2012.07.10 ~ 2012.07.28
4	뮤지컬 <시카고>	디큐브아트센터	3.7%	뮤지컬	2012.06.10 ~ 2012.10.07
5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3.0%	뮤지컬	2012.03.28 ~ 2012.06.10
6	라이어 1탄	해피씨어터	2.0%	연극	2012.03.12 ~ 2012.06.30
7	2012 뮤지컬 <친정엄마>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1.9%	뮤지컬	2012.05.05 ~ 2012.06.24
8	뮤지컬 <광화문연가>	충무아트홀 대극장	1.8%	뮤지컬	2012.05.13 ~ 2012.06.03
9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1.8%	뮤지컬	2012.06.26 ~ 2012.10.01
10	뮤지컬 <블랙메리포핀스>	대학로 아트원시어터 1관	1.5%	뮤지컬	2012.05.08 ~ 2012.07.29
11	연극 <웨딩 스캔들>	학전블루 소극장	1.4%	연극	2012.03.01 ~ 2012.07.01
12	뮤지컬 <잭더리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1.3%	뮤지컬	2012.07.20 ~ 2012.08.25
13	<연극열전4> 2nd <M.Butterfly>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1.3%	연극	2012.04.24 ~ 2012.06.06
14	뮤지컬 <풍월주>	컬처스페이스 엔유	1.3%	뮤지컬	2012.05.04 ~ 2012.07.29
15	노이즈 오프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1.2%	연극	2012.05.04 ~ 2012.06.10.
16	뮤지컬 <닥터지바고>	샤롯데씨어터	1.1%	뮤지컬	2012.01.27 ~ 2012.06.03
17	연애지침서 연극 <옥탑방고양이> - 강남	강남 동양아트홀	1.1%	연극	2012.03.02 ~ 2012.12.31
18	뉴보잉보잉 1탄	대학로 두레홀 3관	1.1%	연극	2009.01.01 ~ 2012.07.01
19	팝뮤지컬 <New 톨리폴리>	유니버설아트센터	1.1%	뮤지컬	2012.05.02 ~ 2012.06.03
20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충무아트홀 대극장	1.1%	뮤지컬	2012.08.28 ~ 2012.10.07

* 출처: 인터파크 (순위 집계: 5.12 ~6.11 판매매수 기준)





뮤지컬 분야에서는 고전 ‘오즈의 마법사’에서 마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낸 뮤지컬 ‘위키드’의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1위를 차지했다. 라이선스 뮤지컬인 ‘모차르트!’, ‘시카고’,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각각 2, 3, 4위를, 창작 뮤지컬인 ‘친정엄마’와 ‘광화문연가’, ‘형제는 용감했다’, ‘블랙 메리 포핀스’가 그 뒤를 이었다.

연극 분야에서는 ‘옥탑방고양이(대학로)’가 지난달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동명의 원작소설을 각색한 창작극인 ‘옥탑방고양이’는 2010년 4월 첫 공연 이래 관객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전국 수 개 도시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현재도 오픈런으로 티켓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장기공연 중인 ‘라이어’가 연극 분야 티켓판매 2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의 코미디 연극을 번안한 ‘웨딩 스캔들’이 그 뒤를 이었다. 연극 순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코미디 장르가 통렬하며 인기를 끄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공연시장 분야별 TOP 10 (5월)

1. 뮤지컬

순위	공연명	공연장	구분	공연기간
1	뮤지컬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공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오리지널	2012.05.29 ~ 2012.07.31
2	뮤지컬 <모차르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라이선스	2012.07.10 ~ 2012.07.28
3	뮤지컬 <시카고>	디큐브아트센터	라이선스	2012.06.10 ~ 2012.10.07
4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라이선스	2012.03.28 ~ 2012.06.10
5	2012 뮤지컬 <친정엄마>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창작	2012.05.05 ~ 2012.06.24
6	뮤지컬 <광화문연가>	충무아트홀 대극장	창작	2012.05.13 ~ 2012.06.03
7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코엑스아트יום 현대아트홀	창작	2012.06.26 ~ 2012.10.01
8	뮤지컬 <블랙메리포핀스>	대학로 아트원시어터 1관	창작	2012.05.08 ~ 2012.07.29
9	뮤지컬 <잭더리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라이선스	2012.07.20 ~ 2012.08.25
10	뮤지컬 <풍월주>	컬처스페이스 엔유	창작	2012.05.04 ~ 2012.07.29

2. 연극

순위	공연명	공연장	공연기간
1	옥탑방고양이-대학로	대학로 틴틴홀	2010.04.06 ~ 2012.12.31
2	라이어 1탄	해피씨어터	2012.03.12 ~ 2012.06.30
3	웨딩 스캔들	학전블루 소극장	2012.03.01 ~ 2012.07.01
4	<연극열전4> 2nd <M.Butterfly>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2012.04.24 ~ 2012.06.06
5	노이즈 오프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2012.05.04 ~ 2012.06.10
6	연애지침서 연극 옥탑방고양이-강남	강남 동양아트홀	2012.03.02 ~ 2012.12.31
7	뉴보잉보잉 1탄	대학로 두레홀 3관	2009.01.01 ~ 2012.07.01
8	라이어 1탄 <강남코엑스>	코엑스아트홀	2012.01.06 ~ 2012.09.02
9	블링블링	대학로 키득키득아트홀 신관	2011.06.01 ~ 2012.08.31
10	리얼 버라이어티 코믹극 배꼽-강남역	강남역 강남아트홀 1관	2010.08.08 ~ 2012.07.01

* 출처: 인터파크 (순위 집계: 5.12 ~ 6.11 판매매수 기준)



콘서트 티켓판매 순위에서는 2012년 상반기 대중음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3인조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단독 콘서트 ‘청춘버스’의 앵콜 콘서트가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힙합듀오 리쌍의 공연 ‘리쌍극장 시즌2’가 2위, ‘SENSATION’이 3위에 올랐다. ‘SENSATION’은 2000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파티로, 올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클래식/오페라 분야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획한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인 오르가니스트 듀오 페레티 & 로방의 ‘Bon Voyage’ 콘서트가 1위를 차지했다. 어느덧 9회째를 맞이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2위에 올랐다.

3. 콘서트

순위	공연명	공연장	공연기간
1	버스커버스커 단독 콘서트 ‘청춘버스’ 앵콜	올림픽공원 内 올림픽홀	2012.06.22 ~ 2012.06.23
2	리쌍극장 시즌2	올림픽공원 内 올림픽홀	2012.07.14 ~ 2012.07.15
3	Heineken Presents ‘SENSATION’	일산킨텍스(KINTEX)	2012.07.21
4	지산밸리록페스티벌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2012.07.27 ~ 2012.07.29
5	브로콜리너마저 콘서트 {이른 열대야}	KT&G 상상아트홀(삼성역)	2012.07.04 ~ 2012.07.22
6	2012 김범수 콘서트 <갯올라잇 쇼케스트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2.05.25 ~ 2012.05.27
7	2012 이승철콘서트‘LOVE CROSS’ -서울공연	용산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2012.06.01 ~ 2012.06.02
8	2012 레인보우 아일랜드	남이섬	2012.06.09 ~ 2012.06.10
9	컬투쇼 홀.랑.적.SHOW!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2012.07.20 ~ 2012.08.19
10	2012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정서진)	2012.08.10 ~ 2012.08.12

4. 클래식/오페라

순위	공연명	공연장	공연기간
1	페레티 & 로방 파이프오르간 듀오 콘서트 “Bon Voyage”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2.06.23
2	제 9회 대관령국제음악제	알펜시아 콘서트홀	2012.07.26 ~ 2012.08.05
3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2012.06.02
4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 - 광주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2.07.08
5	살롱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 피가로의 결혼> - 대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2012.05.23 ~ 2012.05.27
6	캐니 지 콘서트 (Kenny G Concer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2.05.23
7	2012 디토 페스티벌 <차이콥스키 레볼루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2.06.30
7	차이콥스키 교향곡시리즈 1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2012.06.02
9	르 쿤세르 스피리튀엘 [Le Concert Spirituel] - 대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2012.06.03
10	프랑크푸르트방송교향악단 & 파보 예르비 & 힐러리 한 -성남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	2012.06.10

* 출처: 인터파크 (순위 집계: 5.12 ~6.11 판매매수 기준)





무용/전통공연 분야에서는 42회째를 맞이한 동아무용콩쿠르의 본선경연 '2012 동아무용페스티벌'이 1위에 올랐고, 10년 만에 내한공연을 하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까멜리아 레이디'가 2위를 차지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은 강수진이 프리마돈나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국내 양대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지방순회 공연(대전, 광주, 이천)이 높은 티켓판매율을 보이며 순위권에 들었고, 세계 3대 발레단으로 꼽히는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지젤' 내한공연이 10위에 오르는 등 무용 장르에서 발레의 인기가 높아지는 최근의 현상을 반영했다.

5. 무용/전통

순위	공연명	공연장	공연기간
1	2012 동아무용페스티벌	상명아트센터 대극장(계당홀)	2012.05.25 ~ 2012.05.26
2	강수진 &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까멜리아 레이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2.06.15 ~ 2012.06.17
3	국립발레단 [백조의호수] -대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2012.05.24 ~ 2012.05.25
4	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12.07.07 ~ 2012.07.14
5	국립발레단초청 백조의호수 광주공연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2.07.06 ~ 2012.07.07
6	명작명무전	LG아트센터	2012.06.09
7	발레 프렐조카주 내한공연 {And then, one thousand years of peace}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2012.05.30 ~ 2012.05.31
8	제 150회 KBS국악관현악단 어린이음악회	KBS홀	2012.06.09
9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 이천	이천아트홀 대공연장	2012.06.16
10	2012 ABT 지젤 in Korea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12.07.18 ~ 2012.07.22

* 출처: 인터파크 (순위 집계: 5.12 ~6.11 판매매수 기준)



05

게임

5월 게임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남녀 비율은 63 대 37으로 나타났다. 월간 이용일수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3.3일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800분 이상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는 13~18세의 순이용자수 및 도달률, 평균게임이용갯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용시간에서는 35~39세가 2,438분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순이용자수 및 도달률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이용시간에서는 무직/기타(2,624분)와 생산직(2,317분)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업주부의 이용량은 942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득별 행태에서는 300만원~500만원이 순이용자수, 도달률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게임이용갯수 및 평균재방문일수, 평균이용시간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 게임 이용자 통계

1. 성별 이용 행태 (5월)

분류	순이용자	도달률(%)	순이용자비중(%)	평균게임이용갯수	평균재방문일수(일)	평균이용시간(분)
남자	6,594,804	20.50	63.40	2.03	11.24	1,854.40
여자	3,807,707	11.84	36.60	1.81	7.91	1,037.78
합계	10,402,510	32.34	100.00	1.95	10.02	1,555.49

2. 연령별 이용 행태 (5월)

분류	순이용자	도달률(%)	순이용자비중(%)	평균게임이용갯수	평균재방문일수(일)	평균이용시간(분)
7~12세	1,158,178	3.60	11.13	1.96	8.66	765.20
13~18세	1,851,275	5.76	17.80	2.32	12.68	1,443.79
19~24세	1,303,083	4.05	12.53	1.94	8.14	1,403.43
25~29세	979,410	3.04	9.42	2.09	11.00	2,219.35
30~34세	999,328	3.11	9.61	1.80	9.91	2,110.79
35~39세	902,447	2.81	8.68	1.75	8.74	2,438.57
40~44세	1,113,481	3.46	10.70	1.81	8.68	1,488.16
45~49세	856,934	2.66	8.24	1.71	8.86	1,066.20
50세~	1,238,374	3.85	11.90	1.85	11.56	1,404.04

3. 직업별 이용 행태 (5월)

분류	순이용자	도달률(%)	순이용자비중(%)	평균게임이용갯수	평균재방문일수(일)	평균이용시간(분)
사무직	3,187,207	9.91	30.64	1.84	9.48	1,618.32
생산직	886,309	2.76	8.52	1.89	10.10	2,317.89
자영업	571,546	1.78	5.49	1.87	11.72	1,658.65
학생	4,361,804	13.56	41.93	2.08	10.37	1,358.75
전업주부	932,715	2.90	8.97	1.71	8.49	942.36
무직/기타	462,930	1.44	4.45	2.20	11.27	2,624.98

4. 소득별 이용 행태 (5월)

분류	순이용자	도달률(%)	순이용자비중(%)	평균게임이용갯수	평균재방문일수(일)	평균이용시간(분)
100만원 미만	392,765	1.22	3.78	1.89	9.81	1,777.39
100만원~300만원	2,892,311	8.99	27.80	2.05	10.15	1,591.56
300만원~500만원	4,291,251	13.34	41.25	1.96	9.69	1,436.46
500만원 이상	2,826,183	8.79	27.17	1.84	10.42	1,668.47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조사 방법론 참조: http://www.koreanclick.com/methodology/audience_measurement.php)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5월 온라인게임 순위는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디아블로 3’가 5월 15일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1위를 차지하였다. 이로 인해 상위권 게임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1위 자리를 지키던 ‘리그 오브 레전드’는 2위로, ‘아이온’은 4위로 하락하였다.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3’ 출시로 인하여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블리자드의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5단계 하락하며 15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대규모 9주년 이벤트를 진행한 ‘메이플 스토리’는 5단계 상승하여 10위권 내로 진입하였고, ‘5월의 축제 이벤트’를 진행한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도 4단계 상승하여 20위를 차지하였다. 온라인게임 TOP20에서 국내 게임개발사가 14개나 포함되는 등 온라인게임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 온라인게임 종합 TOP 20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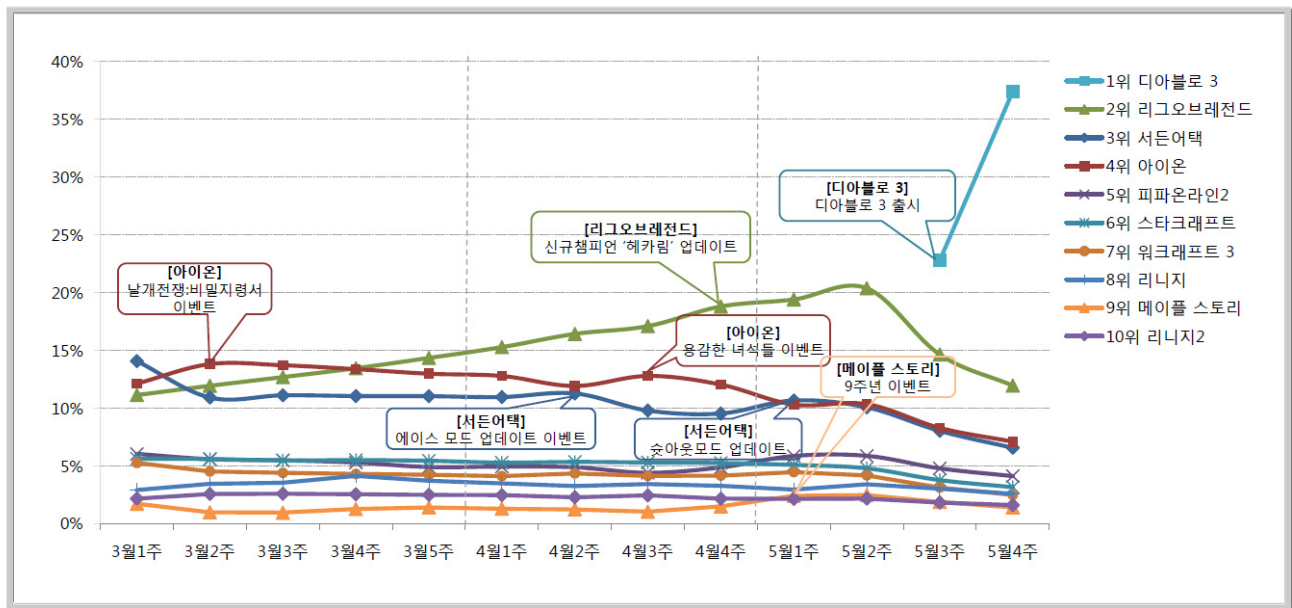
순위	변동	게임명	장르	사용시간 점유율(%)	사용시간 (시)	전월대비 증감율(%)	평균체류 시간(분)	개발사	유통사
1	NEW	디아블로 3	RPG	19.80%	1,314,946	-	122	블리자드	블리자드
2	▼1	리그 오브 레전드	RTS	15.93%	1,057,679	10.8%	113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
3	-	서든어택	FPS	8.68%	576,718	-4.7%	77	게임하이	CJ E&M/넥슨
4	▼2	아이온	RPG	8.53%	566,457	-17.4%	154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5	-	피파온라인2	스포츠	5.15%	341,966	23.6%	46	EA/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6	▼2	스타크래프트	RTS	4.02%	266,853	-10.1%	67	블리자드	블리자드
7	▼1	워크래프트 3	RTS	3.42%	226,974	-6.0%	74	블리자드	블리자드
8	▼1	리니지	RPG	2.89%	191,709	3.0%	114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9	△5	메이플 스토리	RPG	2.05%	135,837	77.0%	63	넥슨	넥슨
10	▼1	리니지 2	RPG	1.85%	123,175	-5.0%	173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11	-	사이퍼즈	RPG	1.62%	107,720	-0.9%	116	네오플	넥슨
12	▼4	테라	RPG	1.39%	92,580	-31.3%	129	블루홀 스튜디오	NHN
13	▼1	던전앤파이터	RPG	1.37%	91,098	-10.9%	81	네오플	넥슨
14	▼1	스페셜포스	FPS	1.18%	78,276	-13.9%	93	드래곤플라이	네오위즈게임즈
15	▼5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RPG	1.10%	72,996	-39.6%	108	블리자드	블리자드
16	▼1	카트라이더	레이싱	1.05%	69,574	-1.3%	42	넥슨	넥슨
17	▼1	한게임 로우바둑이	포커	0.91%	60,664	-13.6%	36	NHN	NHN
18	△1	스타크래프트2	RTS	0.66%	43,975	-12.6%	72	블리자드	블리자드
19	▼2	프리스타일풋볼	스포츠	0.66%	43,719	-16.9%	86	JCE	JCE
20	△4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FPS	0.61%	40,183	13.2%	58	넥슨	넥슨

* 출처: 게임트릭스, <2012년 5월 게임 동향>



온라인게임 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5월 셋째 주 '디아블로3' 출시를 기점으로 모든 게임들의 점유율이 동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디아블로 3'는 출시하자마자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독보적인 1위였던 '리그 오브 레전드'는 '디아블로3' 출시 이후 점유율이 급하락하며 점유율 2위에 위치하였다. '슛아웃모드 업데이트'를 진행한 '서든어택'은 5월 1주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 2주 이후로 점유율이 하락하며 3위를 유지하였고, '아이온'은 점유율 하락 곡선을 그리며 2단계 하락하여 4위에 위치하였다. 9주년을 맞아 대규모의 이벤트를 진행한 '메이플스토리'는 5월 1주부터 점유율이 상승하며 10위권 내로 진입하였다.

▶▶ 온라인게임 점유율 추이 (3월~5월)



* 출처: 게임트릭스, <2012년 5월 게임 동향>





5월 온라인게임 장르별 현황에서는 ‘디아블로3’ 출시로 인해 RPG 장르의 점유율이 급상승(10.22%p)했고, 타 장르의 점유율이 동반 하락했다. 5월 한 달간 RPG의 일간평균접속자수는 385만 명, 일간최대접속자수는 751만 명에 달했고, 평균체류시간은 119분을 기록하며 타 장르를 앞섰다.

장르별 점유율 추이에서는 RPG가 44.95%로 1위를 차지했고, RTS(실시간전략게임)이 24.59%로 4월 대비 3.77%p 하락하며 2위, FPS가 3.16%p 하락한 12%로 3위를 기록했다. 8.34%(0.75%p 하락)의 점유율을 차지한 스포츠가 4위를 기록했고, 아케이드·포커·보드·레이싱·고스톱 등의 장르는 모두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며 3% 미만에 머물렀다. 하나의 게임이 전체 온라인게임 점유율 관도를 좌우할 정도로 ‘디아블로3’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1분기와 2012년 5월의 장르별 점유율을 비교하면, RTS가 13.09%에서 24.59%로 상승한 반면, 다른 장르들은 모두 조금씩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RPG는 2012년 4월 34.81%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이 ‘디아블로3’ 출시 이후 급상승하며 예전의 2011년 1분기 당시의 점유율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

▶▶ 온라인게임 장르별 현황

1. 장르별 이용 현황 (5월)

장르명	사용시간(시)	점유율(%)		기간대비 등락현황(개)				PC방당 사용시간(분)	평균체류 시간(분)	평균이용 횟수(회)	일간평균 접속자수	일간최대 접속자수
		점유율	등락률	전체	상승	하락	보합					
RPG	2,985,396	44.95	10.22	179	52	106	17	1,078	119	1,506,392	3,856,936	7,510,244
RTS	1,632,908	24.59	-3.77	8	1	1	6	1,480	94	1,037,809	2,107,281	4,066,521
보드	97,749	1.47	-0.36	30	8	5	16	118	61	95,496	126,196	238,883
레이싱	87,156	1.31	-0.29	6	0	0	6	228	43	122,101	112,627	272,853
FPS	796,772	12.00	-3.16	26	2	15	7	676	76	625,004	1,028,967	2,485,974
아케이드	188,867	2.84	-0.59	39	15	6	18	177	55	204,534	244,257	613,240
스포츠	553,951	8.34	-0.75	22	3	4	15	429	50	661,150	714,271	1,568,525
고스톱	107,820	1.62	-0.43	32	5	6	21	123	38	170,744	139,323	261,451
포커	190,617	2.87	-0.88	23	2	2	18	146	28	401,419	246,009	430,697

* 출처: 게임트릭스, <2012년 5월 게임 동향>

2. 장르별 점유율 추이 (2011. 1Q ~ 2012. 5)

장르	2011. 1Q	2011. 2Q	2011. 3Q	2011. 4Q	2012. 1Q	2012. 4	2012. 5
RPG (Role Playing Game)	47.85%	43.40%	41.33%	40.14%	36.77%	34.81%	44.95%
RTS (Real Time Strategy Simulation)	13.09%	15.95%	16.60%	17.36%	22.49%	28.41%	24.59%
FPS (First Person Shooting)	15.56%	14.44%	16.46%	15.46%	16.87%	15.00%	12.00%
스포츠	9.37%	11.62%	11.87%	13.40%	10.83%	9.05%	8.34%
아케이드	3.73%	3.83%	3.97%	3.97%	3.56%	3.42%	2.84%
포커	4.04%	4.32%	3.75%	3.87%	3.80%	3.79%	2.87%
고스톱	2.52%	2.61%	2.29%	2.14%	2.02%	2.07%	1.62%
레이싱	2.03%	1.87%	1.93%	1.86%	1.84%	1.58%	1.31%
보드	1.81%	1.95%	1.81%	1.80%	1.82%	1.86%	1.47%

* 출처: 게임트릭스(2011년-2012년 게임동향)



5월 온라인 게임사별 점유율에서는 엔씨소프트와 넥슨이 각각 16.8%, 16.25%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했다.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6월 8일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14.7%) 인수로 최대주주로 등극하며 두 회사는 한 배를 타게 되었는데, 두 회사의 점유율이 33.05%로 전체 온라인 게임 시장의 1/3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넥슨의 전략에 따라 전체 게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점유율 3위인 블리자드는 자사의 5개 게임 중 디아블로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들이 하락하면서 11.5%를 기록했고, 네오위즈게임즈와 CJ E&M이 11.4%와 9.67%의 점유율로 그 뒤를 이었다.

▶ 온라인 게임사별 점유율 (5월)

게임사명 (사용시간 기준 정렬)	사용시간 (시)	점유율		전월 대비 보유게임 등락현황 (개)			
		점유율	등락률	전체	상승	하락	보합
엔씨소프트	892,580	16.80%	-1.19%	8	3	5	0
넥슨	863,506	16.25%	0.87%	28	11	14	3
블리자드	610,815	11.50%	-1.19%	5	1	4	0
네오위즈게임즈	605,750	11.40%	1.23%	37	15	15	7
CJ E&M	513,548	9.67%	-0.14%	43	20	19	4
NHN	335,964	6.32%	-0.90%	31	10	19	2
JCE	88,513	1.67%	-0.29%	5	2	3	0
예당온라인	32,894	0.62%	0.01%	5	4	1	0
엠게임	29,276	0.55%	0.01%	33	16	17	0
원디소프트	28,784	0.54%	0.06%	4	3	1	0
웹젠	18,812	0.35%	-0.03%	3	1	1	1
YNK코리아	11,696	0.22%	-0.06%	1	0	1	0
라이브플렉스	9,975	0.19%	-0.05%	5	0	5	0
한빛소프트	10,135	0.19%	-0.03%	11	3	7	1
게임하이	9,206	0.17%	-0.01%	2	2	0	0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8,851	0.17%	-0.03%	7	2	5	0
이스트소프트	8,790	0.17%	-0.03%	2	0	2	0
KTH	8,359	0.16%	0.02%	5	4	1	0
그라비티	5,712	0.11%	-0.11%	5	0	5	0
액토즈소프트	2,860	0.05%	0	5	4	1	0
바른손게임즈	369	0.01%	0	2	1	1	0
엔플루토	658	0.01%	-0.01%	1	0	1	0

* 출처: 게임트릭스, <2012년 5월 게임 동향>





5월 모바일 게임 순위에서는 ‘팔라독’과 ‘템플런’이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유·무료 애플리케이션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팔라독은 동물 왕국에 침입하는 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강아지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국산 게임으로, 작년 초 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템플런’은 사원에서 뛰쳐나온 괴물을 피해 달리며 장애물을 피하고 코인을 얻는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이다. 최근의 인기를 기반으로 6월에는 디즈니와의 협작을 통해 ‘템플런 브레이브’라는 후속편이 나오기도 했다. 이 게임은 6월 21일 개봉할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브레이브’의 주인공과 배경을 템플런으로 옮겨온 게임으로, 영화와 모바일 게임간의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사례이다.

▶▶ 모바일 게임 TOP 5 (5월)

1. 구글플레이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팔라독	Temple Run
2	아스팔트 6 : 아드레날린	컴투스프로야구 2012
3	Where's My Water?	물용량 맞추기
4	Minecraft - Pocket Edition	메이플스토리 Live
5	문마스터 퍼즐	번식전쟁

2. 앱스토어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앵그리 버드 스페이스	Temple Run
2	팔라독	캐슬마스터 3D
3	더 킹 오브 파이터즈 i 2012	컴투스프로야구 2012
4	아스팔트 6 : 아드레날린	Head Soccer
5	스왑피	고스트 스나이퍼 : 좀비

3. 티스토어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드래곤나이트 4 플러스	미로게임
2	레전드 오브 마스터 3	대물냥시터
3	위닝 일레븐 2012	비바 삼국지
4	메이플스토리 Live	드래곤나이트 4
5	대물냥시터 플러스	두뇌게임Q2

* 출처: <월간 앱스토리 6월호>



5월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은 285건이었다. 이중 140건이 전체 이용가이고, 120건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신청했다.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는 각각 17건, 8건에 그쳤다. 지난 1년간의 등급신청 추이에 따르면 전체 이용가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청소년이용불가는 꾸준히 신청건수가 유지되어 조만간 그 수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게임 섯다운제의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는 게임섯다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준에 맞춰 게임을 제작하는 방법을 통해 섯다운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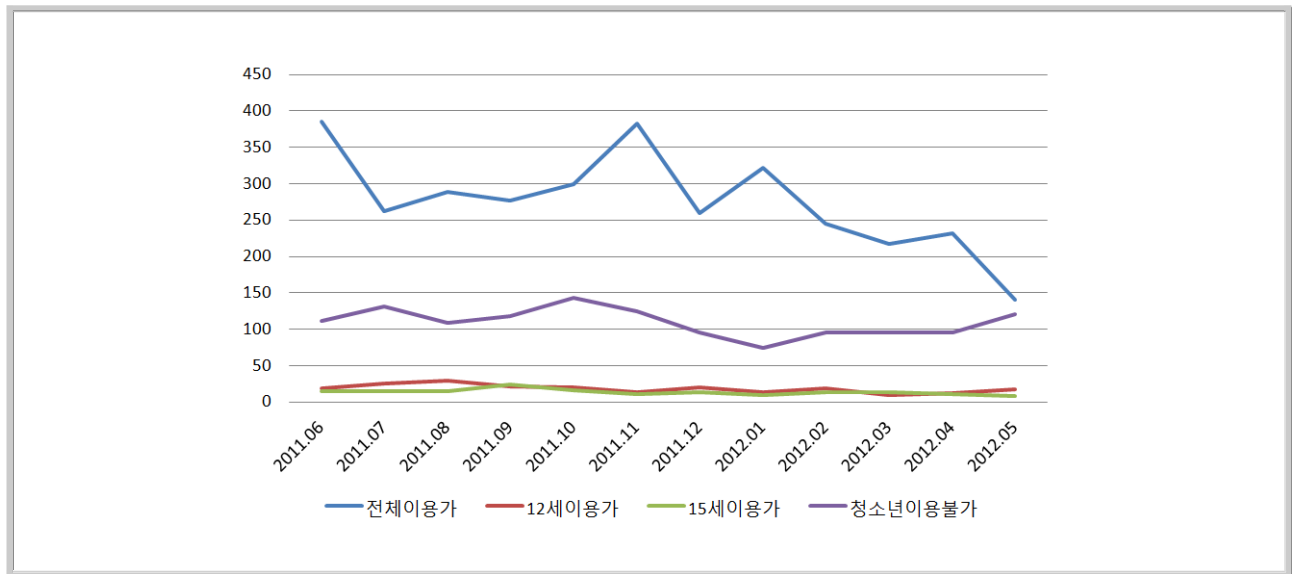
▶▶ 게임물 등급신청

1. 등급신청 현황 (2011. 6 ~ 2012. 5)

구분	2011.06	2011.07	2011.08	2011.09	2011.10	2011.11	2011.12	2012.01	2012.02	2012.03	2012.04	2012.05
전체이용가	385	262	289	277	299	382	260	322	245	217	232	140
12세이용가	19	25	29	22	20	14	20	13	19	10	12	17
15세이용가	15	15	15	24	16	11	13	10	13	13	11	8
청소년이용불가	111	131	109	118	143	125	95	75	95	95	96	120
합계	530	433	442	441	478	532	388	420	372	335	351	285

* 출처: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물 등급 신청 추이





4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266건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가 이루어져 그 중 226건에 대한 등급이 확정되었다. 이중 전체 이용가가 168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이용불가가 43건(16.2%), 12세 이용가가 9건(3.4%), 15세 이용가가 6건(2.3%)로 나타났다.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은 총 40건으로, 아케이드 플랫폼에서 40건의 게임 등급분류가 반려되었다. 장르별 분류에서는 캐주얼 게임이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퍼즐, 보드게임, 액션, FPS 등의 장르가 그 뒤를 이었다.

▶▶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1.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4월)

구분	아케이드	PC · 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오픈마켓)	합계	비율(%)
전체이용가	38	91	10	29 (28)	168	63.2
12세이용가	·	4	2	3 (2)	9	3.4
15세이용가	·	3	1	2 (2)	6	2.3
청소년이용불가	7 [7]	14	6	16 (14)	43	16.2
등급분류소계	45	112	19	50 (46)	226	85.0
등급분류거부	40 [20]	·	·	·	40	15.0
합계	85 [27]	112	19	50 (46)	266	100.0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 출처: 게임물등급위원회

2.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4월)

구분	아케이드	PC · 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오픈마켓)	합계	비율(%)
캐주얼	·	49	·	4 (4)	53	23.5
퍼즐	12	9	3	6 (6)	30	13.3
보드게임(베테성)	7 [7]	7	·	8 (8)	22	9.7
액션	·	2	8	10 (9)	20	8.9
FPS[1인칭슈팅]	15	1	·	2 (1)	18	8.0
시뮬레이션	1	4	3	5 (5)	13	5.7
기타	9	2	·	2 (2)	13	5.7
스포츠	·	8	2	2 (2)	12	5.3
MMORPG	·	9	·	·	9	4.0
교육용	·	9	·	·	9	4.0
전략시뮬레이션	·	4	·	5 (4)	9	4.0
레이싱	1	5	1	·	7	3.1
보드게임	·	1	·	4 (4)	5	2.2
롤플레이	·	1	1	1	3	1.3
어드벤처	·	1	·	1 (1)	2	0.9
격투게임	·	·	1	·	1	0.4
합계	45 [7]	112	19	50 (46)	226	100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 출처: 게임물등급위원회



06

영화

5월 박스오피스 순위에서는 4월 26일 개봉한 '어벤져스'가 매출액 416억 원, 관객수 503만 명(누적관객수 690만 명)을 동원하며 1위를 차지했다. 5월 17일 개봉한 임수정, 이선균 주연의 로맨틱코메디 '내 아내의 모든 것'이 23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위를 기록했고, '맨 인 블랙 3'와 '코리아', '돈의 맛'이 그 뒤를 이었다. 박범신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은교'는 김고은이라는 신인배우를 발굴하며 누적관객수 134만 명을 기록했고, 3~4월 366만 명을 동원하며 예상 밖의 흥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건축학개론'은 44만 여명을 추가하여 누적 400만 명을 돌파했다.

▶▶ 박스오피스 순위 TOP 15 (5월)

순위	제목	배급사	개봉일	스크린수	매출액 (백만원)	관객수 (천명)	누적 관객수 (천명)
1	어벤져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 브에나비스타영화㈜	2012-04-26	942	41,606	5,034	6,900
2	내 아내의 모든 것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2-05-17	561	17,293	2,310	2,310
3	맨 인 블랙 3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 브에나비스타영화㈜	2012-05-24	767	16,188	1,921	1,921
4	코리아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05-03	535	13,097	1,821	1,821
5	돈의 맛	(주)시너지하우스(시너지),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05-17	641	8,143	1,080	1,080
6	은교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04-25	506	5,231	709	1,341
7	다크 새도우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2012-05-10	393	4,315	580	580
8	백설공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05-03	385	4,021	573	582
9	건축학개론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03-22	331	3,113	439	4,099
10	로렉스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2012-05-03	462	2,134	296	297
11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2012-05-30	446	1,413	191	191
12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황금스파이 대작전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2-04-26	293	1,176	176	271
13	간기남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2012-04-11	292	923	126	1,242
14	차형사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012-05-30	417	855	119	119
15	콜드 라이트 오브 데이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2012-05-17	244	625	87	87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5월까지의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000억 원 가량 증가한 5,308억으로 집계되었다. 관객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약 1,300만 명이 증가한 6,860만 명을 기록했다. 개봉편수에서는 한국영화 개봉이 작년 동기에 비해 2편 증가한 59편을, 외국영화는 14편 증가한 132편을 기록했다. 관객 점유율에서는 한국영화가 53.5%를 기록하며 외국영화 점유율(46.7%)을 앞섰는데, 이는 작년 동기 외국영화의 점유율(68.4%)이 한국영화(31.6%)를 두 배 이상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이다.

하지만 4월과 5월로 한정해서 보면 외국영화의 점유율은 약 58%에 달하여 한국영화 점유율(42%)을 앞섰다. 이는 '배틀쉽', '어벤져스', '맨 인 블랙 3'와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개봉하여 많은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이며, 특히 5월까지 690만 명을 동원한 '어벤져스'의 흥행효과가 컸다.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 현황

구분	2012. 1 ~ 2012. 5					2011. 1 ~ 2011. 5				
	개봉편 수	상영편 수	매출액 (백만원)	관객수 (천명)	점유율	개봉편 수	상영편 수	매출액 (백만원)	관객수 (천명)	점유율
한국	59	255	274,413	36,535	53.3%	57	236	211,222	28,647	31.6%
외국	132	643	256,437	32,074	46.7%	118	511	225,005	27,075	68.4%
전체	191	898	530,850	68,609	100.0%	157	747	436,227	55,722	100.0%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월별 관객 동원 추이 (2011. 5 ~ 2012. 5)

구분	개봉편수			상영편수			관객수 (천 명)			점유율 (%)	
	한국	외국	전체	한국	외국	전체	한국	외국	전체	한국	외국
2011. 05	7	22	29	82	206	288	5,180	8,685	13,864	37.4	62.6
2011. 06	12	25	37	115	167	282	4,168	8,531	12,699	32.8	67.2
2011. 07	9	24	33	91	222	313	5,944	12,389	18,334	32.4	67.6
2011. 08	11	25	36	114	287	401	13,844	6,218	20,062	69.0	31.0
2011. 09	17	20	37	144	221	365	9,821	3,596	13,417	73.2	26.8
2011. 10	10	25	35	133	282	415	8,423	3,985	12,409	67.9	32.1
2011. 11	20	25	45	124	208	332	5,757	4,564	10,321	55.8	44.2
2011. 12	14	27	41	146	229	375	6,262	10,566	16,829	37.2	62.8
2012. 01	8	22	30	56	191	247	8,143	8,306	16,449	49.5	50.5
2012. 02	8	35	43	54	190	244	9,806	3,108	12,915	75.9	24.1
2012. 03	18	19	37	127	217	344	6,794	4,534	11,329	60.0	40.0
2012. 04	10	27	37	69	200	269	5,052	6,919	11,972	42.2	57.8
2012. 05	15	29	44	107	234	341	6,736	9,198	15,935	42.3	57.7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5월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배급사는 CJ E&M으로, 관객 1,494만 명을 동원하며 22.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주)는 상영편수는 9편에 불과했지만 ‘어벤져스’와 ‘맨 인 블랙 3’ 같은 할리우드 대작을 선보이며 관객수 1,077만 명(점유율 16.0%)로 2위를 차지했다. ‘건축학개론’, ‘은교’, ‘돈의 맛’ 등을 배급한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는 점유율 15.3%로 3위를 차지했다.

▶▶ 배급사별 점유율 TOP 10 (2012. 1 ~ 2012. 5)

순위	배급사	상영편수	관객		매출	
			관객수(천명)	점유율	매출액(백만원)	점유율
1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21.5	14,942	22.1%	115,228	22.1%
2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주)	9	10,778	16.0%	90,936	17.5%
3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17	10,351	15.3%	75,559	14.5%
4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7.5	9,238	13.7%	69,324	13.3%
5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6	6,974	10.3%	53,307	10.2%
6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5	3,730	5.5%	30,132	5.8%
7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7	2,989	4.4%	22,014	4.2%
8	필라멘트픽처스	4	2,639	3.9%	19,991	3.8%
9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6	1,806	2.7%	13,636	2.6%
10	(주)시너지하우스 (시너지)	3	820	1.2%	6,145	1.2%
-	기타	146	3,270	4.4%	23,969	4.4%
	합계	233	67,542	100%	520,244	100%

* 순위는 관객 수(점유율)로 집계
 * 두 개 배급사가 공동으로 배급한 작품은 각 편수, 관객수, 매출액 모두 각 배급사에 절반씩 나누어 집계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1월에서 5월까지의 상영유형별 관객점유율에서는 2D영화(디지털)가 79.2%, 아날로그 필름이 11.9%, 3D가 7.2%를 기록했고, IMAX와 4D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아날로그 필름을 통한 상영비중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축소되어 2012년 현재 88%에 이르는 영화가 디지털 영사기를 통해 상영되고 있다.

▶▶ 상영유형별 점유율 (2012. 1 ~ 2012. 5)

순위	분류	개봉편수	상영편수	관객		매출	
				관객수(천명)	점유율	매출액(백만원)	점유율
1	2D	185	325	54,085	79.2%	401,965	76.1%
	디지털	162	291	51,432	75.4%	384,351	72.8%
	디지털더빙	15	22	2,641	3.9%	17,526	3.3%
	디지털 영문자막	5	7	8	0.0%	67	0.0%
	디지털 한글자막	2	3	3	0.0%	18	0.0%
	디지털 일본자막	1	2	0.2	0.0%	2	0.0%
2	필름	179	813	8,122	11.9%	57,362	10.9%
	일반	167	794	7,712	11.3%	54,771	10.4%
	더빙	8	13	410,325	0.6%	2,587	0.5%
	영문자막	4	6	0.4	0.0%	3	0.0%
3	3D	27	40	4,931	7.2%	54,666	10.3%
	3D디지털	17	25	3,505	5.1%	39,957	7.6%
	3D더빙	10	15	1,425	2.1%	14,709	2.8%
4	IMAX	10	12	591	0.9%	8,350	1.6%
	IMAX	7	8	433	0.6%	6,664	1.3%
	IMAX 3D	3	4	157	0.2%	1,685	0.3%
5	4D	11	15	528	0.8%	6,008	1.1%
	4D	9	13	471	0.7%	5,395	1.0%
	4D더빙	2	2	57	0.1%	613	0.1%
합계		412	1,205	68,258	100.0%	528,3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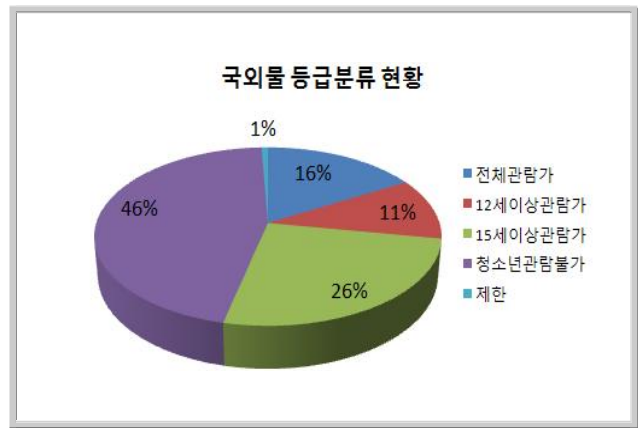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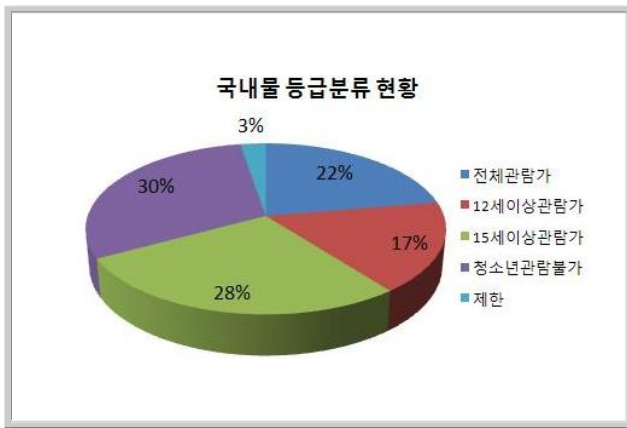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지난 5개월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진행한 영상물은 373개였고, 이중 국내물이 76개, 국외물이 297개로 집계되어 국외물이 국내물보다 네 배가량 많았다. 등급별로는 국내외 모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158개로 가장 많았고, '15세이상관람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되었다.

▶▶ 등급분류 현황 (2012. 1 ~ 2012. 5)

구분	등급						불가	보류	속행	자료 제출	계
	전체 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계					
국내물	17	13	21	23	2	76	0	0	0	0	76
국외물	49	33	76	135	2	295	0	0	1	1	297
소계	66	46	97	158	4	371	0	0	1	1	373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DVD, 블루레이 판매 순위에서는 판매처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YES24에서는 ‘세가지색 트릴로지 3Disc 초도한정 디지털 : 블루레이’가 1위를 차지했고, 알라딘에서는 ‘[블루레이] 8월의 크리스마스 한정판 오마주 컬렉션’이 1위를 차지했다. 인터파크에서는 ‘미션임파서블: 고스트프로토콜’이 출시되면서 DVD+블루레이, DVD, 블루레이 세 종류가 각각 1,4,8위를 차지했고, 핫트랙스에서는 블루레이 분야에선 ‘미션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스틸북[2BD+DVD]’가 1위를, DVD분야에선 ‘노팅힐’이 1위를 차지했다. ‘노팅힐’은 알라딘과 YES24에서도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 영화 DVD / 블루레이 판매 TOP 10 (5월)

YES24				알라딘		
순위	제목	발매일	판매가	제목	발매일	판매가
1	세가지색 트릴로지 3Disc 초도한정 디지털 : 블루레이	2012-4-14	56,000	[블루레이] 8월의 크리스마스 : 한정판 오마주 컬렉션	2012-6-15	33,000
2	미션 임파서블4 콤보팩 스틸북 : 블루레이 수량한정판	2012-5-10	37,600	노팅 힐	2012-4-19	9,900
3	노팅 힐	2008-3-20	9,900	[블루레이] 크로니클 : 극장판 & 확장판	2012-6-5	31,900
4	완득이 : 블루레이	2012-4-19	29,700	[블루레이] 파수꾼 : 초회 한정판	2012-6-14	29,700
5	라비앙 로즈 : 블루레이 (초회 한정 아웃케이스)	2012-5-28	22,000	휴고	2012-5-17	20,400
6	잠수종과 나비 : 블루레이 (초회 한정 아웃케이스)	2012-5-28	22,000	미션 임파서블 : 고스트 프로토콜	2012-5-10	20,400
7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 블루레이 (초회 한정 아웃케이스)	212-5-28	22,000	[블루레이] 쉘 위 댄스 : 한정판 커피북	2012-6-20	29,700
8	밀레니엄: 여자를 중요한 남자들 : 블루레이	2012-4-24	35,200	[블루레이] 아이언맨 (2disc)	2009-1-20	31,600
9	장화신은 고양이	2012-4-12	20,400	원탁의 천사 (2disc)	2006-10-26	6,600
10	블랙북 : 블루레이	2012-3-29	22,000	[블루레이] 스팅 : 한정판 디지털	2012-6-12	35,200
인터파크				핫트랙스		
순위	제목	발매일	판매가	블루레이	DVD	
1	미션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스틸북한정판) - DVD+블루레이	2012-5-10	37,600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스틸북[2BD+DVD]	노팅 힐	
2	노팅 힐	2012-4-18	9,900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렌티클러 한정판]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라이브 공연	
3	퍼펙트 게임(2Disc) - DVD	2012-5-23	21,400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	
4	미션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DVD	2012-5-10	20,400	셜록 시즌 2	이티 :20주년 기념판 S.E	
5	완득이(2Disc) - DVD	2012-3-29	25,500	토르: 천둥의 신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	
6	브레이킹 던 PART 1 -DVD	2012-3-28	21,400	셜록 홈즈 1+2 박스세트	셜록 시즌 2	
7	타이타닉 디럭스 콜렉터스 에디션 한정판(3Disc) - DVD	2010-3-11	24,800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라이브 공연	맨 인 블랙	
8	미션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 블루레이	2012-5-10	34,600	아이언맨 2:BD+DVD 콤보팩	사운드 오브 뮤직: 40주년 특별 한정판	
9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렌티클러 한정판) - 블루레이	2012-5-4	31,900	밀레니엄: 여자를 중요한 남자들	맘마미아!	
10	BBC 셜록 시즌 2 - DVD	2012-4-5	30,600	디센던트	퍼펙트 게임	

* 출처: YES24, 인터파크, 핫트랙스 (5월 기준), 알라딘 (6월 1주 기준)



07

애니메이션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5월 방영 프로그램 중에서는 <명탐정 코난 시리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명탐정 코난 극장판 침묵의 15분'이 평균시청률 0.845%로 1위를, '명탐정 코난 시즌 10'이 평균 시청률 0.737%로 2위에 올랐다. 이어서 아따맘마의 극장판인 '엄마는 초능력자'가 0.707%로 3위에 올랐고, '추리의 법칙',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애니메이션이 0.5% 이상의 시청률로 상위권에 올랐다.

상위 35개 프로그램 중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은 '막이래쇼3(9위, 0.575%)', '안녕자두야 스페셜(15위, 0.464%)', '와라편의점스페셜(33위, 0.351%)' '안녕자두야(34위, 0.350%)' 이상 4개에 그친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31개로 순위권의 대부분을 점유하며 국산 애니메이션의 열세를 반영했다.

▶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프로그램 평균 가구시청률 순위 (5월)

순위	프로그램	방영회수	시청률 (%)
1	명탐정코난극장판 침묵의15분	8	0.845
2	명탐정코난 시즌10	23	0.737
3	아따맘마극장판 엄마는초능력자	5	0.707
4	추리의법칙	6	0.611
5	센과치히로의행방불명<재>	2	0.595
6	아따맘마8기	8	0.592
7	썬더일레븐극장판 최강군단오우거의습격	4	0.590
8	짱구는못말려11스페셜	2	0.580
9	막이래쇼3	28	0.575
10	짱구는못말려스페셜	16	0.561
11	아따맘마극장판	2	0.520
12	짱구는못말려11	64	0.489
13	짱구는못말려 전설을부르는춤취라<재>	1	0.488
14	극장판도라에몽진구와로봇왕국	1	0.480
15	안녕자두야스페셜	1	0.463
16	짱구는못말려폭풍을부르는석양<재>	1	0.460
17	명탐정코난극장판천공의난파선	2	0.454
18	짱구는못말려어른제국의역습<재>	1	0.450
19	침략오징어소녀2	5	0.426
20	명탐정코난극장판천국으로의카운트다운	2	0.423
21	짱구는못말려부리부리3분대작전<재>	1	0.420
22	아따맘마6기	10	0.408
23	꿀벌대소동	2	0.406
24	짱구는못말려폭풍을부르는정글<재>	1	0.403
25	짱구는못말려엄청난태풍을부르는금창의용사<재>	1	0.397
26	케로로리턴즈	2	0.395
27	짱구는못말려대지발굴대작전<재>	1	0.389
28	아따맘마스페셜	4	0.381
29	짱구는못말려태풍을부르는영광의불고<재>	1	0.377
30	극장판짱구는못말려포효하라떡잎야생왕국<재>	2	0.374
31	명탐정코난극장판14번째표적	2	0.360
32	짱구는못말려10	35	0.356
33	와라편의점스페셜	14	0.351
34	안녕자두야	18	0.350
35	아따맘마7기	12	0.342

* 해당 수치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투니버스, 챔프TV, 카툰네트워크, 애니원, 애니박스, 애니맥스, 재능TV, 니켈로디언, 디즈니주니어, 디즈니채널, 애니플러스)에서 방영되는 모든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을 합한 값임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 <명탐정 코난 시리즈>, <아따맘마> 등을 방영하는 'Tooniverse'가 0.2487%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디지몬>, <도라에몽>, <포켓몬스터> 등을 방영하는 'Champ(0.1124%)'가 차지했고,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을 재방영하는 '카툰네트워크'는 3위를 기록했다.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은 모두 도달률이 10%에 못 미치고 점유율 1% 미만으로 나타났고, 시청 시간은 0~3분에 그쳤다.

▶▶ 어린이 /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평균 가구시청률 (5월)

순위	채널	시청률	점유율	도달율	시청시간
1	Tooniverse	0.2487%	0.78%	9.39%	0:03:35
2	Champ	0.1124%	0.35%	5.16%	0:01:37
3	카툰네트워크	0.0788%	0.25%	3.54%	0:01:08
4	Ji재능TV	0.0726%	0.23%	4.70%	0:01:03
5	Nickelodeon	0.0535%	0.17%	2.41%	0:00:46
6	Animax	0.0384%	0.12%	2.77%	0:00:33
7	어린이TV	0.0253%	0.08%	1.74%	0:00:22
8	Anibox	0.0215%	0.07%	1.56%	0:00:19
9	디즈니채널	0.0121%	0.04%	0.65%	0:00:10
10	육아방송	0.0101%	0.03%	1.28%	0:00:09
11	애니플러스	0.0095%	0.03%	0.77%	0:00:08
12	디즈니주니어	0.0095%	0.03%	0.43%	0:00:08
13	키즈원	0.0013%	0.00%	0.08%	0:00:01
14	에듀키즈TV	0.0012%	0.00%	0.13%	0:00:01
15	Kids Talk Talk Plus	0.0009%	0.00%	0.05%	0:00:01
16	KidsCo	0.0002%	0.00%	0.04%	0:00:00
17	키즈TV	0.0000%	0.00%	0.02%	0:00:00
18	대교플러스	0.0000%	0.00%	0.00%	0:00:00
19	에듀TV	0.0000%	0.00%	0.00%	0:00:00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애니메이션 채널의 연령 / 시간대별 평균 시청률에서는 전연령대에서 18~21시에 가장 높은 평균 시청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9세의 19시 시청률은 평균 4%가 넘었으며, 취침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1%가 넘는 시청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9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시청률을 보인 10대는 방과 후인 19시~20시에 1%대의 시청률을 보였으며,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애니메이션 채널 연령 / 시간대별 평균 시청률

(단위: %)

순위	가구	개인	개인 4-9	개인 10대	개인 20대	개인 30대	개인 40대	개인 50대	개인 60+
1	0.1307	0.0441	0.0283	0.0373	0.0450	0.0575	0.0529	0.0390	0.0364
2	0.0849	0.0273	0.0105	0.0161	0.0318	0.0213	0.0405	0.0290	0.0297
3	0.0512	0.0150	0.0055	0.0095	0.0152	0.0148	0.0187	0.0179	0.0169
4	0.0358	0.0113	0.0068	0.0039	0.0120	0.0058	0.0099	0.0159	0.0227
5	0.0595	0.0215	0.0373	0.0100	0.0128	0.0084	0.0265	0.0252	0.0384
6	0.2130	0.0849	0.4038	0.1045	0.0177	0.0430	0.0683	0.0550	0.0908
7	0.8148	0.3395	2.2362	0.4232	0.0205	0.2224	0.2667	0.1022	0.2134
8	0.9230	0.3865	2.3082	0.4329	0.0613	0.3785	0.2907	0.1202	0.2264
9	0.7762	0.3400	1.6891	0.4132	0.0855	0.3908	0.2570	0.1245	0.1978
10	0.7308	0.3178	1.2973	0.4005	0.1159	0.3625	0.2707	0.1428	0.1969
11	0.5791	0.2513	1.0061	0.3113	0.0772	0.3223	0.2161	0.1087	0.1445
12	0.5226	0.2235	0.8763	0.2925	0.0827	0.2533	0.2001	0.0937	0.1391
13	0.6306	0.2500	0.9746	0.3314	0.1183	0.2422	0.2175	0.1258	0.1621
14	0.7777	0.3053	1.2864	0.3915	0.1682	0.2698	0.2333	0.1499	0.2190
15	0.9285	0.3822	1.9366	0.5911	0.1570	0.3269	0.2189	0.1276	0.2500
16	1.0510	0.4311	2.5174	0.6589	0.1256	0.3799	0.2508	0.1153	0.2095
17	1.2956	0.5374	3.1873	0.8418	0.1060	0.4622	0.3055	0.1238	0.3090
18	1.5127	0.6474	3.9329	0.8839	0.1541	0.6264	0.3421	0.1821	0.3527
19	1.6989	0.7327	4.2478	1.0745	0.1727	0.7174	0.4030	0.2083	0.3855
20	1.5968	0.6854	3.6106	1.0893	0.1879	0.6368	0.5022	0.1842	0.3085
21	1.2138	0.5066	2.2467	0.8684	0.1373	0.4711	0.4143	0.2049	0.2271
22	0.7500	0.3019	0.8829	0.5086	0.1349	0.2436	0.2929	0.1927	0.2019
23	0.4932	0.2039	0.3455	0.3498	0.1124	0.2244	0.2287	0.1313	0.1114
24	0.2547	0.1044	0.1030	0.1440	0.1085	0.1064	0.1152	0.0798	0.0730

* 해당 수치는 어린이 / 애니메이션 전문채널(투니버스, 챔프TV, 카툰네트워크, 애니원, 애니박스, 애니맥스, 제능TV, 니켈로디언, 디즈니주니어, 디즈니채널, 애니플러스)에서 방영되는 모든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을 합한 값임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별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에서는 <투니버스>에서 '개구리중사케로로 극장판 드래곤 위리어'가 1위를, <카툰네트워크>에서는 '닥터슬럼프 TV스페셜'이 1위를 기록했다. <니켈로디언>, <챔프>, <대교어린이TV>, <재능TV>에서는 '못말리는 3공주', '도라에몽 13', '골판지 전사', '똥다럭키맨'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다.

▶▶ 어린이 /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별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 (5월)

투니버스		카툰네트워크	
순위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
1	개구리중사케로로극장판드래곤위리어	1	닥터슬럼프TV스페셜
2	안녕자두야베스트	2	핀과제이크의어드벤처타임
3	나루토질풍전극장판블러드프리즈	3	달콤살벌미스터캣
4	포켓몬스터DP극장판환영의패왕조로아크	4	이누야샤스페셜겨울속의몽환성
5	포켓몬스터극장판뮤츠의역습	5	이누야샤스페셜시대를초월한마음
6	용감한그녀들침푸이와자두	6	암호명이웃집아이들작전명0호를찾아라
7	현장토크쇼택시	7	벤10얼티메이트에일리언
8	세이디	8	통과제리호두까기인형
9	포켓몬스터DP극장판쉐이미	9	상상속친구들의모험
10	GO!GO!다섯쌍둥이	10	통과제리
니켈로디언		챔프	
순위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
1	못말리는3공주	1	도라에몽13
2	아이칼리	2	극장판도라에몽진구와철인군단날아라천사들<재>
3	개구쟁이스머프	3	신도라에몽3<재>
4	하우스오브아누비스	4	스승의날SPECIAL도라에몽<재>
5	빅토리어스	5	도라에몽10<재>
6	슈파닌자	6	도라에몽스페셜
7	베스트플레이어	7	극장판도라에몽진구와로봇왕국<재>
8	빅타임러쉬	8	짱구는못말려태풍을부르는장엄한전설<재>
9	수학특공대우미주미	9	도라에몽어버이날스페셜<재>
10	도라디익스플로러	10	도라에몽극장판진구의공룡대탐험<재>
대교어린이TV		재능TV	
순위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
1	골판지전사	1	똥다 럭키맨
2	변신자동차또봇진화의시작	2	포켓몬스터DP
3	보노보노	3	레고시티
4	마법천자문	4	변신자동차또봇또하나의또봇
5	긴급출동레스큐파이어	5	변신자동차또봇최강합체트라이탄
6	변신자동차또봇합체또봇타이탄	6	파워디지몬
7	천하태평노노짱	7	울트라맨메비우스
8	숫돌이스페인가다2부	8	출동레스큐포스
9	보롱보롱보로로3	9	말괄량이삐삐
10	미라클체인지퍼펙트반장	10	출동레스큐포스2기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2012년 1월부터 6월 초까지 23편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했고, 이중 1월에 개봉한 '장화신은 고양이'가 약 2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했다. 또한 EBS에서 제작한 국산 3D 애니메이션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 3D'가 약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선전했다. 6월 6일 개봉한 '마다가스카3:이번엔 서커스다'는 6월 27일 기준 130만 관객을 동원했다.

제작 국가별 구분에 따르면,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작품이 개봉되고 있다. 특히 할리우드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미국의 3D 애니메이션은 화려한 그래픽과 탄탄한 스토리를 통해 전 연령대에 걸쳐 인기를 얻으며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 2012년 애니메이션 극장 개봉 현황

제목	개봉일	스크린수	매출액 (백만원)	관객수 (천명)	유형	등급	제작
치코와 리타	1월 5일	17	114	14	2D	15세관람가	스페인, 영국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	1월 12일	234	1,416	202	3D	전체관람가	한국, 미국
장화신은 고양이	1월 12일	593	17,373	2,051	3D	전체관람가	미국
요나 요나 펭귄	1월 12일	104	30	5	2D	전체관람가	일본, 프랑스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3D	1월 26일	455	9,041	976	3D	전체관람가	한국
원피스3D: 밀짚모자 체이스	1월 26일	112	92	13	3D	전체관람가	일본
강철의 연금술사: 마로스의 성스러운 별	1월 26일	36	23	3	2D	12세관람가	일본
해피피트 2	2월 2일	314	1,418	179	3D	전체관람가	호주
토르: 마법망치의 전설	2월 9일	382	4,609	631	3D	전체관람가	아이슬란드
레전드 오브 래빗	2월 22일	224	513	75	3D	전체관람가	중국
볼츠와 블립: 달나라 리그의 전투	2월 23일	60	140	13	3D	전체관람가	한국, 캐나다
나루토 질풍전 극장판: 블러드 프리즌	2월 23일	43	45	7	2D	전체관람가	일본
닌자보이 란타로 극장판: 시끌벅적 방학속제 대소동	2월 23일	64	51	8	2D	전체관람가	일본
밀림의 왕자 레오: 세상을 바꾸는 용기	2월 29일	45	14	2	2D	전체관람가	일본
윤실이	3월 8일	1	1	0.1	2D	청소년관람불가	한국
스페이스 독	3월 22일	148	282	42	3D	전체관람가	러시아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 태풍을 부르는 황금스파이 대작전	4월 26일	277	1,800	271	2D	전체관람가	일본
파리의 도둑 고양이	4월 26일	4	7	1	2D	12세관람가	프랑스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	5월 3일	46	31	4	2D	전체관람가	프랑스
로렉스	5월 3일	462	2,146	297	3D	전체관람가	미국
컬러풀	5월 10일	13	24	3	2D	15세관람가	일본
극장판 썬더일레븐GO : 궁극의 우정 그리폰	5월 24일	242	489	70	3D	전체관람가	일본
마다가스카3 : 이번엔 서커스다!	6월 6일	561	10,219	1,301	3D	전체관람가	미국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2012년 5월 애니메이션 DVD / 블루레이 판매 순위에서는 <YES24>에서 ‘별을 쫓는 아이: 아카르타의 전설 DVD : 초회 한정 아웃케이스’가 1위를 차지했고, <알라딘>에서는 ‘디즈니 고전명작 10종 세트 Vol.1 뉴패키지(10Disc)’가 1위를 차지했다. 대체적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나 디즈니 명작 애니메이션을 재구성하여 판매하는 제품들이 인기가 좋았고, 한국 애니메이션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 애니메이션 DVD / 블루레이 판매 TOP 10 (5월)

YES24				알라딘		
순위	제목	발매일	판매가	제목	발매일	판매가
1	별을 쫓는 아이: 아카르타의 전설 DVD (초회 한정 아웃케이스)	2012-3-16	16,500	디즈니 고전명작 10종 세트 Vol.1 뉴패키지 (10disc)	2004-12-1	7,500
2	미녀와 야수 다이아몬드 에디션 (2Disc)	2010-10-6	20,400	장화신은 고양이	2012-4-12	20,400
3	니모를 찾아서	2009-10-14	13,700	프린스 앤 프린세스	2003-7-30	2,900
4	라퐁젤	2011-4-19	20,400	온하철도999 TV시리즈 전편 풀세트(1화~113화,29disc)	2011-10-28	49,800
5	카2 : DVD	2011-11-2	20,400	Tintin : 틴틴의 모험 (7disc)	2012-5-23	57,200
6	앨빈과 슈퍼밴드 3	2012-4-17	20,400	[블루레이] 기동전사 건담 U.C(유니콘) Vol.4 : 초회판	2012-5-30	26,100
7	신세기 에반게리온 :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극장판	2008-1-31	2,900	해피 피트 2	2012-6-1	19,800
8	디즈니 베스트 애니메이션 12종 (Disney Animation 12 DVD SET)	2011-9-27	11,900	3개국어(영,일,한) 디즈니DVD : 10편 풀세트 (10disc)	2012-4-23	9,900
9	미래소년 코난 Vol.1~7 박스 셋트 (7Disc)	2005-2-25	29,800	앨빈과 슈퍼밴드 3	2012-4-17	20,400
10	쿵푸팬더 : 1Disc	2008-12-2	9,900	드래곤 길들이기	2010-11-18	13,200

* 출처: YES24 (5월 기준), 알라딘 (6월 1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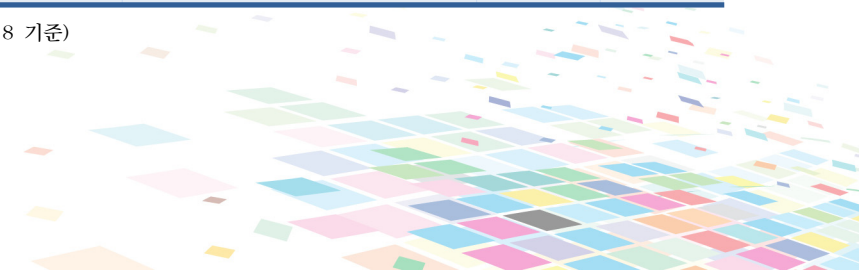
애니메이션 VOD 다운로드 순위에서는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 <Hoppin> 세 곳에서 ‘돼지의 왕’이 1위를 차지했다. ‘돼지의 왕’은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으로, 1억 5천만원이라는 저예산으로 제작되었지만 심도 있는 주제와 개성적인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한편 프랑스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이 <T-store>를 제외한 마켓에서 순위권 안에 들었고, 다음 영화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 2위에 올랐다.

▶▶ 애니메이션 VOD 다운로드 TOP 10

순위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		
	제목	상영시간	가격(원)	제목	상영시간	가격(원)
1	돼지의 왕	96분	3,500	돼지의 왕	96분	3,500
2	꼬마네코 크리스마스 스페셜: 잃어버린 선물	20분	500	마당을 나온 암탉	93분	2,000
3	꼬마네코의 호기심 많은 고양이	60분	1,000	춤추는 꿈틀이 밴드	80분	1,000
4	컬러풀	126분	3,500	요나요나 펭귄	88분	2,000
5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 (더빙판)	82분	3,500	꿀벌 하치의 대모험	95분	3,500
6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더빙판-소장 공주 애니메이션 경품이벤트)	83분	5,500	토르 : 마법망치의 전설	83분	3,500
7	인어 공주(더빙판-소장 공주 애니메이션 경품이벤트)	82분	5,500	구름이 되고 싶어!	8분	440
8	잠자는 숲속의 미녀 (더빙판-소장 공주 애니메이션 경품이벤트)	75분	5,500	새미의 어드벤처	85분	1,000
9	스페이스 독 (더빙판)	85분	3,500	가필드 펫 포스 (더빙판)	73분	2,000
10	가필드 펫 포스 (더빙판)	73분	2,000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 (더빙판)	82분	3,500

순위	T store			Hoppin		
	제목	다운로드	가격(원)	제목	상영시간	가격(원)
1	내 친구 호비	120,791	0	돼지의 왕	96분	3,500
2	청의 엑소시스트	10,736	500	미녀와 야수 3D(2D, 우리말 더빙)	85분	3,500
3	아기공룡 둘리	6,802	500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	82분	3,500
4	안녕! 자두야(상)	6,591	500	장화신은 고양이	90분	2,000
5	인피니티 스트라토스(IS)	6,421	500	극장판 하늘의 유실물 : 시계 태엽의 엔젤로이드	97분	3,500
6	성흔의 퀘이사	6,287	500	극장판 테니스의 왕자 : 영국식 테니스성 결전	87분	2,000
7	고식(GOSICK)	5,159	500	미녀와 야수 3D(2D, 자막)	85분	3,500
8	나루토 질풍전 3기	4,998	500	컬러풀	126분	3,500
9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4,597	500	아스트로보이 : 아툼의 귀환	93분	2,000
10	학원묵시록 (HIGH SCHOOL OF THE DEAD)	4,389	500	공주와 개구리 (우리말 더빙, 영구소장)	96분	5,500

* 출처: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 T스토어, Hoppin (2012. 6. 8 기준)





08

캐릭터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어 캐릭터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편인데 올해에는 예년보다 다양해진 국산 캐릭터 완구의 인기가 높았다. 특히 '로보카 폴리' 관련 완구의 인기가 급상승해 '뽀로로'의 인기를 넘보고 있으며, 또한 미국과 일본캐릭터 일색이던 로봇완구 시장에서 국산캐릭터인 '또봇' 관련 상품이 인기를 얻었다. '뽀로로 시리즈'는 모든 완구분야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 G마켓 캐릭터 상품 TOP 10 (5월)

순위	작동완구		캐릭터완구	
1	변신자동차 에블루션X 또봇	영실업	로보카폴리 폴리세차장 플레이세트	아카데미과학
2	미라클링	반다이	뽀로로 봉제인형	미미월드
3	로보카폴리 변신로봇	아카데미과학	교마버스 타요 풀백시리즈	미미월드
4	그레이트또봇 XY	영실업	무선조종 폴리	아카데미과학
5	어벤져스 히어로 작동 피규어	하스브로코리아	로보카폴리 스쿨비	아카데미과학
6	똑똑한 교마버스 타요	아이스쿨	뽀로로 범퍼카	아이스쿨
7	말하는 슈퍼소방차	대성토이즈	교마버스 타요 5종 세트	영진
8	KTE 3단 고속열차	아이다	뽀로로 EQIQ 놀이상자 2	지나월드
9	스피드킹 시리즈	진영토이	트랜스포머 범블비	하스브로코리아
10	뽀로로뽀로로 차곡차곡 컵 쌓기	아이존	노래하며 달리는 폴리	오로라월드
순위	승용완구		신생아/영아완구	
1	조코 클래스 자전거	조코조코	다기능 아기체육관	아이존
2	다기능 자전거	넥스트원	발차기 아기체육관	진영토이
3	2012년형 뉴뽀로로 프리미엄 베스트자전거	지나월드	스위트 아일랜드	타이니러브
4	헬로키티 브레이크 쌍쌍	야야토이즈	맨하탄베이비	맨하탄토이
5	교마뽀로로	햇살토이	아기신문지	피플
6	로보카폴리 브레이크 쌍쌍	야야토이즈	친환경 치발기 6종	베이비쥬
7	쑥쑥이자전거	금보토이	치코4in1카	치코
8	멜로디 스프링카	금보토이	걸음마 놀이판	원앤원
9	어린이 전동차	라미야 키즈	타요 다기능 운전놀이	지나월드
10	2012 갤럭시 전동차	헤네스	에듀테이블	코니스
순위	캐릭터/패션인형		스포츠완구	
1	디즈니 베이비돌	디즈니	블레이징틴스 3요요	오로라월드
2	뽀로로 봉제인형	미미월드	바투정품 트럼폴린	-
3	콩순이 이층집	영실업	60인치 접이식 스마일 트럼폴린	-
4	뉴 뽀로로 병원놀이	미미월드	베스트웨이정품 오투기샌드백	오투기
5	똥이의 집	탑프로모션	로보카폴리 농구대	투마
6	똥 드레스룸	탑프로모션	동물모양 편치백	야야토이
7	바비시스터즈	마텔	드림팀 높낮이 농구대	드림토이즈
8	리락쿠마 캐릭터인형	C&H크리에이티브	유아용 트럼폴린	-
9	우리자기 세세	동화토이	어린이전용 초대형 140cm 안전망 트럼폴린	삼성스포텍
10	체리 공주보석함	원앤원	멀티 미니 당구대/포켓볼/탁구대	이레스포츠

* 출처: G마켓 (www.gmarket.co.kr)



완구전문점 <토이저러스>에서 발표한 캐릭터 상품 순위에서는 남아완구에서 ‘또봇 시리즈’, 여아완구로는 ‘미미 시리즈’가 상위권에 올랐고, 유아완구는 ‘뽀로로’, ‘타요’, ‘로보카폴리’ 등이 상위권에 올라있다. 교육완구로는 ‘레고 시리즈’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야외완구 중에서는 ‘2012년형 뉴 스포츠 쿠페2’의 인기가 가장 좋았고 보드게임에서는 ‘덤블링 뽀키’가 1위를 차지했다.

▶ 토이저러스 캐릭터 상품 TOP 10 (5월)

순위	유아완구	여아완구
1	뽀로로주유소	미미디카
2	말하는 중앙 차고지 놀이	미미_나랑함께걷는공주말티
3	피셔 러닝홈(한글)	2807)햄버거 레스토랑
4	타요무선 R/C카	비키 칼라스케치북
5	로보카폴리)폴리매직드럼	영실업 주주요술매니큐어
6	타요)멜로디교마버스 타요	엔젤이_노래하는 교북이
7	로보카폴리)소프트토이(4P)	장난꾸러기 메롱~밀크
8	(BP)4in1 스마트 붕붕카	차밍걸스 스타일북
9	뽀로로어린이버스	불 들어오는 이층집
10	로보카폴리)사운드폴리	토이트론 달님이 뉴 주방놀이세트
순위	남아완구	교육완구
1	또봇트라이탄	레고)뽀파에 스네이크 렉킹볼
2	에블루션또봇X	레고)9446 마스터우의 드래곤전함
3	미라클)DX미라클그랜드	레고)하트레이크동물병원3188
4	또봇Z	올리비아의 집(3315)
5	베이4D)슈퍼컨트롤 vs.디아블로세트	IM)그린프라이데이 기차테이블
6	또봇폭풍스핀타이탄	레고)뽀파에스네이크머신9455
7	또봇Y	콜의 어썰트 바이크(9444)
8	어벤져스)얼티밋 아이언 맨	래틀콕트(9443)
9	프라임 파워라이저	X-윙 스타파이터™ (9443)
10	미라클)DX얼티밋	로보카폴리구조본부플레이세트
순위	야외완구	보드게임
1	2012년형 뉴 스포츠 쿠페2	덤블링뽀키(한글판)
2	스마트 트라이크)쥬 레이디	할리갈리디럭스
3	뉴뽀로로베스트자전거	할리갈리
4	스마트 트라이크)쥬 프로그	부루마블게임
5	스마트 트라이크)쥬 카우 화이트	할리갈리익스트림
6	스마트 트라이크)돌핀 블루	아이스크림 쌓기게임-더블론
7	스마트 트라이크)쥬 버터플라이 핑크	숫!개조심
8	럭셔리레드바이크	아카데미과학 마구야구왕 Dr.K
9	직)AK500조코자전거(레드)	뽀로로자동도미노(3기)
10	직)AK500조코자전거(블루)	하스브로 모노폴리전자카드

* 출처: 토이저러스





09

방송

2012년 5월 채널의 플랫폼별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지상파 채널이 17.4%(점유율 54.8%), 유료채널이 11.5%(점유율 36.23%), 종합편성 채널은 1.49%(점유율 4.69%)를 기록했다. 전체 채널의 시청률 합계는 31.75%, 도달률은 94.6%를 기록했다.

채널별 가구시청률에서는 'KBS1'이 5.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KBS2', 'SBS', 'MBC'의 순으로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EBS를 비롯한 나머지 채널들은 시청률 1% 이하를 기록했으며, 작년 12월 개국한 4개의 종합편성채널(JTBC, MBN, 채널A, TV조선) 중에서는 JTBC가 0.44%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TV조선이 0.28%로 가장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 플랫폼별 평균 가구시청률 (5월)

구분	시청률	점유율	도달율	평균시청시간
지상파채널	17.40%	54.80%	90.75%	4:10:35
종합편성채널(4개)	1.49%	4.69%	42.08%	0:21:27
유료채널(106개)	11.50%	36.23%	74.21%	2:45:39
합 계	31.75%	100.00%	94.60%	7:37:13

* 출처: AGB닐슨미디어리서치

▶▶ 채널별 평균 가구시청률 (5월)

순위	채널	시청률	순위	채널	시청률
1	KBS1	5.14%	13	tvN	0.39%
2	KBS2	4.08%	14	채널A	0.35%
3	SBS	3.96%	15	KBSN스포츠	0.34%
4	MBC	3.36%	16	OCN	0.34%
5	EBS	0.73%	17	Dramax	0.33%
6	YTN	0.59%	18	채널CGV	0.31%
7	SBS플러스	0.49%	19	SBS ESPN	0.30%
8	MBC드라마넷	0.48%	20	TV조선	0.28%
9	KBS드라마	0.47%	21	newsY	0.28%
10	JTBC	0.44%	22	XTM	0.28%
11	MBN	0.43%	23	SUPER ACTION	0.26%
12	MBC SPORTS+	0.39%	24	Tooniverse	0.25%

* 출처: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에서는 상위 20개가 모두 지상파채널 프로그램이었다. 시청률 31.1%를 기록한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1위를 차지했고, MBC드라마 ‘빛과 그림자’가 21.51%로 2위에 올랐다.

인기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10위권 내에서 ‘개그콘서트’, ‘KBS 9시뉴스’, ‘일요일이 좋다’를 제외한 7개의 프로그램이 드라마였고, 상위 20개 프로그램 중에서도 드라마가 12편으로 60%를 점유했다. 예능오락과 시사교양은 각각 3편으로 15%를, 보도 프로그램이 2편으로 10%를 기록했다.

▶▶ 전체 프로그램 가구시청률 TOP 20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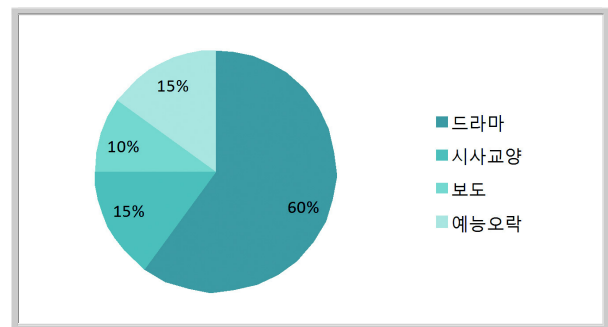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장르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넝쿨째굴러온당신)	드라마	8	31.10
2	MBC	창사특별기획(빛과그림자)	드라마	9	21.51
3	KBS1	일일연속극(당신뿐이야)	드라마	4	21.30
4	KBS2	개그콘서트	예능오락	4	19.97
5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신들의만찬)	드라마	6	19.21
6	KBS1	일일연속극(별도달도따줄게)	드라마	19	17.87
7	KBS1	KBS9시뉴스	보도	32	17.55
8	SBS	일요일이좋다	예능오락	4	15.71
9	SBS	일일드라마(내팔꽃님이)	드라마	14	15.35
10	KBS2	수목드라마(적도의남자)	드라마	8	14.39
11	KBS2	TV소설(복희누나)	드라마	4	14.29
12	KBS1	KBS경영평가결과	시사교양	1	13.80
13	SBS	특별기획(신사의품격)	드라마	2	13.43
14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시사교양	5	12.96
15	KBS2	특별기획드라마(각시탈)	드라마	2	12.54
16	MBC	세바퀴	예능오락	4	12.33
17	SBS	드라마스페셜(옥탑방왕세자)	드라마	8	12.20
18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닥터진)	드라마	2	12.01
19	KBS1	KBS뉴스(18:50)	보도	1	11.88
20	KBS1	러브인아시아	시사교양	4	11.46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 시청률 TOP 20 프로그램 장르별 점유율

장르	2012.5	점유율
드라마	12	60%
시사교양	3	15%
보도	2	10%
예능오락	3	15%

● 시청률 TOP 20 장르별 점유율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5월 유료채널 프로그램 중에서는 JTBC의 주말드라마 ‘인수대비’가 시청률 2.12%로 1위에 올랐다. 이어 Mnet의 ‘더 보이즈 오브 코리아파이널’이 2.06%로 2위를 기록했고, 프로야구의 인기와 함께 KBSN스포츠의 ‘2012프로야구 <생>’이 1.38%로 3위에 올랐다.

유료채널 시청률 상위 20개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구분하면, 드라마가 8편으로 40%의 점유율을 보였고, 보도 프로그램이 4편(20%), 시사교양과 스포츠가 3편(15%), 그리고 예능오락이 2편(10%)을 기록했다.

▶▶ 유료채널 프로그램 가구시청률 TOP 20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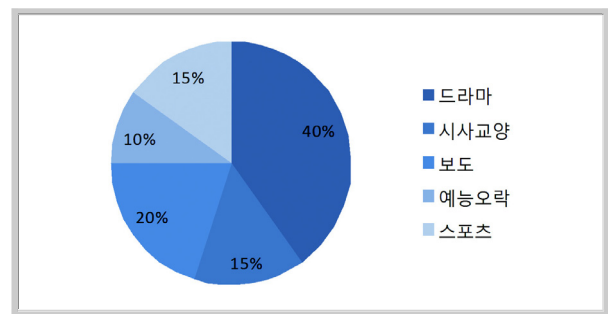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장르	방영횟수	시청률 (%)
1	JTBC	JTBC개국특집주말특별기획(인수대비)	드라마	8	2.12
2	Mnet	더보이스오브코리아파이널	예능오락	1	2.06
3	KBSN스포츠	2012프로야구<생>	스포츠	27	1.38
4	YTN	뉴스출발2부	보도	27	1.37
5	JTBC	월화미니시리즈(해피엔딩)	드라마	9	1.34
6	MBC드라마넷	닥터진	드라마	3	1.33
7	YTN	뉴스출발3부	보도	25	1.33
8	MBC SPORTS+	2012프로야구<생>	스포츠	25	1.31
9	JTBC	닥터의승부	드라마	5	1.24
10	채널A	이영돈PD의먹거리X파일	시사교양	4	1.23
11	JTBC	미각스캔들	시사교양	5	1.22
12	JTBC	수목미니시리즈(러브어게인)	드라마	10	1.20
13	SBS플러스	바보엄마	드라마	7	1.18
14	JTBC	JTBC개국특집주말특별기획(인수대비<재>)	드라마	24	1.13
15	SBS플러스	신사의품격	드라마	2	1.13
16	MBC SPORTS+	2011/2012UEFA챔피언스리그<생>	스포츠	1	1.13
17	Mnet	더보이스오브코리아라이브	예능오락	2	1.12
18	YTN	YTN24(06:00)	보도	4	1.09
19	YTN	YTN24(07:00)	보도	9	1.08
20	채널A	관찰카메라24시간	시사교양	5	1.08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 유료채널 시청률 TOP 20 프로그램 장르별 점유율

장르	2012.5	점유율
드라마	8	40%
시사교양	3	15%
보도	4	20%
예능오락	2	10%
스포츠	3	15%

시청률 TOP 20 장르별 점유율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장르별 프로그램 시청률에서는 KBS2의 '닝쿨째 굴러온 당신'이 드라마 부문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보도 부문에서는 시청률 18.85%를 기록한 'KBS 9시뉴스'가 1위를 기록했다. 오락 부문에선 '개그콘서트'가 19.97%로 떨어지지 않는 높은 인기를 확인했고, 시사교양 부문에서는 SBS의 장수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가 12.96%로 1위를 차지했다.

장르별 프로그램 시청률 (5월)

1. 드라마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닝쿨째굴러온당신)	8	31.10
2	MBC	창사특별기획(빛과그림자)	9	21.50
3	KBS1	일일연속극(당신뿐이야)	4	21.29
4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신들의만찬)	6	19.21
5	KBS1	일일연속극(별도달도따줄게)	19	17.86

2. 보도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1	KBS9시뉴스	32	17.55
2	KBS1	KBS뉴스(18:50)	1	11.88
3	KBS1	KBS뉴스(19:00)	1	9.81
4	KBS1	KBS뉴스7	25	7.87
5	KBS1	KBS뉴스라인	22	7.28

3. 오락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개그콘서트	4	19.97
2	SBS	일요일이 좋다	4	15.71
3	MBC	세바퀴	4	12.33
4	KBS1	전국노래자랑	4	10.84
5	KBS2	불후의명곡	4	10.48

4. 시사교양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SBS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5	12.96
2	KBS1	러브인아시아	4	11.46
3	KBS1	여수세계박람회개막식	1	11.28
4	KBS1	인간극장	23	11.12
5	KBS1	3D의학다큐	2	10.99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성별/연령별 시청률 순위에서는 남녀 모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1위를, '개그콘서트'가 2위를 차지했다. 13~18세 순위에서는 '개그콘서트', '일요일이 좋다'와 같은 개그·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게 나왔고, 19세 이상은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1위를, 60세 이상은 일일연속극 '당신뿐이야'가 1위를 차지했다. 인기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별로는 개인 60세 이상이 높게 나왔다.

▶▶ 성별/연령별 프로그램 시청률 (5월)

1. 남자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넝쿨째굴러온당신)	8	11.54
2	KBS2	개그콘서트	4	10.24
3	MBC	창사특별기획(빛과그림자)	9	7.95
4	KBS1	일일연속극(당신뿐이야)	4	7.28
5	SBS	일요일이좋다	4	7.08

2. 여자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넝쿨째굴러온당신)	8	17.37
2	KBS2	개그콘서트	4	11.39
3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신들의만찬)	6	10.60
4	KBS1	일일연속극(당신뿐이야)	4	9.57
5	MBC	창사특별기획(빛과그림자)	9	9.30

3. 13-18세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개그콘서트	4	12.75
2	SBS	일요일이좋다	4	10.81
3	KBS2	주말연속극(넝쿨째굴러온당신)	8	7.98
4	MBC	수목미니시리즈(더킹2HEARTS)	8	4.04
5	SBS	드라마스페셜(옥탑방왕세자)	8	3.79

4. 개인 19+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넝쿨째굴러온당신)	8	16.05
2	MBC	창사특별기획(빛과그림자)	9	10.32
3	KBS2	개그콘서트	4	10.23
4	KBS1	일일연속극(당신뿐이야)	4	10.15
5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신들의만찬)	6	9.61

5. 개인 60+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1	일일연속극(당신뿐이야)	4	26.29
2	KBS2	주말연속극(넝쿨째굴러온당신)	8	23.83
3	KBS1	일일연속극(별도달도따줄게)	19	22.96
4	KBS1	KBS9시뉴스	32	19.10
5	KBS1	KBS뉴스(18:50)	1	17.52

* 출처: AGB 닐슨미디어리서치



분기별 케이블TV 가입자 현황(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을 보면, 전국적으로 1,4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케이블TV의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아날로그 케이블TV의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7만 명, 경기도가 287만 명을 기록했고, 제주도가 18만 명으로 가장 적은 가입자수를 기록했다.

MSO별 가입자 기준으로는 디지털 가입자 수에서 '씨앤엠(142만)'이, 아날로그 가입자 수는 '티브로드(233만)'가 가장 많았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수치로는 'CJ헬로비전'이 34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 분기별 케이블TV 가입자 현황 (2012년 3월)

1. 지역별 가입자 (대수 기준)

(단위: 천 명)

지역	디지털			아날로그			합계		
	2011.9	2011.12	2012.3	2011.9	2011.12	2012.3	2011.9	2011.12	2012.3
서울	1,559	1,614	1,648	1,460	1,384	1,326	3,019	2,998	2,975
부산	347	362	382	871	849	828	1,218	1,212	1,211
대구	80	88	99	773	766	756	854	854	855
인천	272	285	296	442	420	402	715	706	699
광주	31	36	39	509	507	504	541	544	544
대전	22	21	23	471	499	501	493	521	524
울산	112	117	120	306	304	304	419	421	424
경기	805	845	890	2,118	2,057	1,986	2,923	2,903	2,877
강원	43	64	75	433	418	403	476	483	479
충북	86	90	94	326	321	316	412	411	411
충남	64	71	80	495	487	475	559	559	556
전북	37	40	44	428	423	419	466	463	464
전남	30	37	47	508	489	487	538	527	534
경북	120	128	142	788	780	764	909	909	907
경남	338	356	387	882	870	862	1,220	1,227	1,249
제주	60	62	63	127	125	125	187	188	188
합계	4,013	4,225	4,439	10,944	10,707	10,466	14,957	14,932	14,905
비율	26.8	28.3%	29.8%	73.2%	71.7%	70.2%	100.0%	100.0%	100.0%

*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2. MSO별 가입자 (대수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SO수	디지털			아날로그			합계		
		2011.9	2011.12	2012.3	2011.9	2011.12	2012.3	2011.9	2011.12	2012.3
티브로드	22개사	716	757	809	2,509	2,427	2,338	3,226	3,185	3,147
CJ헬로비전	19개사	1,143	1,197	1,268	2,326	2,249	2,205	3,469	3,446	3,473
씨앤엠	18개사	1,344	1,394	1,427	1,364	1,317	1,271	2,709	2,712	2,699
CMB	9개사	48	51	56	1,268	1,293	1,289	1,316	1,344	1,345
현대HCN	8개사	433	448	469	893	869	842	1,327	1,318	1,311
소계	76개사	3,686	3,850	4,031	8,362	8,157	7,946	12,049	12,007	11,978
개별SO	18개사	326	375	407	2,581	2,549	2,519	2,908	2,924	2,927
합계	94개사	4,013	4,225	4,439	10,944	10,707	10,466	14,957	14,932	14,905

*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10

광고

5월 인터넷 노출형 광고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3개 매체가 75.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3월의 72.5%, 4월의 73.6%에 비해 조금 상승한 수치이다. 이들 3개 매체가 5월에 유치한 광고료는 4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상위 6개 매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1%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 30개 업체가 차지하는 매출규모는 93.8%로 4월의 92.9%에 비해 0.9%p 상승했다.

▶▶ 인터넷 노출형 광고 현황

1. 매체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 TOP 30 (5월)

순위	매체	광고수	캠페인수	브랜드수	점유율	광고비(천원)
1	naver.com	1,094	626	327	32.9%	20,114,139
2	daum.net	1,124	629	312	27.5%	16,849,210
3	nate.com	945	394	186	14.8%	9,071,582
4	kr.yahoo.com	666	286	151	4.8%	2,910,246
5	joinsmsn.com	413	158	106	2.4%	1,495,436
6	chosun.com	392	201	145	1.3%	777,921
7	mk.co.kr	316	111	74	0.9%	559,309
8	donga.com	427	270	201	0.8%	488,586
9	sportsseoul.com	359	181	115	0.6%	373,676
10	maxmovie.com	373	113	65	0.6%	362,504
11	zdnet.co.kr	188	78	55	0.6%	353,399
12	pandora.tv	158	118	94	0.6%	350,299
13	yonhapnews.co.kr	198	160	132	0.5%	286,717
14	etnews.com	140	79	59	0.4%	264,888
15	inven.co.kr	260	59	41	0.4%	243,885
16	dreamwiz.com	278	201	143	0.4%	232,986
17	kbs.co.kr	108	46	32	0.4%	228,662
18	ezday.co.kr	366	157	121	0.4%	220,852
19	khan.co.kr	332	190	144	0.3%	206,715
20	ytn.co.kr	127	70	49	0.3%	205,063
21	hankooki.com	124	55	35	0.3%	189,919
22	paran.com	32	17	14	0.3%	184,131
23	danawa.com	104	68	47	0.3%	173,945
24	pressian.com	199	103	90	0.3%	173,904
25	pullbbang.com	476	258	183	0.3%	173,282
26	dt.co.kr	163	107	88	0.3%	164,269
27	hankyung.com	128	52	44	0.3%	162,724
28	edaily.co.kr	117	40	32	0.3%	160,876
29	sbsgolf.com	117	44	23	0.3%	155,136
30	hani.co.kr	267	192	157	0.2%	152,818
합 계		9,991	5,063	3,265	93.8%	57,287,079

* 출처: 리서치애드(www.researchad.com)



5월 광고주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에서는 ‘삼성’이 약 21억 원을 집행하며 점유율 3.4%로 1위에 올랐다. 현대캐피탈과 이베이코리아, 에이블씨엔씨가 2%대의 점유율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옥션과 G마켓을 소유한 이베이코리아는 광고수와 캠페인 수에서 다른 광고주들을 압도하며 공격적인 인터넷 광고전략을 유지했다.

한편 상위 30대 광고주의 전체광고 점유율은 40.3%, 집행금액은 약 247억 원으로 나타나 4월의 38.4%, 243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2. 광고주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 TOP 30 (5월)

순위	광고주	광고수	캠페인수	점유율	광고비(천원)
1	삼성	122	8	3.4%	2,099,582
2	현대캐피탈	132	24	2.4%	1,489,252
3	이베이코리아	301	141	2.3%	1,394,581
4	에이블씨엔씨	32	2	2.3%	1,393,764
5	현대카드	119	24	1.8%	1,088,295
6	삼성전자	148	39	1.7%	1,032,023
7	아모레퍼시픽	102	18	1.7%	1,021,947
8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37	2	1.6%	974,686
9	네오위즈게임즈	85	29	1.5%	922,840
10	CJEnM픽쳐스	146	35	1.5%	915,712
11	신세계	265	95	1.3%	801,831
12	현대자동차	36	6	1.3%	783,326
13	티켓몬스터	67	53	1.2%	757,740
14	FEDERALEXPRESS	50	4	1.2%	717,656
15	KB국민은행	105	9	1.2%	717,341
16	VISA	18	4	1.1%	697,226
17	LS네트웍스	61	7	1.0%	642,172
18	LG전자	105	18	1.0%	636,257
19	한국도미노피자	50	5	1.0%	624,375
20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51	13	1.0%	608,129
21	UPI코리아	62	9	1.0%	607,459
22	한국손손앤드존슨	56	3	1.0%	585,880
23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63	16	1.0%	585,071
24	삼성화재	26	7	0.9%	573,212
25	SK플래닛	115	49	0.9%	554,699
26	20세기폭스사	68	13	0.9%	521,245
27	넥슨	78	10	0.8%	510,871
28	호주정부관광청	68	11	0.8%	498,571
29	포워드벤처스엘엘씨	73	27	0.8%	479,474
30	한국피앤지	55	8	0.7%	449,780
	합계	2,696	689	40.3%	24,684,997

* 출처: 리서치애드(www.researchad.com)





5월 검색광고 시장에서는 142,500개의 광고주 수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3.0% 감소했다. 매체별 점유율에서는 네이버가 3.4% 증가한 반면 오버추어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오버추어-네이버 공동집행이 11.8%로 2위를 기록했고 다음-네이버 공동집행은 6.8%로 5위를 기록했다. 최근 6개월간 네이버의 점유율은 5.0% 높아지며 광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했고, 네이트의 점유율은 소폭 감소했다. 오버추어는 다른 매체에 비해 월별 변동이 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검색광고 현황

1. 전체 광고주 수

구분	2011.12	2012.1	2012.2	2012.3	2012.4	2012.5	전월대비 증감율
광고주 수	150,300	151,500	137,600	140,100	148,000	142,500	-3.0%

2. 매체별 점유율

구분	2011.12	2012.1	2012.2	2012.3	2012.4	2012.5
네이버	30.8%	30.9%	33.8%	34.6%	32.4%	35.8%
오버추어-네이버	14.2%	14.6%	14.1%	14.0%	14.5%	13.8%
네이트	13.6%	14.2%	12.5%	12.0%	11.2%	11.8%
오버추어	11.5%	10.9%	7.7%	7.8%	12.0%	7.3%
다음-네이버	6.0%	6.0%	6.9%	7.0%	6.3%	6.8%
기타	23.9%	23.4%	25%	24.6%	23.6%	24.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1

지식정보

5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LTE, IPTV 서비스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3대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LTE 서비스는 변동폭이 매우 크다. 5월 SKT가 290만 명, LG U+가 226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뒤늦게 서비스를 시작한 KT가 전월 대비 59.7%의 증가율을 보이며 92만 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하면서 LTE 가입자가 총 600만 명이 넘었다. 한편 LTE 가입자의 증가와 맞물려 CDMA와 WCDMA 서비스의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1. 주요 서비스 가입자 현황 (종합)

(단위 : 천 명)

구분	2005. 12	2006. 12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5
시내전화	22,920	23,119	23,130	22,131	20,089	19,273	18,632	18,497
이동전화	38,342	40,197	43,497	45,606	47,944	50,767	52,506	52,869
IPTV (VOD 가입자 포함)	-	-	-	1,592	2,373	3,659	4,935	5,561
휴대인터넷 (WiBRO)	-	0.9	39	167	316	466	799	938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 가입자 통계 현황>

2.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기술방식별)

(단위 : 명)

구분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5월 가입현황		2012. 5
						증감	증감율	
SKT	CDMA	6,646,324	6,442,711	6,288,478	6,122,264	-161,244	-2.6%	5,961,020
	WCDMA	18,922,532	18,767,412	18,501,345	18,083,172	-342,198	-1.9%	17,740,974
	LTE	1,002,642	1,336,753	1,766,325	2,380,880	528,084	22.2%	2,908,964
	WiBro	55,589	61,057	64,290	62,165	-2,059	-3.3%	60,106
KT	CDMA	44,220	29,721	23,209	21,090	-1,164	-5.5%	19,926
	WCDMA	16,464,241	16,377,705	16,224,641	15,922,401	-385,975	-2.4%	15,536,426
	LTE	111,929	232,434	350,921	580,319	346,286	59.7%	926,605
	WiBro	786,409	806,205	835,981	847,132	30,631	3.6%	877,763
LGU+	CDMA	8,577,396	8,326,120	8,069,790	7,788,118	-281,345	-3.6%	7,506,773
	LTE	849,275	1,153,894	1,484,375	1,889,274	379,190	20.1%	2,268,464
합 계		53,460,557	53,534,012	53,609,355	53,696,815	110,206	0.2%	53,807,021

* DBDM 단말기 가입자는 상위 기술방식으로 분류

* WCDMA 진화형인 HSDPA, HSUPA, HSPA+는 WCDMA 가입자 수에 포함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Kocca 재구성





4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는 정체된 상태이다. 반면에 IPTV는 지난 1월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5월 기준 556만 명으로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가입자 역시 각각 전월대비 3.6%, 5.2%의 무난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5월 기준 2천750만 명을 넘어 이미 대증적으로 보편화되었다. 반면 태블릿PC 가입자는 2011년 기준 52만 명을 돌파한 이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마트폰 가입자 4명 중 1명이 태블릿도 구매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듯이, 스마트기기 이용의 확장과 더불어 태블릿PC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2009.12	2010.6	2010.12	2011.6	2011.12	2012.1	2012.2	2012.3	2012.4	2012.5
KT	6,952	7,188	7,423	7,188	7,822	7,845	7,881	7,921	7,935	
SK브로드밴드	3,846	3,798	3,599	3,798	3,293	3,259	3,237	3,216	3,196	
SKT(재판매)	-	110	402	110	898	941	982	1,024	1,062	
LG U+	2,521	2,640	2,773	2,640	2,809	2,794	2,783	2,765	2,755	
종합 유선	2,810	2,832	2,826	2,832	2,857	2,857	2,857	2,857	2,857	
기 타	216	218	198	218	177	177	177	177	177	1,77
합 계	16,348	16,789	17,224	16,789	17,859	17,876	17,919	17,963	17,985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KOCCA 재구성

4. IPTV 가입자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2009.12	2010.6	2010.12	2011.6	2011.12	2012.1	2012.2	2012.3	2012.4	2012.5
olleh tv (KT)	1,174 (1,009)	1,571 (1,184)	2,085 (1,727)	2,622 (2,308)	3,076 (2,810)	3,147 (2,885)	3,231 (2,976)	3,316 (3,067)	3,406 (3,162)	3,484 (3,245)
BTV (SK)	856 (402)	898 (574)	948 (735)	911 (756)	982 (883)	1,004 (912)	1,032 (947)	1,067 (987)	1,105 (1,031)	1,145 (1,076)
U+TV (LG)	344 (330)	460 (457)	627 (624)	763 (761)	878 (877)	888 (886)	898 (896)	905 (904)	916 (915)	932 (931)
합 계	2,374 (1,741)	2,929 (2,215)	3,660 (3,086)	4,296 (3,825)	4,936 (4,570)	5,039 (4,683)	5,161 (4,819)	5,288 (4,958)	5,427 (5,108)	5,561 (5,252)

* 5월말 기준, 괄호 안은 실시간 채널 가입자

* 출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5. 스마트폰 / 태블릿PC 가입자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2012.1	2012.2	2012.3	2012.4	5월 가입현황		2012.5
						증감 (명)	증감율	
스마트폰	SKT	11,639	12,126	12,574	12,995	408,737	3.1%	13,404
	KT	8,022	8,317	8,537	8,709	261,387	3.0%	8,971
	LGU+	4,101	4,350	4,607	4,903	280,428	5.7%	5,183
	합 계	23,763	24,794	25,718	26,607	950,552	3.6%	27,558
태블릿PC	SKT	229	240	248	257	16,463	6.4%	274
	KT	311	315	318	325	13,233	4.1%	339
	LGU+	10	14	13	13	1,489	11.1%	15
	합 계	550	570	579	597	31,185	5.2%	628

* 음성통화가 가능하며 범용OS를 장착한 단말기(Tablet PC 제외)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KOCCA 재구성



5월 국내 인터넷 도메인별 웹사이트 순위는 네이버가 순방문자수 3,10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다음과 티스토리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매일 실시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과 이슈를 다루는 언론사 사이트에 대한 방문이 많았으며, 옥션(9위), G마켓(10위), 11번가(12위) 등 온라인 쇼핑몰도 이용자들이 많이 접속하여 상위에 랭크되었다.

▶ 도메인별 웹사이트 순위 TOP 15 (5월)

순위	전월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⁶⁾	도달률 ⁷⁾ (%)	월평균 체류시간 ⁸⁾ (분)	월평균 재방문일수 ⁹⁾ (일)	월평균 페이지뷰 ¹⁰⁾ (횟수)	순방문자 증감률 (%)
1	1	naver.com	31,035,975	96.49	371.64	13.49	700.57	0.13
2	2	daum.net	28,173,105	87.59	258.53	10.29	482.26	1.25
3	3	tistory.com	20,054,823	62.35	11.39	3.53	11.33	2.24
4	4	nate.com	19,794,023	61.54	112.62	7.75	175.40	2.17
5	5	cyworld.com	17,377,755	54.03	33.84	5.14	91.55	0.11
6	6	mk.co.kr	16,584,584	51.56	9.59	3.90	9.89	-0.07
7	7	chosun.com	16,256,134	50.54	17.85	4.25	19.88	1.17
8	8	joinsmsn.com	15,471,327	48.10	14.56	3.85	31.09	2.38
9	10	auction.co.kr	15,275,928	47.49	57.93	4.24	121.22	3.61
10	9	gmarket.co.kr	15,271,092	47.48	46.90	4.14	89.86	2.13
11	14	hankyung.com	14,413,903	44.81	7.22	3.10	6.88	5.37
12	11	11st.co.kr	14,357,650	44.64	30.39	3.55	47.40	2.98
13	15	mt.co.kr	14,165,980	44.04	8.04	3.28	6.94	3.72
14	13	hankooki.com	13,922,856	43.29	9.71	3.40	8.84	1.42
15	12	donga.com	13,840,714	43.03	11.45	3.24	15.42	-0.33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6) 순방문자: 해당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적어도 1번 이상 방문한 이용자
 7) 도달률: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 대비 순방문자수의 비율
 8) 평균체류시간: 측정기간 중 순방문자 1인당 발생시킨 체류시간의 평균을 의미
 9) 평균재방문일수: 측정기간 중 해당사이트에 방문한 순방문자 1인당 평균 재방문한 일의 수
 10) 평균페이지뷰: 측정기간 중 해당사이트에 방문한 순방문자 1인당 조회한 평균 페이지 조회수





5월 주요 서비스별 웹사이트 순위는 상위 3개 서비스(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용행태가 나타났다. 시간점유율 기준으로 상위 3개 서비스에 대한 이용율은 전체 검색 서비스의 95.95%, 커뮤니티 서비스의 96.97%, 이메일 서비스의 85.1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은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일상적인 매개체로서 활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 주요 서비스별 웹사이트 순위 (5월)

1. 검색 서비스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성장률(%)
1	naver.com	28,831,464	89.63	79.27	10.78	77.05	1.17
2	daum.net	19,270,695	59.91	24.28	7.24	15.77	-0.89
3	nate.com	11,993,994	37.29	6.41	3.18	2.59	8.46
4	google.co.kr	7,611,338	23.66	12.18	3.56	3.13	16.4
5	yahoo.co.kr	4,314,900	13.41	3.43	2.46	0.5	0.47
6	zum.com	2,873,594	8.93	2.7	2.44	0.26	26.14
7	google.com	1,697,489	5.28	8.53	3.04	0.49	13.31
8	dreamwiz.com	1,264,910	3.93	1.72	1.27	0.07	6.07

2. 커뮤니티 서비스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성장률(%)
1	naver.com	28,100,998	87.36	120.52	8.55	56.13	0.47
2	daum.net	23,395,191	72.73	86.82	6.28	33.67	1.05
3	cyworld.com	11,604,972	36.08	37.27	4.28	7.17	-0.95
4	google.com	3,244,003	10.09	3.26	1.94	0.18	7.95
5	paran.com	2,907,318	9.04	1.96	1.34	0.09	0.45
6	yahoo.co.kr	2,679,298	8.33	5.85	1.85	0.26	-10.86
7	joinsmsn.com	1,237,816	3.85	4.63	1.35	0.09	13.9
8	nate.com	760,340	2.36	160.6	6.27	2.02	-19.2
9	dreamwiz.com	532,374	1.66	5.97	1.62	0.05	14.97
10	chol.com	417,853	1.3	0.85	1.12	0.01	33.85

3. 이메일 서비스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도달률(%)	월평균체류시간(분)	월평균재방문일수(일)	시간점유율(%)	성장률(%)
1	naver.com	17,845,347	55.48	40.02	6.37	28.69	0.5
2	daum.net	16,488,893	51.26	56.23	6.89	37.25	3.26
3	nate.com	11,838,747	36.81	40.41	6.06	19.22	-0.66
4	paran.com	2,551,865	7.93	62.44	6.39	6.4	0.73
5	google.com	1,953,428	6.07	33.97	3.79	2.67	-1.83
6	live.com	1,000,427	3.11	45.99	6.42	1.85	1.21
7	yahoo.co.kr	942,011	2.93	22.56	4.71	0.85	3.46
8	korea.com	768,475	2.39	56.37	7.12	1.74	2.43
9	dreamwiz.com	643,016	2	47.56	5.91	1.23	-7.56
10	chol.com	205,456	0.64	4.54	5.06	0.04	16.87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5월 주제별 웹사이트 순위에서는 <뉴스·미디어 분야>와 <쇼핑·경매 분야>의 사이트들이 비교적 높은 순방문자수를 기록했다. 매일경제, 조선닷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뉴스 사이트들이 40% 이상의 도달률을 보였고, 쇼핑·경매 사이트인 옥션, G마켓, 11번가 역시 40% 중후반대의 도달률을 기록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유튜브가 전체 인터넷이용자 중 27.2%의 도달률을 기록하여 타사이트를 압도했고, <게임 분야>에서는 넥슨에 이어 위게임즈가 373만 여명의 접속자수로 2위를 기록했다. 위게임즈는 맞고, 고스톱, 바둑, 포커 등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메이저 게임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 주제별 웹사이트 순위 TOP 5 (5월)

1. 뉴스·미디어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천 명)	도달률(%)
1	www.mk.co.kr	16,585	51.56
2	www.chosun.com	16,256	50.54
3	www.hankyung.com	14,414	44.81
4	www.mt.co.kr	14,166	44.04
5	www.hankooki.com	13,923	43.29

2. 쇼핑·경매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천 명)	도달률 (%)
1	www.auction.co.kr	15,276	47.49
2	www.gmarket.co.kr	15,271	47.48
3	www.11st.co.kr	14,358	44.64
4	www.interpark.com	8,913	27.71
5	www.coupang.com	8,103	25.19

3. 엔터테인먼트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천 명)	도달률(%)
1	www.youtube.com	8,749	27.2
2	www.pandora.tv	4,936	15.35
3	www.gomtv.com	4,935	15.34
4	www.cgv.co.kr	3,429	10.66
5	www.moviejoy.com	2,559	7.96

4. 게임

순위	도메인	순방문자 (천 명)	도달률(%)
1	www.nexon.com	4,216	13.11
2	www.wegames.net	3,732	11.6
3	www.pmang.com	3,114	9.68
4	www.hangame.com	2,739	8.52
5	www.battle.net	2,496	7.76

* 본 데이터는 패널로 선출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적 추정치로써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출처: 님스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5월 전체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은 전월 대비 3.6% 증가했다. 4월 대비 5월의 월간 일수 증가로 인해 7~12세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활동성이 상승했고, 중간고사 일정 종료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발생한 휴일의 영향으로 가용시간이 증가한 13~18세 학생층의 평균 이용시간이 12.8%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특히 25~29세가 5월 평균 2,567분(하루 평균 1시간 40분)으로 인터넷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월간 평균 방문사이트 개수는 전월 대비 4.0% 증가한 70.9개로 조사되었다.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13~18세 연령층의 웹사이트 방문 개수는 전월 대비 8.0% 증가한 46.2개로 나타났으며, 19~24세와 35~39세 연령층도 7.0% 내외로 크게 상승했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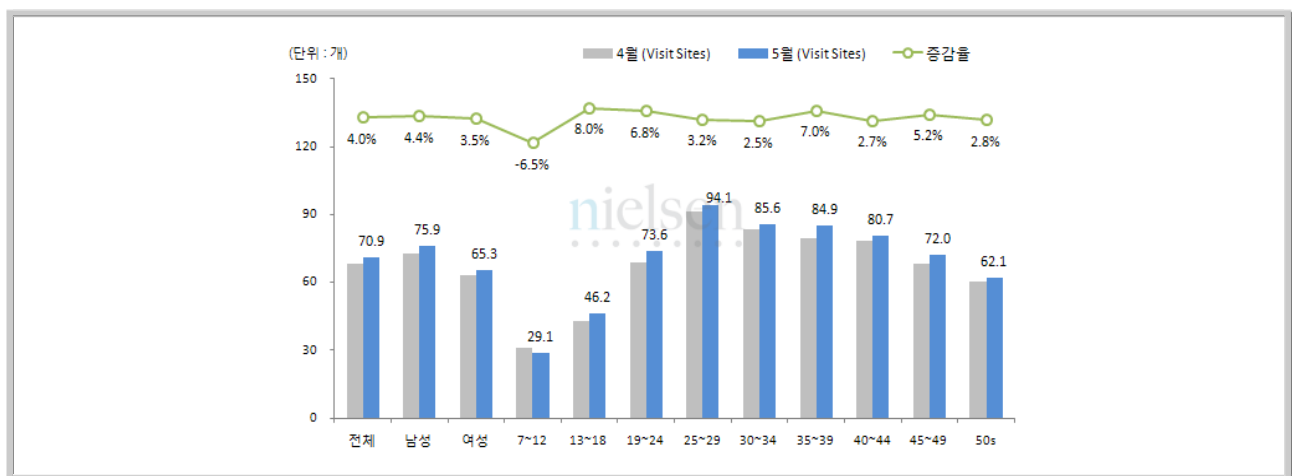
1. 연령별 인터넷 이용시간 (2012.1 ~ 2012.5)

(단위 : 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7~12	13~18	19~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s
1월 평균	1,957	2,108	1,782	801	1,379	1,747	2,643	2,392	2,393	2,354	1,933	1,814
2월 평균	1,946	2,116	1,749	708	1,340	1,613	2,623	2,372	2,533	2,329	1,907	1,882
3월 평균	1,910	2,085	1,708	679	923	1,531	2,707	2,408	2,539	2,382	1,915	1,908
4월 평균	1,891	2,016	1,750	655	884	1,652	2,513	2,460	2,317	2,380	1,988	1,791
5월 평균	1,959	2,105	1,793	588	997	1,736	2,567	2,463	2,442	2,478	2,170	1,808

2. 연령별 웹사이트 방문개수 (2012.5)

연령	순방문자	순방문자비중(%)	방문사이트수	인터넷이용일수	평균페이지뷰	평균체류시간(분)
7~12	2,440,456	7.59	29.05	11.73	1,167.93	587.66
13~18	3,492,621	10.86	46.23	13.17	2,151.25	996.64
19~24	3,654,434	11.36	73.58	15.80	3,617.49	1,735.92
25~29	3,187,465	9.91	94.08	18.01	5,160.76	2,566.91
30~34	3,760,020	11.69	85.63	18.29	4,863.96	2,462.96
35~39	3,707,058	11.53	84.86	19.04	4,684.24	2,441.79
40~44	3,829,068	11.90	80.66	18.74	4,668.11	2,477.83
45~49	3,135,314	9.75	71.98	17.58	3,981.82	2,170.12
50~	4,958,593	15.42	62.13	16.42	3,238.22	1,808.16
전체	32,165,029	100.00	70.89	16.71	3,796.13	1,959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5월의 인터넷 동향>



5월의 애플리케이션 순위를 살펴보면,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재생 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2P 분야>에서는 영화, 음악, 유틸리티 등의 불법 다운로드에 주로 이용되는 ‘uTorrent’의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분야>에서는 ‘스타크래프트’ 이용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15일 발매된 ‘디아블로3’는 월간 통계 기준으로는 7위에 그쳤지만 발매 이후 주간 이용자수에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알툴스의 ‘알집’과 ‘알씨’, 어도비의 ‘어크로벳리더’가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 애플리케이션 종류별 TOP 5 (5월)

1. 멀티미디어

순위	공급자	애플리케이션	순이용자	도달률(%)	월평균이용시간 (분)	평균재방문 일수(일)	전월 대비 성장률(%)	일평균 이용자
1	Gomtv	Goplayer	13,880,642	43.15	620.47	5.96	1.82	2,652,605
2	Microsoft	Windows mediaplayer	7,429,038	23.10	225.35	2.83	0.19	661,714
3	Gomtv	Gomaudio	3,533,909	10.99	649.58	3.99	-0.99	446,781
4	Apple	iTunes	3,064,054	9.53	578.90	4.31	1.02	422,881
5	Altools	Alsong	2,933,198	9.12	1,026.47	4.64	2.71	449,215

2. P2P

순위	공급자	애플리케이션	순이용자	도달률(%)	월평균이용시간 (분)	평균재방문 일수(일)	전월 대비 성장률(%)	일평균 이용자
1	Utorrent	uTorrent	6,253,270	19.44	2,421.34	8.11	8.14	1,642,364
2	Naver	N드라이브	1,184,735	3.68	5,479.76	11.80	0.46	456,854
3	Olleh	ucloud매니저	555,137	1.73	6,494.35	13.15	-2.44	232,590
4	Sharebox	ShareBox	502,060	1.56	220.12	3.33	11.78	51,400
5	Fileguri	파일구리	416,695	1.30	696.18	4.56	-5.47	59,658

3. 게임

순위	공급자	애플리케이션	순이용자	도달률(%)	월평균이용시간 (분)	평균재방문 일수(일)	전월 대비 성장률(%)	일평균 이용자
1	Hanbitsoft	Starcraft	1,300,517	4.04	495.91	4.85	-7.62	207,204
2	Nexon	MapleStory	1,187,397	3.69	553.64	4.68	50.44	170,963
3	RIOTGAMES	LeagueOfLegends	1,105,357	3.44	1,152.10	7.03	26.71	241,302
4	Pmang	FIFA Online2	834,672	2.59	598.37	6.13	-0.27	155,442
5	Pmang	Pmang 뉴맞고	815,259	2.53	752.90	8.88	0.18	216,678

4. 기타

순위	공급자	애플리케이션	순이용자	도달률(%)	월평균이용시간 (분)	평균재방문 일수(일)	전월 대비 성장률(%)	일평균 이용자
1	Altools	Alzip	12,741,215	39.61	89.74	3.09	1.45	1,253,345
2	Adobe	Adobe Acrobat Reader	12,166,582	37.82	412.98	4.45	2.55	1,736,903
3	Altools	Alsee	6,918,400	21.51	269.76	4.66	2.35	1,018,931
4	Live	Sidebar Gadgets	2,300,929	7.15	4,611.07	13.08	-5.24	953,184
5	Daum	PotEncoder	1,790,317	5.57	416.65	3.15	22.29	178,245

* 출처: 닐슨 코리아클릭 (www.koreanclick.com)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애플리케이션 순위에서는 한국 개발사인 JCE의 모바일 소셜 게임인 ‘룰 더 스카이’가 <앱 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매출 기준 1위를 기록했다(한국 이용자 기준). 유료 애플리케이션 순위에서는 일반 애플리케이션보다는 게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티스토어>에서는 영상 콘텐츠가 애플리케이션보다 많은 다운로드수를 기록했다. 순위에서는 ‘은교’가 1위를 차지했고, ‘유령’과 ‘건축학개론’, ‘화차’, ‘각시탈’이 10위 안에 들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OP 10

순위	아이폰			아이패드		
	유료	무료	매출	유료	무료	매출
1	Mad Acorn	OneTouch Voice Memos	Rule the Sky	Hancom Office Hanword	DvO HD	Rule the Sky for iPad
2	Project 83113	UniqBoard (Sticky board)	Tiny Farm	AV Player HD	Super Tank Battle(HD)	Hancom Office Hanword
3	Palm Reading Booth	[야구중계] 생스포츠중계	컴투스프로야구2012 PLUS	Mad Acorn	Snapseed	Tiny Farm®
4	Dungeon Village	불스나인	풍운삼국	ReplayHD Pro	ucloud for iPad (유클라우드)	Polaris Office
5	DOOO-To do	DvO	컴투스프로야구 2012	Radio Alarm Clock HD	Duel of Fate	Smurfs' Village
6	성인동화 백설공주 (snowwhite)	카톡 프로필 사진크기 한방에!	MelOn	Polaris Office	Supercross Pro	MAXIM KOREA HD
7	컴투스프로야구2012 PLUS	피임대백과사전	Ragnarok(Uprising: Valkyrie)	Virtua Tennis Challenge	Heroes Call	퐁! 인기동요·동화
8	토마토 토익 보카 트레이너	Palm Reading Booth	박스 -무제한 다운로드	Awesome Note HD (+To-do/Claendar)	Mega Run-Redford's Adventure	손바닥삼국지 HD
9	팔라독(Paladog)	Timing Wolf -The exquistie	Monster Warz	UPAD	Puzzle Man Pro	AV Player HD
10	While You Were Sleeping!	Fruit Rush	휴대폰인증서비스	iPhoto	고급유머	keynote

순위	Play 스토어			티스토어	
	유료	무료	매출	유료	무료
1	Paladog	KakaoTalk	Rule the Sky	[영화]은교	이노티아 4
2	Super Speed [OptimizationPatch]	Street View on Google Maps	Tiny Farm	드래곤나이트4	T freemium
3	Where's My Water?	Voice Search	Cartoon Wars 2	Winning Eleven 2012	카카오톡
4	Asphalt 6:Adrenaline	KakaoStory	컴투스프로야구2012	이노티아4 Plus	카톡스케치 : 손글씨, 손그림
5	스펙트럴소울즈 (Spectral Souls)	Adobe Flash Plater 11	프런트라인 코만도	유령	T map 3.2
6	Poweramp Full Version Unlocker	Gmail	Smurfs' Village	건축학개론	스마트청구서
7	Minecraft - Pocket Edition	Maps	Paladog	레전드오브마스터3	에르엘워즈2
8	Here She Comes -Sexy Guide	Kies air	Temple Run	메이플스토리Live	얼굴인식관상보기
9	Paper Camera	Cartoon Wars 2	Cartoon Wars	화차	앵그리 নিজ자
10	Beautiful Widgets	Google Search	Defender II	각시탈	모바일 T world

* 출처: 앱애니, 티스토어 (2012. 6. 7. 기준)



2012년 6월 7일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에는 65만 여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47.6%의 앱이 무료이며, 유료인 경우에도 3달러 미만인 경우보다 3배 이상 많다. 애플리케이션의 평균 가격은 1.87달러를 기록했고, 5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139여개의 게임과 805개의 비게임 애플리케이션이 제출되고 있다. 카테고리별로는 게임(17.5%), 교육(9.9%), 엔터테인먼트(9.8%), 도서(9.8%), 라이프스타일(8.4%), 유틸리티(6.0%), 여행 관련 앱(5.0%)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애플 앱스토어 현황 (2012. 6. 7.)

1. APP. 등록 현황

구분	개수
총 활성 앱 (현재 다운로드 가능)	657,575
총 비활성 앱 (더이상 다운로드 불가능)	184,240
미국 앱스토어 누적 앱	841,815
미국 앱스토어 활동 제작자수	163,909

2. APP. 가격 분포

구분	개수
무료	314,065 (47.6%)
\$ 0.99	165,944 (25.2%)
\$ 1.99	68,810 (10.4%)
\$ 2.99	33,069 (5.0%)
기타	75,686(11.5%)

3. APP. 평균 가격

구분	가격
평균 앱 가격	\$ 1.99
평균 게임 가격	\$ 1.05
전체 평균 가격	\$ 1.87

4. APP. 일별 제출 현황 (5월)

구분	개수
게임	4,174 (139 / 1일)
비게임	24,963 (805 / 1일)
전체	29,137 (940 / 1일)

5. 카테고리별 등록 APP. 현황

구분	개수	구분	개수
게임	115,236 (17.52%)	뉴스	17,651 (2.68%)
교육	65,319 (9.93%)	생산성	17,396 (2.65%)
엔터테인먼트	64,733 (9.84%)	건강 & 운동	16,241 (2.47%)
도서	64,503 (9.81%)	사진	14,625 (2.22%)
라이프스타일	55,825 (8.49%)	금융	13,987 (2.13%)
유틸리티	39,630 (6.03%)	의료	12,884 (1.96%)
여행	33,277 (5.06%)	소셜 네트워킹	12,625 (1.92%)
비즈니스	32,896 (5.00%)	네비게이션	10,061 (1.53%)
음악	25,775 (3.92%)	날씨	2,774 (0.42%)
레퍼런스	22,340 (3.40%)	기타	1,146 (0.18%)
스포츠	18,651 (2.84%)	합계	675,575 (100.00%)

* 2012. 6. 7. 기준
* 출처: 148Apps.biz (http://148apps.biz)



02

콘텐츠 통계 브리핑





KOCCA 통계브리핑
제12-01호(국내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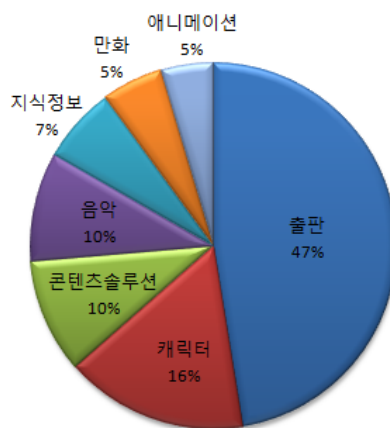
Statistics
Briefing

국내 콘텐츠산업 라이선싱 매출 2조 6천억원 시장으로 급성장

박 성 원(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콘텐츠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다는 것과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라이선싱과 머천다이징이다.¹¹⁾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토종 캐릭터 “뿌까”가 있다. 뿌까는 2000년 탄생한 후 의류, 액세서리, 신발, 가방 등 캐릭터 라이선싱을 통해 3~10% 로열티를 받으며 성장하였는데, 현재까지 월트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베네통 등 500여개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제휴를 통해 약 150여 개 국가에 약 3,000종의 상품을 진출시켰다. 그 결과 뿌까 상품의 해외매출은 2009년 기준 5,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캐릭터 라이선싱 업계에 성공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그림 1]에 따르면, 국내 주요 콘텐츠산업의 라이선싱 매출액(2010년 기준)은 약 2조 5,603억 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출판산업 1조 2,138억 원(47.4%), 만화산업 1,389억 원(5.4%), 음악산업 2,467억 원(9.6%), 애니메이션산업 1,173억 원(4.6%), 캐릭터산업 4,120억 원(16.1%), 지식정보산업 1,725억 원(6.7%), 콘텐츠솔루션산업 2,587억 원(10.1%) 등 매출규모에서 라이선싱 매출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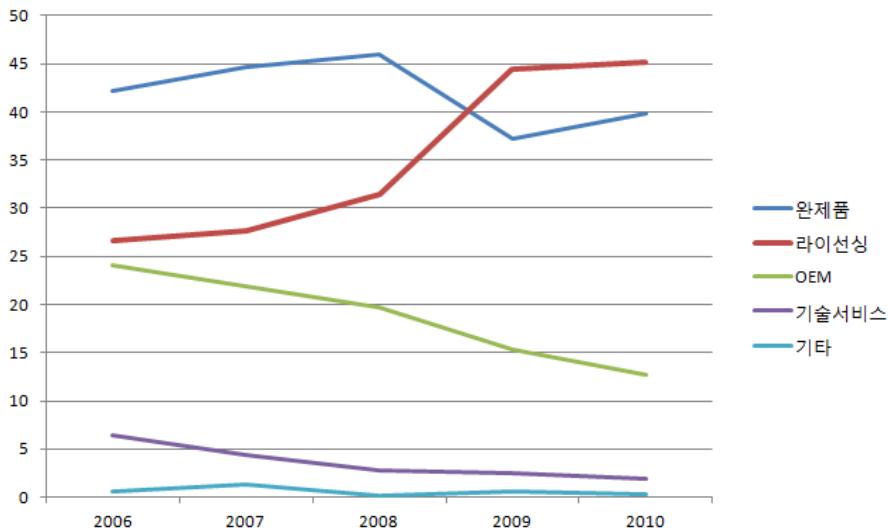


[그림 1] 2010년 주요 콘텐츠산업별 라이선싱 매출액 비중

11) 라이선싱(Licensing)은 라이선서(Licensor)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로고, 캐릭터, 디자인 등 재산권을 제품화 또는 홍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시(Licensee)에게 허가 또는 권리를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와의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서 특정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할 수 있고 그 보상으로 라이선서에게 로열티(Royalty)를 지급한다. 이때 콘텐츠 상품을 제작, 유통, 판매하는 상품화 과정을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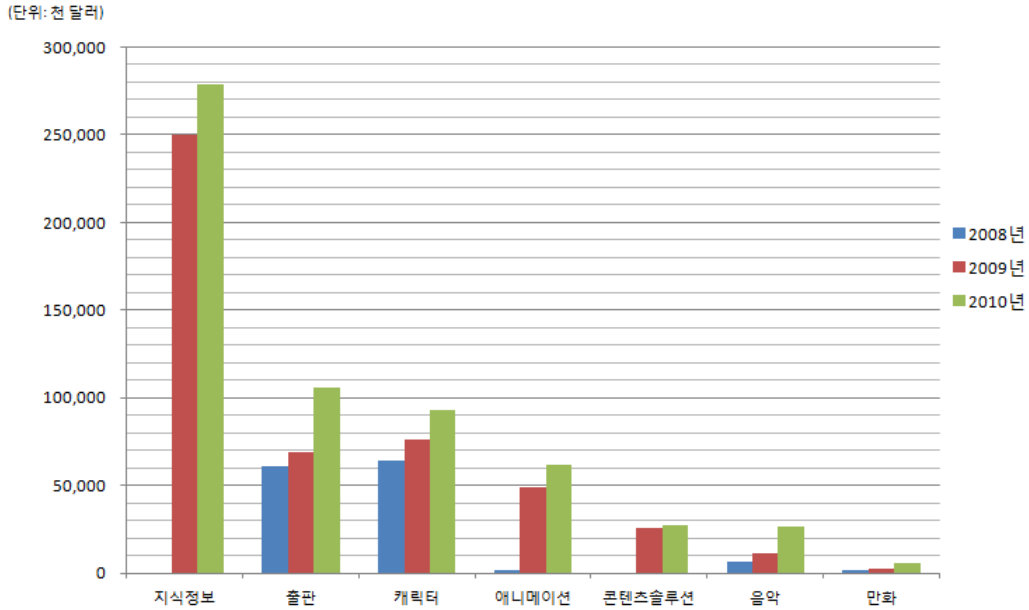
특히 [그림 2]에 따르면, 국내 주요 콘텐츠산업의 라이선싱 매출 중 해외 라이선싱 규모는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46%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 해외 수출형태로 완제품 수출 39.9%, OEM 수출 12.7%, 기술서비스 수출 1.9%, 기타 수출 0.3%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수출형태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속적으로 라이선싱 수출 비중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8년까지는 콘텐츠 상품(완제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9년부터는 라이선싱(계약) 수출이 완제품 수출 비중을 초과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2006년-2010년 연도별 수출형태별 수출액 비중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콘텐츠산업의 라이선싱 수출액 중 가장 큰 규모는 2억 7,900만 달러의 라이선싱 수출실적을 거둔 지식정보산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출판산업 1억 599만 달러, 캐릭터산업 9,284만 달러, 애니메이션산업 6,177만 달러, 콘텐츠솔루션산업 2,760만 달러, 음악산업 2,614만 달러, 만화산업 699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대비 2010년 수출액 비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산업은 음악산업인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대중가요(K-POP)의 해외진출 확대로 음악산업에서 라이선스를 통한 수출액 비중이 전년대비 124.2%로 나타났다. 일례로, 가장 최근에 상장한 YG엔터테인먼트는 K-POP의 한류효과로 인해 매출액 781억원, 영업이익 173억원, 영업이익률 22.2%라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더 중요한건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2012년 1,371억원과 336억원, 2013년 1,668억원과 432억원으로 예상되어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라이선싱 비즈니스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크게 전년대비 수출액 비중이 확대된 산업은 만화산업으로 113.4%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출판산업 53.6%, 캐릭터산업 22.3%, 지식정보산업 11.8%, 그리고 콘텐츠솔루션산업 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2008년-2010년 콘텐츠 산업별 라이선싱 수출액

미국의 핵심저작권산업이나 일본의 콘텐츠산업, 영국의 창조산업 모두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콘텐츠 라이선싱과 머천다이징을 통해 세계 콘텐츠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콘텐츠 제작 능력과 질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브랜딩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콘텐츠사업체(라이선서)가 상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다른 사업체(라이선시)와 제휴를 하고자 한다거나, 출판물로 제작된 콘텐츠를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로 제작하고 출판물 내 등장인물을 캐릭터로 제작하여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산업으로 확장을 추구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비즈니스는 이제 누군가 하는 선택이 아닌 모두가 하는 필수가 되었다.



KOCCA 통계브리핑
제12-02호(국내편)



Statistics
Briefing

국내 콘텐츠산업 상장사의 경영실적 진단

김 은 정(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불을 타고 대형 통신사들이 콘텐츠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상장이 붓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2008년~2009년 게임산업의 높은 성장과 함께 게임업체들의 상장 러시가 이어졌고, 2010년~2011년 대중가요(K-POP)로 신 한류 불이 일면서 YG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는 등 그야말로 '엔터주' 열풍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상장사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경영실적을 진단하고자 한다. 기업의 자산 상태와 영업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콘텐츠 상장사의 경우 전체 콘텐츠산업 규모의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먼저 최근 3년간(2009~2011년)의 국내 콘텐츠 상장사의 재무제표 변화 추이를 보면,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11년 기준 전체 상장사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15.62%를 기록하고 있다.

'11년 전체 상장사 중 콘텐츠 상장사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약 1.7%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체 상장사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한데 반해 콘텐츠 상장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콘텐츠산업 14.4% vs 전체 상장사 -14.6%).

〈표 1〉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 상장사 비교('09년~'11년)

(단위: 억원, %, %p)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0년 전년대비	2011년 전년대비
매출액*	콘텐츠 상장사 ¹⁾	115,012.3	161,672.20	193,180.00	40.6%	19.5%
	전체 상장사 ²⁾	8,204,204.0	9,912,054.00	11,071,851.00	20.8%	11.7%
	비중	1.4%	1.63%	1.74%	0.23%p	0.11%p
영업이익**	콘텐츠 상장사	22,887.90	26,365.30	30,171.20	16.7%	14.4%
	전체 상장사	511,263.00	763,692.00	652,180.00	49.4%	△14.6%
	비중	4.48%	3.45%	4.63%	△1.03%p	1.18%p
영업이익률***	콘텐츠 상장사	19.90%	16.31%	15.62%	△3.59%p	△0.69%p
	전체 상장사	6.23%	7.70%	5.89%	1.47%p	△1.81%p

1) 콘텐츠 상장사는 2011년 기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중 관련업체 86개를 선별(게임 20개, 지식정보 7개, 출판 9개, 방송 22개, 광고 4개, 영화 8개, 음악 11개, 애니메이션/캐릭터 5개). 2009년~2011년 신규 상장 및 폐지 등으로 업체수 변동됨
 2) 전체 상장사 자료는 한국거래소의 분석 자료 인용(2011년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2월 결산법인 668사 중 분석제외법인 52개사를 제외한 616개사 대상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추계됨(출처 : 2012년 4월 보도자료, 한국거래소 www.krx.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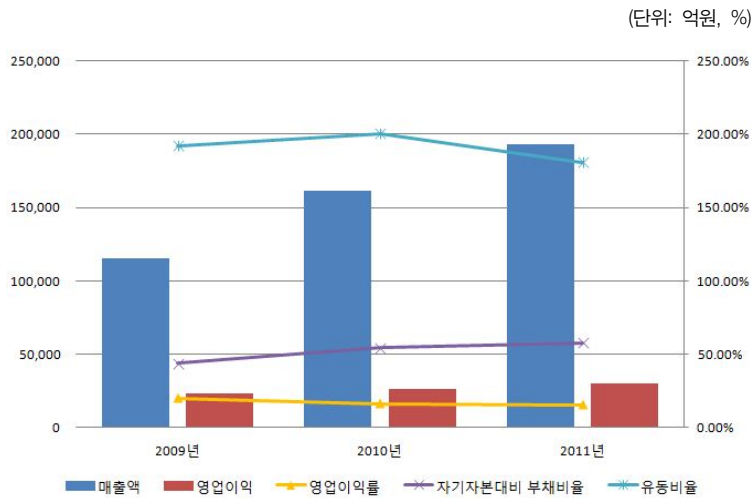
〈표 2〉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 상장사의 자기자본 부채비율 비교('09년~'11년)

(단위 : %)

구분	콘텐츠 상장사			전체 상장사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채비율 ¹⁾	43.7%	54.2%	57.7%	171.46%	91.95%	95.63%
유동비율 ²⁾	192.4%	200.6%	180.8%	109.5%	113.3%	114.9%

- 1) 부채비율 = 총부채/총자본 : 재무적 위험도 파악 지표
- 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단기채무지급능력 파악 지표

'11년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 상장사의 자기자본 부채비율은 전체상장사의 60% 수준으로 상승 기업의 재무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은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증가폭은 '10년 두 자릿수(10.5%p)에서 '11년 한 자릿수(3.5%p)로 감소했다. 또한 '11년 콘텐츠 상장사의 유동비율은 180.8%로 전체상장사 대비 65.9%p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0년 200%까지 증가한 후 '11년 하락세로 전환되어 부채비율 증가세와 더불어 재무적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 상장사의 재무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향후 가치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콘텐츠 상장사 재무제표 변화 추세선('09년~'11년)

한편, 콘텐츠산업 8개 분야(게임, 지식정보, 출판, 방송, 광고,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살펴보면, 게임과 지식정보의 영업이익률은 20%대(2009년 대비 감소)로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큰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타 산업군에 비해 부채비율(30~40%대, 2009년 대비 증가)은 낮고 유동비율(250% 초과)은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에서도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2009년 대비 영업이익률 감소, 부채비율 증가, 유동비율 감소가 나타났으나, 음악만은 2009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5.7% → 11.1%, 부채비율은 78.1% → 45.5%, 유동비율은 163.8% → 225.6%로 매우 긍정적인 실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케이팝(K-POP)의 국내외 성장과 한류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고 하겠다.



〈표 3〉 콘텐츠 상장사의 영업이익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 유동비율 추이 비교('09년~'11년)

(단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게임	영업이익률	34.9%	24.7%	24.5%
	부채비율	28.5%	40.7%	43.8%
	유동비율	301.6%	280.0%	266.0%
지식정보	영업이익률	31.8%	26.8%	24.1%
	부채비율	31.5%	39.8%	38.5%
	유동비율	237.4%	277.9%	280.2%
출판	영업이익률	8.4%	8.7%	6.7%
	부채비율	38.4%	37.5%	52.3%
	유동비율	208.6%	219.0%	127.0%
방송	영업이익률	12.7%	14.0%	13.8%
	부채비율	48.1%	60.1%	51.7%
	유동비율	131.8%	167.9%	169.1%
광고	영업이익률	6.9%	8.5%	5.9%
	부채비율	79.0%	123.7%	157.0%
	유동비율	174.9%	159.0%	146.7%
영화	영업이익률	15.4%	2.5%	8.1%
	부채비율	102.4%	113.0%	132.7%
	유동비율	64.4%	70.3%	75.7%
음악	영업이익률	5.7%	5.6%	11.1%
	부채비율	78.1%	68.0%	45.5%
	유동비율	163.8%	163.4%	225.6%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업이익률	-0.2%	-6.4%	0.1%
	부채비율	65.4%	72.1%	78.6%
	유동비율	156.0%	118.4%	121.7%

지금까지 국내 콘텐츠 상장사들의 경영실적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제표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콘텐츠산업 8개 분야 상장사들의 경영실적도 진단하였다. 콘텐츠업체는 제조업과 달리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와 경영실적만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 콘텐츠업체 대부분은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거나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콘텐츠 자산을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해서 저작권에 기반한 라이선스와 머천다이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산업은 무형의 포트폴리오가 곧 자산이 된다. 〈앵그리 버드〉(로비오 엔터테인먼트)는 알을 훔친 돼지에게 성난 새들이 복수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스마트폰용 게임에서 태블릿PC, 스마트TV, 콘솔게임기 등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 '11년 매출 1200억원을 달성하고, 종사자 3명에서 150명으로 성장하였다.

아직도 국내 콘텐츠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향후 콘텐츠업체들의 가치가 다각도로 평가받아 성장가능성이 제고되고 콘텐츠산업별 재무구조의 편차 등이 해소되어 지속적으로 기업공개와 상장업체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KOCCA 통계브리핑
제12-01호(해외편)



Statistics
Briefing

PWC, 2011년 글로벌 E&M시장 1조 6천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는 10위

김 영 수(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2012년 6월 12일 PWC(2012)¹²⁾는 2011년 기준 글로벌 E&M(Entertainment & Media) 산업에 대한 분야별, 국가별, 권역별 시장규모를 발표했다. 시장조사는 내수 소비시장(retail value)을 기준으로 측정했으며, 국가 인구수와 1인당 소비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13개 분야는 유무선 인터넷접속, 유무선 인터넷광고, TV가입 및 라이선스, TV광고, 음악, 영화, 게임, 소비자 잡지, 신문, 라디오, 옥외광고, 소비자/교육용 서적출판, 기업정보 시장이다.

〈표 1〉 글로벌 E&M산업 분야별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0	2011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16 CAGR
인터넷 접속: 유무선	275,472	316,972	351,006	386,855	419,838	456,109	493,390	
% 증감	10.0	15.1	10.7	10.2	8.5	8.6	8.2	9.3
인터넷 광고: 유무선	75,594	89,766	105,411	123,511	143,285	164,908	188,069	
% 증감	18.3	18.7	17.4	17.2	16.0	15.1	14.0	15.9
TV가입 및 라이선스	201,016	215,536	229,092	243,368	258,148	274,151	290,596	
% 증감	5.5	7.2	6.3	6.2	6.1	6.2	6.0	6.2
TV광고	179,479	185,005	196,507	203,833	224,710	231,555	254,745	
% 증감	11.8	3.1	6.2	3.7	10.2	3.0	10.0	6.6
음악	49,270	49,886	51,124	52,771	54,810	57,141	59,741	
% 증감	-7.3	1.3	2.5	3.2	3.9	4.3	4.6	3.7
영화	84,897	85,433	87,877	90,724	93,651	96,714	99,657	
% 증감	1.8	0.6	2.9	3.2	3.2	3.3	3.0	3.1
게임	57,459	58,723	62,349	66,206	71,243	76,878	82,976	
% 증감	4.1	2.2	6.2	6.2	7.6	7.9	7.9	7.2
소비자 잡지	75,855	75,221	75,337	75,687	76,651	78,211	80,184	
% 증감	-0.1	-0.8	0.2	0.5	1.3	2.0	2.5	1.3
신문	169,091	167,968	168,553	170,553	173,264	176,906	181,224	
% 증감	0.5	-0.7	0.3	1.2	1.6	2.1	2.4	1.5
라디오	46,542	47,255	49,601	51,284	52,911	54,558	56,244	
% 증감	5.0	1.5	5.0	3.4	3.2	3.1	3.1	3.5
옥외 광고	30,406	31,940	33,809	35,452	37,188	38,941	40,830	
% 증감	5.2	5.0	5.9	4.9	4.9	4.7	4.9	5.0
소비자/교육용 서적 출판	113,530	112,066	112,173	112,706	113,623	114,634	115,719	
% 증감	-0.1	-1.3	0.1	0.5	0.8	0.9	0.9	0.6
기업정보	190,349	191,125	194,462	199,739	207,159	216,130	226,324	
% 증감	-0.6	0.4	1.7	2.7	3.7	4.3	4.7	3.4
전체	1,530,197	1,604,583	1,690,871	1,781,593	1,889,923	1,994,205	2,120,070	
% 증감	4.5	4.9	5.4	5.4	6.1	5.5	6.3	5.7

※ 출처: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PWC에 따르면, 2011년 글로벌 E&M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9% 성장한 1조 6,046억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7% 성장하여 2015년에는 2조 1,201억 달러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업별 시장규모는 유무선 인터넷접속(Internet access-wired and mobile)이 3,170억 달러, 전체의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TV가입 및 라이선스(TV subscription and license fee)가 2,155억 달러(13.4%), 기업정보(Business to business)가 1,911억 달러(11.9%), TV광고(TV advertising)가 1,850억 달러(11.5%), 신문(Newspaper publishing)이 1,680억 달러(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옥외광고(Out of home advertising)가 319억 달러(2.0%)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2〉 글로벌 E&M산업 상위 13개국의 시장현황 및 전망(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0	2011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16 CAGR
1	미국	450,095	463,863	489,873	508,416	536,667	562,199	597,279	5.2
2	일본	195,667	192,796	198,938	204,913	210,424	215,876	221,630	2.8
3	중국	95,702	109,059	120,948	137,458	154,940	173,449	192,516	12.0
4	독일	97,183	99,342	101,857	104,789	107,441	110,242	113,433	2.7
5	영국	82,278	83,367	85,225	87,472	90,139	93,563	97,332	3.1
6	프랑스	73,392	77,098	79,495	82,191	84,831	87,737	91,063	3.4
7	이탈리아	45,402	46,099	47,024	47,864	49,577	51,485	53,688	3.1
8	캐나다	41,801	44,166	46,868	49,850	53,216	56,696	60,574	6.5
9	브라질	35,379	39,168	43,307	48,255	55,519	57,781	64,823	10.6
10	대한민국	36,289	38,562	40,191	41,926	43,644	45,497	47,455	4.2
11	호주	34,264	35,021	37,003	39,162	40,925	43,078	45,029	5.2
12	스페인	28,702	29,412	29,580	30,332	31,071	32,072	33,227	2.5
13	중동/북아프리카	17,300	25,412	28,516	31,698	34,983	39,064	43,622	11.4
상위 13개국 합계		1,233,454	1,283,365	1,348,825	1,414,326	1,493,377	1,568,739	1,661,671	
전체		1,530,197	1,604,583	1,690,871	1,781,593	1,889,923	1,994,205	2,120,070	

※ 출처: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특히 글로벌 E&M 시장의 상위 13개국(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대한민국, 호주, 스페인, 중동/북아프리카)의 시장규모는 1조 2,834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3개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4,639억 달러로 1위(28.9%), 일본은 1,928억 달러로 2위(12.0%), 중국은 1,091억 달러로 3위(6.8%), 독일은 993억 달러로 4위(6.2%), 영국은 834억 달러로 5위(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386억 달러로 10위(2.4%)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363억 달러로 9위였으나, 2011년에 한 단계 하락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이 가장 높게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12.0%)으로 시장규모 2위인 일본과의 격차를 점차 좁힐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은 연평균 10.6% 성장률이 예상되어 2015년에는 7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국을 포함하는 중동/북아프리카 시장은 연평균 11.4%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새롭게 시장규모 상위 13개국에 진입한 점도 눈에 띈다.

12)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1898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현재는 미국 뉴욕 본사)되어 150개국에 지사와 14만 여명 근무. 사업영역으로 회계, 감사, 컨설팅, 금융자문, 조세 등 전문서비스업 수행.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에 대한 10년간 데이터(과거 5년간, 미래 5년간) 발표



또한 PWC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E&M 시장규모는 386억 달러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2% 성장하여 2015년에는 475억 달러 규모가 예상된다. 분야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유무선 인터넷접속 시장이 151억 달러로 전체의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게임이 58억 달러(15.0%), 기업정보가 29억 달러(7.5%), TV가입 및 라이선스가 28억 달러(7.2%), 신문이 28억 달러(7.2%), TV광고가 21억 달러(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라디오 시장이 3억 5천만 달러(0.9%)로 가장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5년간 유무선 인터넷광고가 12.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이어 음악(10.2%), TV광고(8.1%), 게임(7.7%), TV가입 및 라이선스(6.4%) 등의 순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 우리나라 E&M 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16 CAGR
인터넷 접속: 유무선	14,307	15,099	15,479	15,895	16,189	16,485	16,762	2.1
인터넷 광고: 유무선	1,564	1,758	1,963	2,230	2,510	2,804	3,111	12.1
TV가입 및 라이선스	2,614	2,787	2,962	3,151	3,348	3,567	3,794	6.4
TV광고	1,762	2,127	2,288	2,476	2,690	2,885	3,141	8.1
음악	763	857	957	1,062	1,173	1,288	1,394	10.2
영화	1,691	1,794	1,859	1,952	2,043	2,137	2,231	4.5
게임	5,287	5,763	6,274	6,731	7,215	7,759	8,343	7.7
소비자 잡지	667	662	657	655	657	669	680	0.5
신문	2,717	2,754	2,742	2,715	2,702	2,704	2,722	-0.2
라디오	335	350	367	386	407	429	450	5.2
옥외광고	396	421	443	466	493	520	547	5.4
소비자/교육용 서적 출판	1,665	1,716	1,736	1,742	1,736	1,729	1,724	0.1
기업정보	2,854	2,897	2,951	3,027	3,134	3,278	3,434	3.5
전체	36,289	38,562	40,191	41,926	43,644	45,497	47,455	4.2

※ 출처: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이번에 발표된 PWC(2012) 보고서를 통해(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PWC의 시장규모는 내수시장기준으로 소비주체인 인구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령화 및 인구정체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확대에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PWC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규모(386억달러)와 국내 콘텐츠산업통계에서 발표한 국내 콘텐츠산업규모(82조원)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산업범위(PWC는 13개 분야, 콘텐츠산업통계는 11개 분야)와 조사영역(PWC는 내수시장, 콘텐츠산업통계는 내수/외수, 제작/유통시장 모두 포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E&M 시장규모는 방송(드라마), 음악(K-pop) 등 한류수출과 연관된 매출규모가 포함되지 않는 등 시장통계를 직접 비교하거나 경쟁력 지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셋째, 2011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E&M시장의 상위 12개국에서 국가별 GDP 대비 E&M시장 비중은 우리나라가 영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해 E&M 분야의 1인당 소비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의 원활한 보급, 2011년 시작된 4G(LTE) 서비스의 상용화, 전 국민의 96%에 육박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자 확보에 힘입어 최근 5년간(2007~2011) 온라인/모바일 게임시장의 성장률이 세계 2위(17억 5천만 달러 성장)를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PWC(2012) 보고서는 처음으로 공연행사(Concerts and music festivals) 매출액을 음악시장에 포함시켰는데, 2009년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시켰고 그에 따라 음악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로 소개한 점은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OCCA 통계브리핑
제12-02호(해외편)



Statistics
Briefing

IFPI,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167억 달러 규모로 하락, 우리나라 11위 기록

김 영 수(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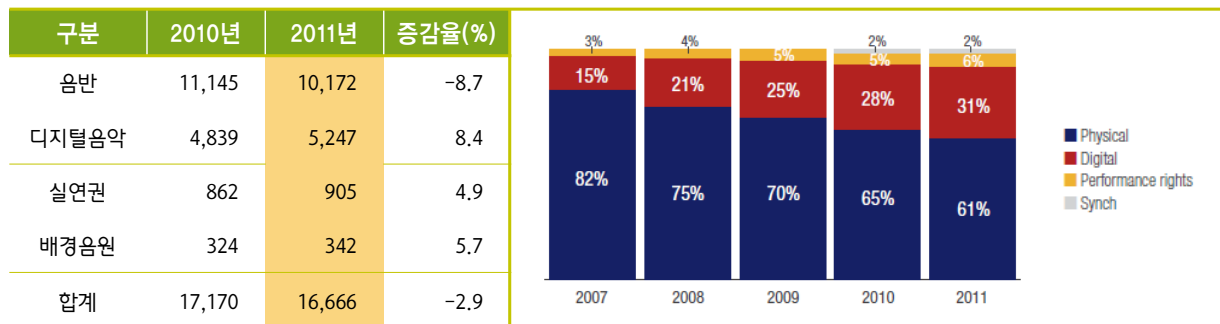
2012년 3월 IFPI(2012)¹³⁾는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를 발표하면서 2011년도 글로벌 음악 시장에 대한 분석과 2012년 산업의 변화 트렌드를 진단했다.

IFPI에 따르면,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규모는 167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9% 하락하여 2004년 시장 규모 수준에 머물렀다. 분야별로는 음반(physical) 시장이 102억 달러로 전체의 6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디지털음악(digital) 시장 52억 달러(31.5%), 실연권(performance rights) 시장이 9억 달러(5.4%), 배경음원(synchronisation) 시장이 3억 달러(2.1%)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음반시장의 경우, 전년 대비 8.7% 하락한 반면, 디지털음악 시장은 8.4% 성장했다. 한편 TV, 영화, 광고, 브랜드파트너십, 게임 등에 음원을 사용한 재상품화가 빈번하고 해당 분야의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11년에 처음으로 배경음원 시장통계를 추가하였다.

〈표 1〉 글로벌 음악시장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IFPI(2012),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규모 상위 20개국 가운데 미국과 독일은 2010년과 비슷한 시장규모를 보였고, 상위 5개국의 순위도 변동이 없었다. 또한 상위 20개국의 음악 분야별(음반/디지털음악/실연권/배경음원)의 시장 비중은 각각 61%/31%/6%/2%였다. 특히 디지털음악 시장의 비중이 음반시장 비중을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인도, 노르웨이 4개국(노란색 음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의 음악시장 규모는 43억 7,890만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26.3%를 점유해 1위를 기록했고, 일본(40억 8,770만 달러, 24.5%), 독일(14억 7,370만 달러, 8.9%), 영국(14억 3,370만 달러, 8.6%), 프랑스(10억 220만 달러, 6.0%), 호주(4억 7,520만 달러, 2.9%), 캐나다(4억 3,400만 달러, 2.6%), 브라질(2억 6,260만 달러, 1.6%), 네덜란드(2억 4,020만 달러, 1.5%), 이탈리아(2억 3,990만 달러, 1.4%), 대한민국 1억 9,950만 달러(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규모 상위 20개국 중 브라질(+8.6%), 대한민국(+6.4%), 인도(+6.2%), 호주(+5.7%), 멕시코(+5.5%), 스웨덴(+3.0%), 캐나다(+2.6%) 등 7개국만이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 음악시장 규모가 세계 33위에 그쳤으나, 2007년 23위, 2010년 12위, 2011년에는 11위로 4년 연속 성장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내수소비시장이라 할 수 있는 소매가치(retail value) 시장규모도 3억 8,800만 달러(8위)를 기록해 향후 K-POP 등이 탄력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음악시장 규모가 전 세계 10위권 내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상위 20개국의 시장규모 및 분야별 비중

순위	구분 국가	(무역액)시장규모		분야별 비중				(소매가치) 시장규모
		백만달러 (US\$)	증감율 (%)	음반 (%)	디지털음악 (%)	실연권 (%)	배경음원 (%)	백만달러 (US\$)
1	미국	4,378.9	0.0	42	51	3	4	6,493.0
2	일본	4,087.7	-7.0	75	22	2	1	5,545.5
3	독일	1,473.7	-0.2	78	15	6	1	2,017.6
4	영국	1,433.7	-3.1	58	32	8	2	1,904.2
5	프랑스	1,002.2	-3.7	71	19	8	2	1,391.5
6	호주	475.2	+5.7	55	38	5	2	658.9
7	캐나다	434.0	+2.6	54	38	4	4	535.2
8	브라질	262.6	+8.6	74	17	8	1	365.9
9	네덜란드	240.2	-12.1	71	14	15	0	286.2
10	이탈리아	239.9	-6.4	68	20	9	3	304.5
11	대한민국	199.5	+6.4	44	54	1	1	388.0
12	스페인	190.0	-3.3	56	24	19	1	203.1
13	스위스	158.3	-16.2	72	23	5	0	199.4
14	스웨덴	155.3	+3.0	45	44	10	1	240.8
15	멕시코	141.2	+5.5	70	28	1	1	203.8
16	인도	141.2	+6.2	41	46	8	5	227.7
17	벨기에	140.5	-10.2	75	13	12	0	208.5
18	오스트리아	118.9	-7.3	70	18	11	1	195.8
19	노르웨이	115.1	-0.7	43	45	11	1	156.6
20	남아프리카공화국	102.0	-18.7	93	6	0	1	152.9
합계		16,666.1	-2.9	61	31	6	2	23,357.5

※ 출처: IFPI(2012),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

13) 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국제음반산업협회로 글로벌 음악산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음악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고 브뤼셀, 홍콩, 마이애미, 모스크바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 66개 국가의 1,400여개 음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시장조사는 무역액(trade value)과 소매가치(retail value)로 구분하여 시장규모를 산정했으며 시장규모는 무역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IFPI(2012)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음악시장 규모는 무역액(trade value)을 기준으로 1억 9,950만 달러였으며, 2010년 대비 6% 성장과 연평균성장률('07~'11년) 13.4%를 나타냈다. 2011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디지털음악 시장이 1억 830만 달러로 국내시장 전체의 5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음반시장이 8,820만 달러(44.2%), 실연권시장이 220만 달러(1.1%)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경음원 시장이 80만 달러(0.4%)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음악시장에서 11위를 차지한 가운데 분야별 순위로는 음반 시장 16위, 디지털음악 시장 8위, 실연권 시장 38위, 배경음원 시장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표 3〉 우리나라 음악시장 규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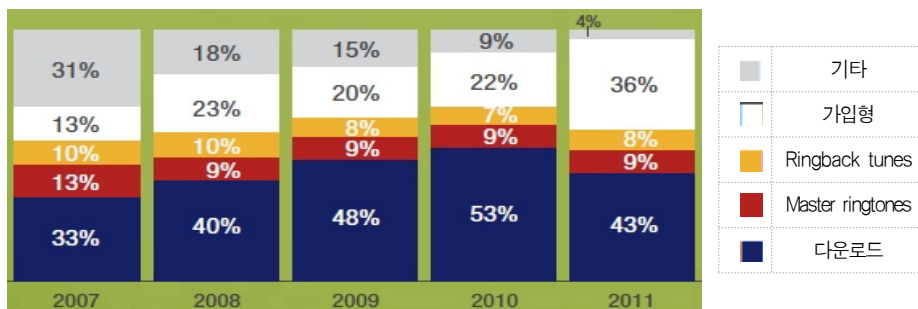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세계시장 내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 ('07~'11)
음반	16	47.2	78.5	74.3	84.4	88.2	16.9
디지털음악	8	73.3	72.8	92.7	102.2	108.3	10.3
실연권	38	-	-	-	-	2.2	-
배경음원	23	-	-	-	1.0	0.8	-
합계(US\$)	11	120.5	151.3	167.0	187.6	199.5	13.4
증감율(%)		-8.4	25.6	10.4	12.3	6.4	

※ 출처: IFPI(2012),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

우리나라 디지털음악은 크게 가입형(subscriptions), Ringback tunes, Master ringtones, 다운로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다운로드 형태의 디지털음악 이용이 전체의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가입형 디지털음악이 36%, Master ringtones 9%, Ringback tunes 8%, 기타 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형 음악서비스 이용은 지난 2007년 대비 2.8배 정도 증가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디지털음악 형태별 판매 비중



*Ringback tunes는 멜로디 콜, 대기음악 등, Master ringtones은 착신음, 벨소리 등을 의미

※ 출처: IFPI(2012),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2



이번에 발표된 IFPI(2012)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우리나라 음악시장이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디지털 음악산업 성장과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의 높은 보급률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손쉽게 음악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K-pop이 아시아권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에 따라 세계 음악관계자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Universal Music Group 대표 Rob Wells는 K-pop이 아시아 음악시장에서 시작된 대표적 현상으로서 글로벌 확산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셋째, IFPI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불법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부와 관련 기업의 노력을 꼽을 수 있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digital piracy)가 글로벌 음악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인 만큼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불법 콘텐츠 이용 및 접근에 대한 단속, 웹사이트 블로킹(website blocking)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 정책의 효율적 시행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다.

마지막으로 IFPI(2012)에서는 2011년 우리나라의 실연권(220만 달러) 시장규모 및 순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한 반면, PWC(2012)에서는 4억 7백만 달러로 추정하여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로 동일한 분야임에도 IFPI의 시장규모가 과소추정된 점 등 집계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실질적인 시장통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PI에서 우리나라의 실연권과 배경음원의 시장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음악산업에 종사하는 창작권리자(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가수 등)의 매출 비중 확대와 음원 거래방식 개선을 통해 국내 음악산업이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함을 보여준다.



2012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콘텐츠산업 자문단 (41명)

- | | |
|---|---------------------------------|
| 강덕원 (게임동아 대표) | 윤 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팀장) |
| 강형석 (게임트릭스 팀장) | 이광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이사) |
| 김도학 (M&E산업연구소 소장) | 이민재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사무국장) |
|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이병우 (캐릭터&완구신문 대표) |
| 김세훈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 김영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 이종규 (인터파크INT공연사업 본부장) |
| 김태원 (푸른여름 대표) | 이혜경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팀장) |
| 나의진 (한국게임산업협회 과장) | 이호준 (한국광고협회 팀장) |
| 박관형 (이미지프레임 편집장) | 임진욱 (예술경영지원센터 연구원) |
|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 전영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
| 박성만 (메이븐스퀘어 이사) |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 교수) | 정우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
| 박정민 (EBS 외화애니부 PD) | 정윤재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
|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소장) | 조한석 (문화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
| 박준흠 (가슴네트워크 대표 / 대중음악 SOUND 발행인) | 주은수 (미디어경영연구소 소장) |
| 박호상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 |
| 백수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과장) | 최영균 (아이러브캐릭터 편집장) |
| 송철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악정보센터 실장) | 최원석 (닐슨컴퍼니코리아 국장) |
| 오세성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 황성연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차장) |
| 오수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장) | |



2012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2012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은 ‘콘텐츠산업자문단’과 ‘KOCCA 통계정보팀’이 공동작업하여 온라인으로 발간하는 월간지입니다.

콘텐츠산업 자문단

- 단 장 정우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종합위원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소장)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박성만 (메이븐스퀘어 이사)
분 과 장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판/만화/지식정보분과)
김도학 (M&E산업연구소 소장, 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분과)
박준흠 (가슴네트워크 대표, 음악/공연분과)
강덕원 (게임동아 대표, 게임분과)
김태원 (푸른여름 대표, 방송/광고분과)

한국콘텐츠진흥원

- 총괄기획 및 감수 노준석 (통계정보팀 팀장)
공동기획 및 감수 김은정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김영수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박성원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강중구 (통계정보팀 연구원)

발행인 홍상표

발행일 2012년 06월 29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2 문화콘텐츠센터 (12층)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정보팀에서는 **콘텐츠산업정보포털(<http://www.kocca.kr>)**을 통해 각종 콘텐츠 기업정보, 시장현황, 산업통계 등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들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 및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텐츠 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영상자료, 게임자료, 음향자료 등을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콘텐츠도서관(<http://library.kocca.or.kr>)**을 평일(9:00~18:00)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콘텐츠도서관 문의) 통계정보팀 신란희 (02-3153-1376/rhshin@kocca.kr)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문의) 통계정보팀 강중구 (02-3153-3021/kjungoo@kocca.kr)

